

옹산 스님(경허 · 만공선양회장)
만공선사 一喝은 총칼과
서슬퍼런 권력 뛰어넘어
4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6월 29일) · 주간

제1057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불교 독립운동 등록 문화재 2% 불과

광복 70주년 맞아 비조명 스님 발굴 목소리 높아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의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일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근대문화재 지정에 대한 관심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화과원 국가사적지정추진위원회(위원장 진종삼)는 7월 24일 창원 아리랑호텔에서 불교계 · 학계 · 재계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용성 스님의 상해임시정부 자금지원시설인 함양 백운산 '화과원(華果院)' 의 국가사적 추진을 선포했다.

이날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진종삼 前경남도의회 의장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의 중심이 된 곳이 아무런 복원대책이나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뜻모았다"고 말했다.

함양 화과원은 함양군 백운산 일대 농장으로, 용성 스님이 스님들이 참선하며 일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 불교운동을 펼친 곳이다. 기미독립선언 민족대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용성 스님은 해외독립운동 자금공급을 위해 화과원에 수만 주의 과수를 심고 수확한 과일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함양군에서 발간한 〈함양문화대전〉에는 건물 16동에 스님 수십명이 기거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용성 스님이 거주했던 곳에 전각 1채만이 지어져 있다.

화과원 원장 혜원 스님은 "한국전쟁 이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화과원 부지도 팔려 분산됐다"고 말했다. 혜원 스님은 용성 스님 수제자인 동헌 스님의 법제자로 유지를 받들어 1991년부터 화과원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법당터와 선방터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화과원의 경우도 다른 독립운동 관련 근대문화재 현황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대문화재 등록 건수는 648건. 이 중 불교관련 근대문화재는 총 30건으로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세부적으로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458호), '구리 한용운 묘소' (519호), 백용성 역 조선글 화엄경(629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630호), 백용성 역 신역대장경(631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632호),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637호),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646호) 등 8건으로, 전체 등록 근대문화재의 2%에 불과한 수치다.

문도들이 현재 불교계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용성문도회와 선양사업을 진행 중인 경허 · 만공 선양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문도들의 관심에서 빗겨간 곳은 보존관리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실례로 만해 스님이 기독교, 천도교계와 3.1운동의 물밑 작업을 했던 계동43번지 '유심사' 는 현재 민간 소유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이다.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월간지 〈유심〉을 발행하고 독립선언 하루 전날, 중앙학림 유심회 학생들을 불러 모아 독립선언서 3000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독립운동 등록문화재
용성 스님 유물 다수
만해 스님의 '유심사'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비조명 인사 발굴해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무엇보다 자료 수집, 발굴 등이 중요하다"며 "여건 상 조명받지 못하는 근현대 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우봉 스님의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 중인 법주사 도봉 스님은 "우봉 스님은 만당비밀결사를 조직해 해마다 쌀 500석을 독립군에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거자료가 관건"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봉 스님의 선양사업은 현재 조계종 총무원과 전주이씨익녕군파종회(이사장 이완호)의 공적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불교계가 장기적으로 근대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료 발굴과 수집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인 보광 스님은 "근대 불교계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방치한다면 결국 스스로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며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는 8월 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 · 24 대북제재 조치를 과감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8.15,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불교단체연석회의, 8월 6일 기자회견

"이미 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된 대북제재 수단인 5 · 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고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계 사회단체들이 8 · 15 광복을 맞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통일사업 전개를 촉구했다.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는 8월 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 · 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청년회, 더프라미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불교여성개발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는 7월 15일 결성돼 '광복 70년 조국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성사를 위한 기도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 에서 "5 · 24조치가 시행된지 5년이 넘어서며 남북경협 사업자들이나 대북인도 지원사업자들은 사업 중단에 따른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미 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5.24 제재 해제 촉구
통일사업 추진방침 밝혀
8.15 남북공동법회 개최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8 · 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올해 8 · 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전준호 회장과 신창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이사 등은 입장문을 통일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8월 8일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오가는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열차' 행사와 11일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강연 –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중국 선양 회동 후 추진되던 8 · 15남북합동법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이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은 "실무접촉 무산으로 15일 오전 10시 남북동시법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특집 섹션 | 광복 70년 불교 70년 B1~8면

다시 뽑아든 '종교인 과세' 47년 논란 마침표 찍나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종교인 항목 신설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
비과세율도 명목화해
불교 "과세 찬성 입장"

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 카드를 뽑아들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였지만 47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이어진 뜨거운 감자다.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는 내년부터 종교인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국회가 종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매번 미뤘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 기준은 지난해 종교계 대표와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절충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을 근거로 했다.

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시행령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 항목에 넣었다.

징수 방법인 '원천징수' 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종교인들이 원천징수 자체를 '세무 사찰' 이라며 부담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세율도 소득 격차가 심한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을 적용했다. 연 4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연 4000만~8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60%, 8000만~1억5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40%를 공제한다.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종교인은 20%만 공제된다.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공론화된 때는 1968년이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 뒤 추진돼 왔지만 종교계 반발이 거세 번번이 무산됐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넣으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방침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현재 불교계는 과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면서 "세법 개정안이 나온 만큼 종단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고

새 우편번호 전면 시행 따른 일괄전환 안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를 애독해주시는 독자 제호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법 시행령' 에 의거 5자리 새 우편번호로 전면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지에 등록된 독자님들의 우편번호도 원할한 배송을 위해 새 우편번호로 변경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화 된 주소가 아닌 (구)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독자님들은 '도로명 주소' 로 변경 신청 바랍니다.

변경신청 문의 (02)2004-8212



‘고전과 윤리’에 〈금강경〉〈수심결〉 편성

교육부 고교교육 최종 시안 확정

동서양 고전 탐독 신설
금강경 수심결 2권 포함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고전과 윤리’ 교육과정에 〈금강경〉과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수심결〉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모든 고등학생이 인문, 사회, 과학 분야 기초소양을 쌓도록 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초 · 중 · 고 교육과정에는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고전과 윤리’를 도입했다.

‘고전과 윤리’는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상상력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들이 동양과 서양의 윤리학과 관련된 고전을 읽도록 한다. 특히 도덕적 동기와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금강경〉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수심결〉은 ‘자신과의 관계’ 단원에 포함된다. 〈금강경〉 교육과정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는 연기적 존재임을 알고, 나의 모든 행동이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침을 깨달아 삶에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심결〉은 “진정한 나 찾기와 마음 닦는 길로서의 공부를 통해 ‘나’는 무엇을 말하며 마음을 닦는 공부로 돈오와 점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고전과 윤리’에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공자의 〈논어〉, 〈목민심서〉, 〈신약〉, 〈코란〉 등 14권이 포함됐다.

교과서 개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사회연구소 측은 “불교의 경우 〈수심결〉이 포함된것은 자기수행의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불교사회연구소 측은 “〈금강경〉의 경우 검토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현대교육과정에 맞고 청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법인 유예 조치 마감… 170곳 등록

조계종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유예 기간이 7월 31일로 종료됐다. 마감 결과 170개의 조계종 소속 법인들이 종단 등록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종단 등록을 마친 법인 수는 1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단이 파악한 법인 등록 대상 수는 230곳으로 약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3월 1일까지 등록된 법인은 111곳으로 60여 곳이 증가했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보유하는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11개 대상 법인 중 8개 법인이 등록했다. 등록한 법인은 성륜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불교문화진흥 성찬회, 불교안양원, 연화, (재)한마음선원이다. 조계종과 갈등 중인 선학원과 법보선원, 보리동산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

‘사찰 법인’은 7곳 대상 중 5곳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았던 만불회가 7월 2일 등록을 완료했지만, 외국인들로 임원진이 구성된 숭산국제선원은 아직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 대표 사찰인 능인선원 역시 종단 등록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7월 31일로 등록 최종 마감
3월보다 60여 곳 등록 증가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예상
종단 차원 계도 사업 지속
중앙종회, 法 개정 전망도

완료한 사찰법인은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만불회다.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장 많은 등록을 보인 곳은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이다. 3월 당시 64개에 그쳤지만 현재까지 90여 개 이상의 법인이 등록을 마쳤다.

7월 31일로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미등록법인에 대한 후속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종단에서 지원하는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교육 및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의 입방이 불허되며 종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당장 문제는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이다. 법에 따르면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미등록법인 도제들은 더 이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선원과 강원의 퇴방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제재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별도로 늘리는 조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 등록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종단 차원의 계도 사업도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인관리법 미등록 법인 제재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중앙종회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월 28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총무분과위원장 함결 스님은 “선학원정상화특별위원회가 종령 개정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9월 종회에서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만 제재하는 방침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광범위한 제재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년 화랑이여, 다시 한자리 모이자”

대불련 총동문회, 8월 15~16일 전국동문대회

전국 500여 회원 어울림 마당
불국사 · 석굴암 일대 참배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대불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8월 15~1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국사, 석굴암 일원에서 ‘대불련, 다시 만나다’를 주제로 ‘제13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한다.

백효흠 총동문회장은 대회 개최에 앞서 “이번 행사는 특히 한국청년 불교의 비전과 대학생 불자 포교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대학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화합하는 자리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동문대회는 동문간 교류와 총동문회 방향성 공유를 위한 토론회, 불국사 · 석굴암 참배, 문화특강과 연극관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8월 15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총동문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회가 진행된다. 발표회에서는 △이제열 법사의 ‘청년불교운동’, △최승태 대불련 발전위원장의 ‘대불련과 총동문회의 현황과 비전’ 주제강연이 진행된다. 또 불국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와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석굴암 참배를 시작으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의 ‘문화재 활용을 통한 포교’ 강연등이 이어진다. 석굴암 참배의 경우 보존을 이유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만 특별히 개방돼 일반관람객 입장 전 참배가 진행된다.

백 총동문회장은 “이번 대회기간에는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모둠을 특별 운영한다”며 “동문회원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청소년 모둠에서는 사찰예절 · 찬불가 배우기, 불교동화 시청, 폐염경 · 소원등 만들기 등 불교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대불련 총동문회는 동문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상징한 앰블럼도 제작했다. 향후 대불련 총동문회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이 같은 활동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백효흠 총동문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나라를 위한 신라화랑들의 정기를 느끼고 이를 통해 동문들이 불교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불교 각계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 총동문회는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을 모연한다. 대불련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마지막날까지 모연된 쌀은 불국사에서 추천하는 교계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02)720-196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중 화합으로 당면 문제 해결하라”

조계종 대중공사 참여 스님
3일 종정 · 원로의장 스님 예방
특별법 제정 통한 사면 당부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참가자 스님들은 8월 3일 팔공총림 동화사 염화실을 찾아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대중공사 결과를 보고했다.

7월 29일 열린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결의된 사항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참여 스님들은 8월 3일 팔공총림 동화사 염화실을 찾아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도 함께 했다.

이날 자리는 비공개로 10분간 진행됐으며, 진제 스님은 “화합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참석한 일감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중공사 참여 대중들은 종정 스님에게 “이번 대중공사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과거사 문제는 종단이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일을 미리미리 해결하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는 참회의 뜻을 먼저 전했다.

이어 “이번 대중공사를 계기로 향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교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종정 진제 스님은 화답으로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의 저력으로 지난 5월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한국불교의 힘을 보여줬듯이 대중들이 화합해서 불교발전을 이룩하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동화사 예방에는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지홍 스님과 도법 스님,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중앙종회의원 범해 · 등운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일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어 대중공사 참여 스님들은 오후 5시 15분에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이 주석하는 봉선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대중공사 참여 스님들은 “대중공사에서 원로스님들의 사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잘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대중공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원로의장 밀운스님은 “우리는 자비문중이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과거에 억울한 분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선사 예방에는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지홍 스님과 도법 스님, 중앙종회의원 범해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일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2015 신작 찬불가’ 공모

조계종 문화부, 9월 4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일)는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찬불가 보급을 위해 ‘2015 신작 찬불가 공모’를 진행한다.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불자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7월 24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분야는 △대중찬불가 △찬불가합창곡 △연등회 대중율동곡 △기타 찬불가요, 찬불동요 등 불교적 사상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 장르의 제한이 없다.

노랫말 내용은 △불교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 △노랫말에 있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한문보다는 쉬운 말로 표현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랫말로 불교사상과 가르침을 표현 △통절(1, 2절 없이 한 문장)과 유절(1, 2절 등), 운율(3, 4박자)을 고려해 문장길이를 표현해야 한다. 단 연등회 대중 율동곡에 한해 ‘조계종 2015 연등회 대중율동곡 노랫말’ 공모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다.

공모에 동참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악보 5부(제본 상태 및 파일로 제출), 음원(곡당 1개의 음원 파일 제출), 사진 1매 등을 등기우편(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삼누화기념관 3층 문화부)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 이며, 이메일과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해미읍성 역사 지우는 ‘성지화’ 안돼”

허정 스님, 가톨릭 교구장에 편지… “종교화합의 장소 활용”

현재 서산 · 당진은 ‘교황앓이’ 중이다. 교황 방문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는 물론 해미읍성 주위를 가톨릭 성지화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보다 못한 지역 사찰 주지 스님이 가톨릭 대전교구 교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역사를 부각하기 위해 다른 역사를 지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담아서.

서산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7월 20일 가톨릭 대전교구 유흥식 교구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허정 스님은 편지에서 “지난해 교황이 다녀가고 올해 후속작업을 위해 198억 원이라는 사업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놓고 국회의 승낙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종교적인 사업으로 보지 말고 우리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봐달라고 말하지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특정 종교의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는 순교자 103명이 성인이 됐다. 순교자가 있는 곳은 어디고 성지로 불리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해미읍성도 같은 이유로 해미성지로 부른다”면서 “가톨릭은 성지화 작업을 한다며 땅에 새겨진 타 종교 흔적에 천주교 순교사로 ‘덮어쓰기’를 하고 있다. ‘나의 역사 만들기’가 결과적으로는 ‘남의 역사 지우기’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미읍성, 사방비보 사상 담겨
지역 시민 위한 공동체적 공간
천진암 등 ‘역사 덮어쓰기’ 피해

허정 스님은 해미읍성이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공동체 회복의 장소, 종교화합의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읍성은 이순신장군이 근무했던 왜구를 지키는 역사의 현장이며 연등축제, 연날리기, 활쏘기와 같은 민속놀이와 민속공예가 펼쳐지는 체험의 현장이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주막집, 찻집이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소”라면서 “해미읍성은 특정종교의 성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남는 것이 후손들을 위해서나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미읍성 동서남북에는 해미읍성과 같은 역사를 가진 돌로 만든 미륵불이 사방비보(四方裨補)로 세워져 있다”면서 “해미읍성은 가톨릭 박해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시대 축조돼 유교의 흔적도 많다.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의 흔적이 중첩되는 해미읍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가 만나게 되는 소통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허정 스님의 우려대로 가톨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위해 성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사찰이 가톨릭 성지로 변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어사가 대표적 사례다. 천진암은 이제 가톨릭 발상 관련 사적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주어사는 가톨릭 강학처로 변화되고 있다. 주어사의 경우 조계종 2교구 신도회가 나서서 가톨릭 성지화를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해미읍성 성지화는 광주 천진암에 이은 가톨릭의 또 다른 불교와 우리역사 문화지우기 행위”이며 “이 땅의 전통문화를 점령하려는 만행”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교황 방문을 이유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한다면 다른 유명 종교 지도자들의 방한에는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종교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어사 문제를 다뤄왔던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도 “주어사의 경우 이미 가톨릭이 지역 국유림 5만여평에 대한 40년 사용권한을 따낸 상태”라면서 “주어사를 복원하지 않으면 가톨릭계의 수도원 건립 등 성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가톨릭 성지화를 막기위해서는 지역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차원에서 근현대 사지를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어 발굴해내는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佛頭를 의자로 … 불교계 ‘공분’

대구 H백화점서 판매, 지역 불교계 항의 방문

대불청 “부처님께 참회하라”
백화점 사과 공문 및 공지

대구광역시의 H백화점에서 부처님의 머리를 표현한 불두상을 의자로 판매해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H백화점 대구점의 가정용품 전문 업체 ‘까레’ 매장은 지난 6월부터 알루미늄으로 만든 불두 형상의 의자를 24만원의 가격을 받고 판매했다. 이 제품은 10개가 수입돼 H백화점 본점과 대구점에 각각 1개씩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불교계는 공분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8월 3일 긴급회의를 열고 4일 해당 백화점에 항의방문을 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4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백화점의 제품 철수와 회수,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성명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인류 성인중의 한분으로 모두가 숭상하는 부처님을 상품화 시키는 금번 행위를 묵과한다면 종교적 모독과 편향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사회규범은 무너질 것”이라며 “종교 모독과 편향의 문제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함께 풀어 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 H백화점서 판매한 불두 모양의 의자

이어 “대구 H백화점과 판매업체는 즉각 상품 판매 중지 및 판매된 상품을 회수 조치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며 부처님 앞에 참회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시 전국 불교계 단체와 연대하여 H백화점의 전국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공분에 대구 H백화점은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사과문을 매장 입구에 게재했다. 장경수 H백화점 대구지검 판매기획팀장은 “제품을 제대로 확인 못한 것은 잘못이 크다”며 “대구불교총연합회의 문제 제기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과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 “이주노조 승인하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고용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신청 반려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위는 7월 31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올 6월25일 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반대’ 등의 이주노조 규약이 정치운동금지에 위반된다면서 또다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의 수정을 권고한바 있다”며 “이주노조 규약에 노예법과 같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어 노조사업 목적에 둔 것을 삭제하라는 것은 이주노조의 존립을 부정하라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재적조합원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설립 시 임원의 신분과 조합원의 숫자만 요구하지 조합원 명단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아프리카 학교 건립 ‘눈앞’

탄자니아 농업학교 공정률 50%…
내년 4월 완공 예정

조계종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불사가 순항 중이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8월 4일 “한국 불교 세계화와 자비 실천을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추진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이 절반 이상 진행됐으며 오는 2016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1인 1달러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절망의 땅 아프리카에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교육 시설 건립 계획을 내놓은 지 2년 만이다.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감보니 지역 총면적 10만5785㎡(3만2000평) 부지에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6개 교실을 비롯해 교무실, 행정실, 강당, 기숙사, 농업 실습장, 운동장 등을 조성중이다. 내년 4월 완공되면 8월 개교해 9월부터 정식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2013년 9월 첫 삽을 뜬 농업기술고 건립 사업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조보다 꾸준히 역량을 키우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농업 인재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건립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학교 본관, 행정동 및 도서관의 공사 진행 모습. 현재까지 50%가량이 진행됐으며,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극심한 질병과 기아, 높은 문맹률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에 선진농업기술을 보급 · 교육해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지난 2년 동안 학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부처님 자비의 꽃을 피우고자 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원의밤, 선서화전 등 스님과 신도들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약 36억원의 건립 기금이 모아졌다.

아름다운동행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책걸상을 비롯해 농기계, 도서관 기자재 등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7월부터 한 달 3만원의 돈으로 탄자니아 빈곤 아동과 후원자 간 1대1 결연을 맺어주는 후원 사업을 시작했다. 후원 동참 문의 (02)737-9594

신성민 기자

풍경소리, 지역밀착 명상프로그램 운영

지하철과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온 ‘풍경소리(대표 선묵)’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지원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하반기동안 진행되는 풍경소리 명상프로그램은 이웃과 함께 명상을 나눌 수 있는 ‘마을강사 양성과정’과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심신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마을강사 양성과정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인성명상(자애명상을 기초로 한 마음 꽃밭 교실 안내자 양성)’과 ‘희망연대노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몸맘건강교실 마을강사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성북구 몸맘건강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몸맘건강교실’은 명상프로그램 수강료의 일부를 ‘마을화폐(e-품앗이)’로 책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을활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풍경소리는 지난 2014년 성북구 동소문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함께하는 성북마당’ ‘성북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며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뉴욕서 日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는 8월 4일 뉴욕 주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에 있는 홀로코스트 센터를 찾아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규탄시위는 미국 뉴욕에서 위안부로 끌려가 겪은 피해를 알리고, 위안부비와 소녀상 추가 건립을 위한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강 할머니는 홀로코스트 센터 측에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다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강 할머니는 낫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공원 베테란스 메모리얼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참배하고 “미국에 더 많은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이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할머니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하고 10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을 면담한 뒤 귀국했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라오스 도서관 건립 협약

월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은 봉사단체 상상포럼(회장 김동일)과 지난 7월 31일 라오스 단쌍초등학교 상상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맺었다.



청소년수련회 참가자 모집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은 8월 20일~23일 진행되는 3차 청소년수련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033)339-6606



주한 라오스 대사 방문

덕문 동화사 주지 스님은 8월 7일 동화사를 방문한 캄수아이 깨오다리봉 주한 라오스 대사와 차담을 나눴다.



미얀마 긴급 구호기금 모금

성관 로터스 월드 이사장은 미얀마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기금을 8월 31일까지 모금한다. (02) 725-4277



사회통합 아카데미 진행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8월 24일부터 사회통합아카데미 2편 '불평등한 한국사회 새로운 길을 찾다' 를 진행한다.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8월 9일 조계사 대웅전서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과 함께 마하보디사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지도자 대상 수상

효종 대구 불광사 주지 스님이 8월 1일 한국청소년신문사가 주관하는 제12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대상에서 종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만공선사 一喝은 총칼과 서슬퍼런 권력 뛰어넘어"

광복 70년 특별인터뷰 경허 · 만공선양회장 옹산 스님

1937년 미나미 총독 향해 불호령 '사자후'
일제시대 조선불교계 내선일체 정책 항거
〈총독부 30년사〉, 조선불교진흥 실패 인정
유공자 선정과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재 추진
9월 20일 수덕사서 '만공선사 학술대회'



2011년 완공된 수덕사에 위치한 만공 선사 기념관 내부

1937년 3월 11일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선 전국 불교 31본산(本山) 주지 회의가 열렸다. 회의 의제는 '조선불교 진흥책'. 서슬퍼런 미나미(南次郎) 총독을 비롯해 조선 13도지사, 그리고 31본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미나미는 전국 본산 주지 스님들을 향해 강압적인 어조로 입을 뗐다. "앞으로 조선 불교는 일본 불교와 합병해 더 큰 진흥을 이뤄야 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누구 하나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이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상을 두 손으로 내려치는 사람이 있었다. 마곡사 주지로 회의에 참석한 만공 선사(1871~1946)였다. 스님은 미나미 총독을 한 손으로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일갈(一喝)했다. "청정(淸淨)이 본연(本然)하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나왔는가"라고. 이어 스님의 불호령은 멈추지 않았다. "데라우치 전 총독은 조선 승려들을 파계시킨 죄인이다. 그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지옥도에서 구하고 조선불교를 진흥시키는 일은 조선 승려들이 수행을 통해 견성하는길 밖에 없다. 총독부는 조선 불교를 간섭말고 우리 조선 승려에게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립인 것이다."

만공의 사자후(獅子吼)가 너무 격렬해 총독은 식은땀만 흘리며 다시는 망언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불교 10대 뉴스로 기록될 정도로 파문이 컸다.

이 당시 일제가 받은 충격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발견돼 화제다. 1937년 발행된 〈불교사〉 잡지와 1940년 발간된 〈조선총독부 시정30년사〉에 기록돼 있다. "조선불교 진흥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된 조선불교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일제에 강력히 맞선 만공 선사의 독립 유공자 선정과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허 · 만공 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사진〉은 지난 5월 10일 관련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에 냈다.

옹산 스님은 "총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내건 강렬한 만공 선사의 일할은 조선총독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너 뜨렸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이 투쟁은 무장투쟁 못지않은 중요한 항일운동입니다. 왜 유형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라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것이 만공 스님이 구속이나 복역이라는 형식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옹산 스님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할때는 투옥된 사실이 있거나 확실한 재판문서 등 직접적인 항일운동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문에 명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장의 일선에서 총과 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장과 목숨을 담보로 담판해서 사기를 꺾어 놓았다면 훨씬 더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일제에 저항해 정신적인 근간을 흔든 무형의 항일운동도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재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를 몸소 보여주신 만공 선사는 목숨걸고 우리 한국불교를 지킨 진정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정신적 지도자를 예우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인다. 이어 옹산 스님은 말을 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공 스님은 1941년에는 일본의 식민불교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선학원 고승대회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한국불교의 고수를 위한 투쟁을 일본에 천명한 것입니다.



8.15 해방 소식을 듣고 만공 선사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송이를 말아 쓴 '세계일화(世界一花)' 친필 탁본 편액 앞에서 경허 · 만공 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이 상념에 잠겼다.

스님은 이때 '망(亡)에 망이 없으면 망이 곧 진(眞)이오, 진에 진이 있다면 진이 곧 망이로다' 라는 유명한 게송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옹산 스님은 "만공 스님은 일제에 저항한 불교 단체인 선학원과 조선불교선종의 창건 주역이고, 1941년 유교법회 최고 책임자로 일제 식민지에 저항한 명실공히 한국불교정신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31본산 주지들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분도 바로 만공 선사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옹산 스님은 "만공 선사는 1942년 서산 간월암서 조선 광복을 발원하는 천일기도를 입재했으며, 그 원력이 통했던지 천일기도를 회향한지 3일째 되던 날 해방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이 천일결사는 조선인의 의지와 결속을 도모해주는 원동력이 됐을 것입니다."라며 "만공 선사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 조상들을 일갈하며 꾸짖던 늠름한 모습의 스님 동상을 세우고 싶습니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만공 선사는 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의 제자이다. 만공 선사의 가르침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 청담 스님을 통해 이어졌다. 또한 만공을 수발하던 동자승 진성이 지난 2008년 열반한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이었다. 옹산 스님의 스승이 원담 스님이니 만공 선사와 옹산 스님은 사손관계이다. 한편 수덕사와 경허 · 만공 선양회는 오는 9월 20일 오후 1시 수덕사내 황하정루서 '일제강점기 만공대선사의 위상' 을 주제로 한 '제 7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 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은윤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가 '만공선사의 선지와 가풍' △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만공정신사의 재인식' △이재현 교수가 '만공의 항일 독립운동' △안천 교수가 만공 선사와 의왕(거문고가 수덕사로 오게된 연유)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는 심응섭 순천향대 명예교수와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나선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수덕사 대웅전에서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10주기 다례제가 열린다.

예산 수덕사=김주일 기자

승무의 대가 이매방 명인 별세



'한국춤의 거목' 이매방 명인〈사진〉이 8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이매방 명인은 1927년 전남 목포생으로 1960년대 '3고무 5고무 7고무' 등을 창안해 큰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이매방 선생의 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어 '승무' (제27호) '살풀이춤' (제97호)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명실공히 구한말 이래 변질되지 않은 전통춤의 원형의 맥을 잇는 선구자로서 널리 인정받게 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1987년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1990년 지정)로 우봉전통무용보존회 대표 한국무용협회 · 한국국악협회 고문 용인대 무용학과 대우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한 독실한 불교신자인 한국무용가 부인 김명자(승무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 씨와의 슬하에 딸 이현주 씨를 두고 있다.

국제불교승가회 동암스님 동상 제막



(사)국제불교승가회(회장 최정구)는 7월 28일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야하라마 아난다 테로스님의 사원에서 (사)국제불교 승가회 창시자인 동암스님 동상을 제막했다. 동암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 특히 스리랑카와의 불교교류를 통한 중생제도에 혼신을 다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최정구 승가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라자팍스 前스리랑카 대통령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북인도 성지순례 성료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북인도 다람살라와 라다크 지역서 '군승 해외 성지순례' 를 진행했다. 군종교구 성지 순례단은 교구장 정우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오심 스님, 양산 보현정사 정수 스님을 비롯한 각군 선임군승 13명과 군종교구 종무원 등 19명이 동참했다. 순례 중 둘째날인 22일에는 남걀사원을 방문해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 를 친견했다.

노덕현 기자

직지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봉행



김천 직지사(주지 흥선)는 7월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어린이 여름학교' 를 직지사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지도법사 희봉 스님(직지사 포교국장)은 "일상의 학교, 학원 생활의 스트레스를 자연과 함께 날려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도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韓불교 '자비의 꽃' 캄보디아서 피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8월 2~9일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서 2015파라미타 국제교류협력 '캄보디아 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국제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8월 4일 클링하이스쿨 문화체험활동 중 연꽃뺏지를 만들고 나서 학생들이 환한 미소를 띠고있는 모습.



클링하이스쿨 봉사활동 후 한국의 봉사단과 미얀마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



우물 준공 표지판 앞에 서있는 봉사단 스님들.



의료봉사 단원이 어린아이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2015파라미타국제봉사단, 8월 2~9일 국제봉사활동

캄보디아 씨엠립 시내서 2시간여 차를 타고 도착한 클링하이스쿨, 학교 입구부터 2백여 아이들이 환한 미소로 줄지어 서있었다. 한국에서 도착한 파라미타국제봉사단을 맞기하기 위해서다. 봉사단 한명 한명에게 연꽃다발을 건네는 아이들 얼굴에는 설렘과 수줍음이 가득했다.

'파라미타국제봉사단'(단장 정여, 이하 봉사단)은 8월 2~9일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서 2015파라미타 국제교류협력 '캄보디아 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국제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정여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파라미타 상임이사 법경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일산병원 의료진, 국제포교사회 봉사단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8박 9일간 의료 · 교육환경개선 · 문화체험 · 현지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 첫째날인 2일, 스레이스남 지역의 '바텀석사 클링하이스쿨'에서 펼쳐진 한국문화체험에서는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복을 입은 채로 사진을 찍고 즉석 인화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자 행여 사진이 구겨질까 새로 받은 책가방에 조심히 넘는 모습이 순수해보였다.

'클링하이스쿨'은 오래전부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실과 책상 등이 부족해 아이들은 밖에서 수업 받아야 했다. 교복도 낡고 오래돼 위생 문제도 심각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난 봉사단에게 아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봉사단은 봉사기간 동안 20평 규모의 교실 1채를 직접 지어주었다. 이에 앞서 봉사단은 아이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 기념품은 송묵 스님의 원력으로 세상을향기롭게, 한마음선원 정각사, 동국대일산병원 법당 등 한국의 불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었다. 교복, 책가방, 신발, 자전거, 치약, 칫솔, 과자, 사탕 등 학용품과 생필품부터 아이들 간식거리까지 세세함이 돋보였다.

동국대병원 등에서 20여명 참가
의료 · 문화 · 교육 다방면 지원

선물을 한 꾸러미 받아든 아이들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학교 6학년인 '쏘인'(여 · 12) 학생은 "자전거 선물이 가장 좋다"며 "곧 있으면 입학하는 중학교까지 도보로 1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자전거로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절약된 시간만큼 열심히 공부해 보답할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쎄안(여 · 14) 학생은 "깨끗한 새 교복으로 갈아입고 싶다. 왠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 무료건강검진이 진행됐다. 클링하이스쿨 인근 클링하이마을은 병원이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적인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 대부분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학교가 마을에서 제법 떨어져 있었지만 주민들의 진료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졌다. 김광기 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의료진들은 주어진 봉사시간동안 1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민들은 혈압과 체온 체크 후 증상에 따라 양방과 한방 검진을 함께 받았다.

씨엠립 · 스레이스남 · 푸억 지역
8박9일 순회하며 문화체험 및 봉사

김광기 교수는 "진료를 본 4세 아이가 고열이 1달 넘게 지속됐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 아팠다. 의료환경이 너무 열악해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병인지 조차 모르고 사는 상황이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라도 후속 치료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문제가 큰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봉사단은 4일차인 8월 5일 씨엠립에서 40분거리에 위치한 푸억 지역 르뷔아 마을을 방문해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에 설립한 BWC아동센터(Beautiful World of Cambodia)의 봉사자들도 함께했다. 이 마을서 수차례 자원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BWC아동센터 봉사자들은 봉사단의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르뷔아 마을 봉사에서는 한방치료도 진행됐다. 마을회관 한쪽에 자리한 간이한방치료소는 인산인해였다. 처음 받아보는 침술에 마을주민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친절한 봉사단의 대응에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치료를 진행한 안립 한방내과의는 "일회성 봉사에서 지속적인 봉사가 될 수 있는 한의학 해외봉사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검진에 이어 르뷔아 마을 아이들을 위한 문화 체험 한마당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바게트빵과 우유 등 간식나눔도 진행됐다. 아이들은 봉사단에게 감사인사인 '아꾼'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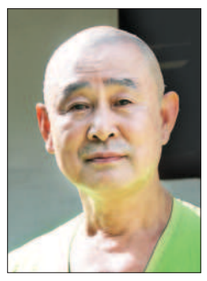
일일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빵을 건네던 법경 스님은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미소를 잃지 않고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중에는 잠시 소나기가 쏟아졌다. 소나기가 지나가고 이내 마을 하늘에는 무지개가 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밝은 마음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지개 같은 희망이 느껴졌다.

씨엠립=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직업학교 건립도 추진할 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처님 사상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눔을 실천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라미타국제봉사단을 이끈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정여 스님〈사진〉은 현장에서 자비나눔을 강조했다. 정여 스님은 봉사활동 중 클링하이스쿨에 전기 및 수도 시설도 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여 스님은 "지난해 봉사활동을 진행한 라오스 학교의 환경보다 이번 클링하이스쿨의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며 "아이들이 아예 밖에서 수업하는 것은 처음 본다. 교실을 비롯해 실질적인 교육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봉사단은 체류기간 중 교실불사를 진행해 8월 4일 20평 규모의 교실을 기공하고 현판식도 진행했다.

교실불사에서 직접 벽돌을 쌓아올리는 등 남다른 애착을 보인 정여 스님은 "아이들이 조금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소망"이라며 "캄보디아 교육 및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직업학교를 건립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여 스님은 스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봉사기간 내내 뙤약볕 아래서 함께 활동한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하는 남방불교 스님들과 달리 한국의 스님들이 대중들과 함께 땀흘리며 봉사하는 모습에 많은 지역민들이 놀라면서도 좋아한다"며 "스님들이 권위를 버리고 대중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여 스님은 "세상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 만큼은 오늘의 이 순수함을 간직하길 바란다"며 "이 아이들이 성장해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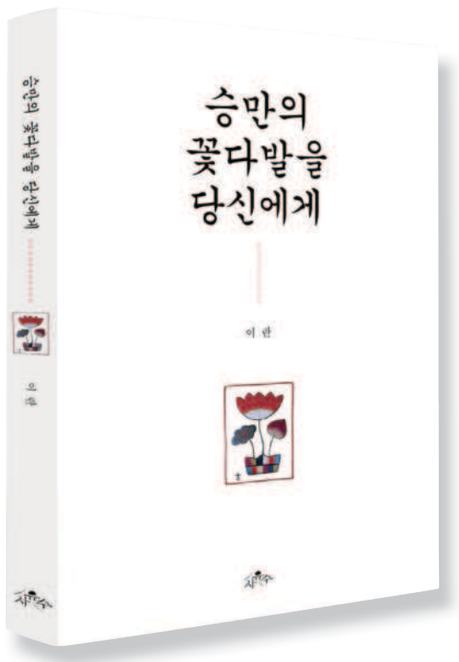
이 시대의 승만보살로, 신사임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란 보살의 수묵화같은 수행기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은행통장은 없어도 공덕통장을 채우고 살면 행복하다
고난은 방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신호
승만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란 부인은 여여원을 설립하여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열어오고 사찰의 불사에도 동참했다. 이 한권의 책 속에는 교계의 향기로운 난초(蘭) 역할을 톡톡히 하며 재가불자의 훌륭한 모델로 존중받는 이란 보살의 열정과 헌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 고영섭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어머니는 우리 가족과 많은 이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주셨다. 어머니의 소리없이 자애로운 교육방식과 철학은 교육자인 나에게 어떠한 이론서보다 귀감이 되는 교과서였다. 어머니처럼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고 싶다.
— 정재성 (서울교대부속 초등학교 교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복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부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남편부처, 아들부처, 이웃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껏 어디를 가든 다녀간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고 살아왔듯 앞으로도 그리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여여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공부하는 벗들의 모임이다. 공부를 하려면 청정한 도량, 훌륭한 스승, 신심 깊은 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정을 법당으로 여기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심깊은 도반들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지속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승만경〉은 경전 중 가장 많이 수지 독송한 경전이다. 승만부인은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재가불자의 본보기로서 많은 여성불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여여회 회원들과 108배와 함께 경을 공부하면서 승만보살의 서원과 실천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는 자칭 살림 전문가다. 살림이 명상이고 예술이었다. 노동으로 생각하면 노동이지만 수행을 통해 본성을 알려고 노력한 시간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남편과 아이들이 진짜 나의 신장님이라 생각한다.
— 본문 가운데서

이란 修德華 지음 | 값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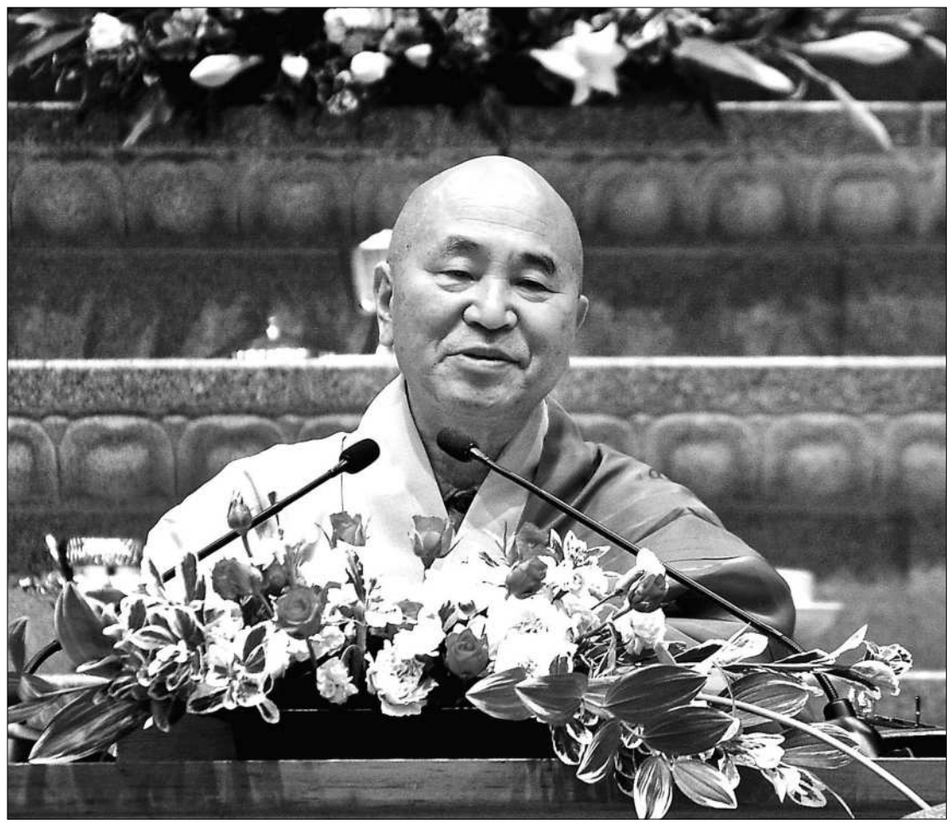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9-4 이가빌딩 104호 대표전화 02-336-8910 사문수

온전한 깨달음 향한 안내자 '반야바라밀'

불광사 일요법회

혜담 스님(불광사 선덕)

혜담 스님은 반야바라밀 염송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 그 자체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그 자체로 온전한 깨달음이며 '아뇩다라삼막삼보리'이다. 진리를 멀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리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스님의 7월 불광사 일요법회 법문을 통해 '반야바라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본다. 정리=정혜숙 기자



혜담 스님은 … 1969년 광덕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해 동국대 승가학과 1기생으로 입학했다. 지리산 칠불암 해인사 퇴설당 등에서 가행정진하다 군승 10기로 임관, 해병대에서 군법사 직을 수행했다. 1986년 일본 유학에 나서 반야심경을 연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92년 〈대품마하반야바라밀다경〉을 번역해 펴냈다. 이후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신행법을 살펴보는 〈반야불교 신행론〉 〈신(新) 반야심경 강의〉 〈방거사 어록 강설〉 등을 펴냈다.

눈 뜨면 모두가 부처

불교를 믿는 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의 믿음이 개인의 해탈이나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이 성취되는 원리로서 믿게 되는데, 나중에는 개인의 해탈에 머물지 않고 일체 중생이 모두가 완벽하다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한동안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구경열반'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갔습니다. 해석을 할 때 모든 반야심경 강의에는 구경열반이라는 것을 '마침내 해탈이다, 열반이다' 하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많은 의심이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마침내'라는 것이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해탈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범부로서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죄악에 묻혀 있고 그런 존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부 열반 자체 즉 해탈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열반이라는 거지요. 본래 죄악에 물들 수도 없이 본래 완벽하고, 한량없는 위신력을 지닌 그런 존재가 '구경열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범부가 아니고 눈을 뜨면 개개인 전부가 열반 상태에 있다, 어떤 존재도 열반 자체를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여의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경열반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바로 자기가 부처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반야바라밀은 일체 불법의 지도원리며 동시에 불법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야바라밀이 바로 불법이고 반야바라밀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에서는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을 보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은 물을 보면 물이구나 생각하지만 물고기들은 '우리 집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사물을 대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단정해버리고 이것이 맞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불법의 지도원리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는 각자의 자세가 다른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는 자신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법사로 있을 당시는 법당이 없고 교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 법사노릇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 월간지를 가끔 봤어요. 거기에 이런 광고가 실려 있었어요. '목사님의 안수와 기도로 정성스럽게 기른 흑염소를 달여 개소주를 만들었으니 성도 여러분은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견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게 되는 것은 정견 올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일체 불법의 지도원리이며 동시에 불법 그 자체인 것이 바로 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야경이 어떤 경이냐, 육백부 반야라고 합니다. 육백 권이나 되는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에 3분의 1이 반야바라밀 법문이라 되어있습니다.

600부나 되는 반야경의 중심사상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일체 불법의 지도원리고 동시에 불법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등 이 다섯 가지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의 안내를 받았을 때만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의 예를 들어보면 이는 보시라는 말과 바라밀의 합성어입니다. 보시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법을 주든 물질을 주든 무엇을 주는 것이 보시인데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보시 그 자체로 끝나서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업보사상은 내가 얻은 것을 보시하면 그것이 내일이든 다음 생이든 아니면 그 다음 생이든 틀림없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회사상, 업보사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돈 백 만원을 누구에게 그냥 줬다고 하면 반드시 공덕이 돼서 내게 오게 되어있는 것이 업보입니다. 이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업보로서 그저 주고받고 그것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업보의 논리를 벗어나서 이것이 반야바라밀로 보시의 완성이 되게 하려면 삼륜청정이 돼야 합니다.

삼륜청정은 물건을 주었을 때 물건을 주는 자신이 있고 물건을 받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나도 없고 받는 너도 없고 그 주고받는 물건 자체도 원래 공이라는 것이 삼륜청정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시의 완성이라 합니다. 보시의 완성은 반야바라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보시는 바라밀이 되지 못하고 보시 자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과 계를 지키는 완성이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는 완성이 아닙니다. 계가 완성 되려면 계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야 합니다.

> **일체 불법의 지도원리 이자 그 자체**
> **반야바라밀 목적 있으면 순수하지 않아**
> **一念으로 염송하면 우리 삶 밝고 행복**
> **육바라밀 중 나머지 다섯 가이드 역할**

즉 계 자체만 돼 있으면 계를 어기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 자체의 본래 면목, 근본자리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를 파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자체가 바로 사람 사는 그 자체라고 하는 맥락에서 논해졌을 때 비로소 지계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계바라밀 자체가 무엇이냐면 공의 위치, 계를 지키는 것도 본래 없는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도들 가운데서 육식을 하면 죄가 되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식을 하는 사자와 호랑이는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동물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를 범하려 해도 범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지계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육식하는 동물들을 나쁜 놈이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원리에 입각했을 때 비로소 지계도 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참는 것이 인욕인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욕수행을 하면서도 인욕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의 인도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인욕을 한다고 하면서 인욕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저절로 인욕이 되는 것입니다.

정진한다는 마음 자체도 버려야

요즘 사람들은 보통 정진을 노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큰 정진입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상사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자체는 바라밀이 아닙니다. 정진바라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내 삶 자체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생사를 벗어나겠다. 해탈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정진바라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정진을 하지만 정진 자체도 없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며 정진하면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정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삶 그 자체는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즐거움을 못 느낄까요. 삶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얻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이 도리를 알았을 때 내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하게 있는 것이 선정인데, 그 선정도 바라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정을 닦는다는 생각이 없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참선을 한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말을 안 듣는다, 오직 참선만 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함이 있는 선정입니다. 함이 없는 선정이 돼야 선정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인도를 받았을 때 모든 불법은 불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업을 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업을 벗어나는 것이며 해탈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일체 불법의 인도자,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염송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진리를 염송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염송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 그 자체에 도달하기 위해 염송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그 자체로 온전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바로 '아뇩다라삼막삼보리'입니다. 진리를 멀리서 구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진리 자체, 내 생명 자체가 진리 자체인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야바라밀이 다른 어떤 목적 목표점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입니다. 반야바라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라 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일부를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수행의 근본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여의지 않고 염송했을 때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생각을 여의지 말고 항상 반야바라밀을 염송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9월 8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천도재. 49재 의식 등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2015년 동산불교대학 47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www.dongsanbud.net

■ 모집학과
▶ 불교학과 [9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CD 배송]

과목 : 1. 화엄경 2. 아미타경과 정토 3. 대승불교와 밀교 4. 초기불교개론 5. 불교문화(미술)와 포교 6. 선불교 7. 근본불교 8. 반야심경과 반야사상 9. 유식불교 10. 인도불교 11. 중국 · 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 법산스님(본대학장), 정엄스님, 김형준교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 선 · 명상학과(람림명상) [9월 17일(목)] ▶ 다도학과 [9월 8일(화)]
▶ 불교미술학과 [9월 10일(목)] ▶ 불교한글의식반 범패의식반 [9월 5일(토)]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8월 1일부터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사무처 문의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처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일어난 감정도 근본에 놓으면 조절 가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2015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개최

청소년 스스로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8월 3일~5일 청소년을 위한 ‘2015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공생을 의미하는 ‘너, 나 하나라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조계종 포교원서 인증한 심성계발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했으며, 부산 영도 동삼 중학교 소외계층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지도를 맡은 혜벽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나무에 연결된 잎이며 꽃이다. 아무리 싱싱한 잎사귀나 꽃도 뿌리가 상하면 시들고 만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는 혼자만 행복할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법과 특강 등은 지양하고 바다 체험, 숲속 캠핑, 물놀이, TV 드라마 및 영화 상영 등 청소년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기획됐다. 이와 함께 그 안에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메시지와 법문을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아 능동적 참여를 도왔다.

특히 현실적인 체험 속에서 참가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 스스로 지혜의 답을 찾도록 이끌었다. 태종대 바닷가에서 진행된 ‘와 바다다!’ 도 이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참가자들은 투명 컵에 바닷물을 담고 기쁨, 슬픔, 까칠, 버럭, 소심이라는 감정을 표현한 오색 색소를 건네받는다. 여기서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감정의 색을 선택하고 두 가지 색을 섞어 색깔이 어둡고 지저분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오감체험프로그램인 ‘컴백홈’.

부산 영도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공생’ 주제 긍정적 사고관 심어줘
오감체험 프로그램 ‘컴백홈’ 호응

바닷물에 붓는다. 이후 깨끗해진 바닷물을 다시 투명 컵에 담아 느낀 점을 나눈다.

혜벽 스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도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근본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일어난 감정을 다시 근본에 돌려놓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알도록 했다. 참가자들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오감 체험 프로그램 ‘컴백홈’ 또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혜벽 스님은 “눈을 가리고 음료수를 마신 후 오감을 체험하는 코스로 오감에 속고 사는 것을 알아 자신의 근본 마음을 의지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라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감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감각이 주는 판단에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촛불재 형식의 ‘마음 등불’ 프로그램 모습. 힘든 마음을 재료 삼아 만든 초가 주위를 밝히는 과정을 시각적 이미지로 확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컴백홈’ 을 체험한 이수현(동산중3) 학생은 “나 자신이 가장 많이 속는 감각이 시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친구를 볼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거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나의 초를 밝혀라’ 는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후 촛불재 형식의 ‘마음등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는 힘든 마음을 재료 삼아 만든 초가 주위를 밝히는 과정을 시각적 이미지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밖에도 △슈퍼파워 컬렉션 △나의 향기를 찾아서 △체인지 업 △우리는 명콤비 △보물상자를 열어라 △열패똘,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쳐라 △숲속 캠핑 △하나로 퍼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박채은(동산중2)학생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일정을 소화했는데 금새 밤이 된 것을 알고서야 시간 가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았다. 선생님들과 스님들께서 편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행복했다”며 참가 소감을 피력했다.

오현주(동산중3) 학생도 “처음으로 사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 해봤는데 불교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 시설도 너무나 깨끗하고 공양도 맛있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하나하나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마음등불 프로그램의 청소년 인증제를 준비 중이다. 혜벽 스님은 “인증을 받으면 더 많은 학교나 단체에서 참석 할 것으로 보여 일반 청소년들의 참석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께서 청소년 포교 의지가 확고하시니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 된다”며 계획을 전했다. **부산=하성미 기자**

정읍 내장사 대웅전 복원불사 완료

약 150㎡ 규모… 총 25억원 예산 투입

지난 2012년 화재로 소실된 정읍 내장사(주지 혜산) 대웅전이 지난 7월 31일 복원공사를 완료했다. 대웅전 복원불사는 총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4년 7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복원불사로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약 150㎡ 규모에 팔작지붕 형태로 자리하게 됐다.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은 “대웅보전이 복원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읍시 등 관계기관과 불자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장사 대웅전 복원을 계기로 천년고찰인 내장사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과 약사여래, 아미타불의 삼존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봉안할 계획이나 약사여래불과 아미타불은 아직 모시지 못했고 현재는 후불탱화를 조성중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웅보전에 불보살을 모두 봉안한 후에 성대한 봉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라며 “목재가 모두 건조되는 2~3년 후 단청공사까지 마무리 한 후 최종 낙성식을 봉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찰인 내장사 대웅전이 소실돼 무척 안타까웠다. 웅장한 모습으로 복원돼 매우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내장사는 물론 단풍관광 명소이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유일하게 지켜낸 역사기록의 성지인 내장산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실록과 사고, 조선태조어진(국보317호)을 피난시켜 보관한 내장산의 용굴암, 은적암, 비래암터 등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를 전북북도 기념물 130호로 지정했다.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는 내장사 희묵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정읍 유생 안의, 손홍록 등이 왜구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피난시켜 보호한 장소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내장사 대웅전 복원불사 완료 모습. 정면 5칸 측면 3칸의 약 150㎡ 규모에 팔작지붕 형태.

제천시청에 소장유물 611점 기증

김연호 제천 우리는선우 대표



시골마을을 왕진하며 틈틈이 수집한 소장유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불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충북 제천의 ‘우리는선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연호 진주동물병원 원장〈사진〉은 7월 30일 제천시청에서 소장유물 297건 611점을 기증했다. 김 원장의 유물은 충북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한다.

김 원장이 기증한 유물은 고서적과 민속품 등으로 민속품점에서 산 것 외에도 집안에서 물려받은 물건과 청풍으로 왕진을 다니며 수해지역 주민으로부터 직접 사재를 들여 사들인 물건들이다.

1977년부터 진주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은 제천지역 농가를 방문해 향토유물을 접했고, 문화재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1980년대 지역에서 반출되는 향토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해 이를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런 공로로 국민훈장과 충북도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미 국립청주박물관에 2차례에 걸쳐 600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했고 월정사 성보 박물관에도 불교문화재 5점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고문서와 청자, 토기, 화폐 등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로 이뤄져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불교 유물 수집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번 기증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기증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론 집중 강의 수련회 개최

안동 보경사, 8월 22일~ 23일

경전 중심 불교 공부 도량을 선언한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가 8월 22일~23일 경전 집중 강의 수련회를 연다. ‘중론’ 을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이번 강의의 모집인원은 15명이다.

오경 주지 스님은 “지난해 겨울에 이어 중론을 집중 강의하는 이유는 불교의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경전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다른 곳에서는 잘 교재로 채택하지 않는 경전이라 경전 집중 강좌 수련회를 통해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054)842-4080

하성미 기자

경주 ‘실크로드 축제’ 로 유라시아 품다

21일부터 40개국 1만여명 참여
석굴암 가상 체험관도 주목

경주가 신(新)문화실크로드의 출발점임을 확인하는 ‘실크로드경주2015’ 가 8월 21일~10월18일 경주엑스포공원과 경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40여개국 1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이 행사에는 ‘문명의 만남’ 을 비롯해 ‘황금의 나라 신라’ , ‘어울림 마당’ , 각종 연계행사 등 4개 분야 3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주시는 “고대의 실크로드가 낙타와 말, 배 등을 이용한 고전적 길이었다면, 철도와 컨테이너를 통한 산업사회의 교역을 뛰어넘어 이제는 IT를 통한 정보와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실크로드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라며 취지를 전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실크로드 그랜드바자르’ 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바닷길 국가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러시아 등 사막길과 초원길 국가 등 19개국이 참가한다. 이들 국가들은 부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전통공연과 인형극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 은 문화와 첨단 ICT 기술이 만나 석굴암을 가상체험할 수 있다. 경주시는 “HMD(Head Mounted Display · 머리 덮개형 디스플레이)와 모션 센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석굴사원인 ‘석굴암’ 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석굴암 안을 걸으며 석굴암 본존불상뿐 아니라 석굴암의 부분적 의미까지 알 수 있어 교육적 효과도 뛰어나다. 유리창 밖에서만 보던 본존불을 손을 뻗으면 당장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054)740-3061 **정혜숙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님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선농불교 정신 이어 불교경제 일으켜야”

> “재산을 소비하지 말고 공장이나 농촌을 건설해 불교 신자들을 도우면 자연히 불교가 흥할 것이니…”
>
> 1932년 〈불교〉 中



마성 스님, 〈대각사상〉 논문서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 재조명

억불숭유의 조선대를 거친 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사찰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이 당시 조선불교를 되살리는 길은 오직 납자들이 자급자족하며 수행하는 길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 선농불교를 통해 불교 자립을 꿈꾼 이가 있었다. 바로 용성 스님이다.

마성 스님은 최근 〈대각사상〉 23집에서 ‘백용성의 선농불교에 대한 재조명’ 논문을 통해 용성 스님이 선농불교를 경제영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마성 스님에 따르면 당시 불교계의 화두는 생존을 위한 자급자족이었다. 마성 스님은 “김만웅은 〈불교〉 제60호지에 기고한 ‘불교청년들이 농공업에서 부처를 찾아라’는 글에서 승려도 농공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석운애와 백학명도 선농불교 전통을 살리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은 이런 선농불교와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의 차이점을 사찰경제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 까지 생계터전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간 데서 찾았다.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는 대각교와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선농불교는 대각교 출범과 동시에 실천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예로 대각교 설립 이전인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용성 스님이 함경남도 북청에서 금광사업을 진행한 것을 들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포교자금 마련을 위해 금광사업에 뛰어들었다. 3년만에 사업경험 부족으로 실패하지만 이는 스님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그

용성 스님의 농공업 사업 연구
“현대사회서도 자급책 마련해야”
저리대부업 · 농산품 판매 등 제시

런 의미에서 대각교 출범과 동시에 화과원을 설립하고 용정에 대각교 지부를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이 승려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 계율에 위배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앞서 백학명 스님의 경우도 선농불교를 강조하며 그 위치를 선원에 한정한 것도 이러한 계율로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은 불교계 공장과 농장에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제하고, 또 불교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런 사상은 당시로서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마성 스님은 이어 “간도 용정에 세워진 대각교회는 사찰 뿐만 아니라 선농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동포들의 생활터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독립운동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선농불교의 영역을 확장한 용성 스님과 같이 오늘날 불교계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성 스님은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존하는 경제행위라면 모두 선농불교에 해당한다”며 “시골 사찰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거나 된장 · 간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불교계의 자급자족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부파불교시대 사찰에서 저금리 대부를 실시하고 고려시대에도 불교계는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 신도회비 등을 모아 저금리로 대부해 이자를 거둬 불우이웃 돕기나 장학금 지급, 승려의 노후복지금 활용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지문화재 훼손 심각… 보존 대책 시급

불교문화재硏, 사지 문화재 손상 현황 자료집 펴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7월 30일 문화재청과 진행한 ‘사지(寺址, 절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절터에 있는 불교 문화재를 정리한 ‘사지 소재 문화재의 보존 · 활용을 위한 손상 현황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세종 2개소, 대전 2개소, 충남 12개소, 충북 14개소의 사지에 있는 손상이 진행 중인 문화재, 도난 우려가 있는 문화재, 부적합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문화재별로 소재지와 좌표, 면적, 지정 여부, 소유자, 규제 정보,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사지 소재 문화재는 대부분이 보호받지 못해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문화재자료인 논산 수락리사지 마애불은 신체 윤곽을 따라 이끼가 자랐으며, 당진 채운동사지 석탑과 석등 석재를 비롯해 음성 중동리사지 석탑 기단석과 옥개석 등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가 진행된 태안 몽산리사지 석가여래좌상 등도 얼굴과 무릎 부분이 시멘트로 덮여 있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자료집에는 충청권 사지 소재 문화재의 보존 관리 현황 보고서도 부록으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충청권에 있는 사지 소재 문화재 중 1천300여점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고, 200여점이 망실됐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사지 소재 문화재는 대부분 비지정 문화재여서 학술적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며 “손상과 보존 상태에 따른 등급 분류를 실시해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 사회통합’ 불자교수 논의

교불련, 8월 17~18일 서울 진관사서 교수불자대회

조계종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8월 17~18일 서울 진관사에서 ‘불교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석구 前 사회통합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불교와 사회관계’ ‘사회갈등과 불교’ ‘삶, 화쟁, 그리고 불교사회’ 등 3개 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교수불자대회에서는 ‘대학교 불교동아리 활성화 방안’과 미래한국사회에서의 불교역할을 주제로 2개의 특별회의가 진행된다. 각각 정태권 교수와 황진수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시민사회로 들어선 오늘날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상당 부분 진전되었으나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화합은 불교교단에서 가장 중시하는 조직 원리이자 실천덕목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불교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삼았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가치 살펴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23집서 다뤄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는 〈정토학연구〉 제23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를 특집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이 편성됐다.

△이성운 동국대 겸임교수의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성청환 동국대 연구교수의 ‘조계사 생전예수재의 역사와 의의’ 등 논문이 실렸다.

기고 논문으로는 △윤소희 박사의 ‘범패의 위격과 율조 변화’ △서길수 전 서경대 교수의 ‘관정의 정토선 수행법에 관한 연구’ △심상현 동방문화대 교수의 ‘영산재의 효율적 전승과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에 관한 연구’ △김성옥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공명조(共命鳥)에 대한 관념의 기원과 변천’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韓 고려대장경硏
日 동경대 대장경硏 협약

고려·신수대장경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

불교 연구의 저본인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을 보다 쉽게 연구 ·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범)와 日동경대 대장경텍스트데이터베이스연구회(대표 마사히로 시모다, 동경대 교수)는 8월 3일 서울 인사동 판화방사랑방에서 ‘대장경 DB의 연구와 활용을 위한 한 · 일 연구기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의 협약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보유한 ‘재조 팔만대장경’ DB와 대장경텍스트베이스연구회의 ‘다이쇼신수대장경’ DB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개발된 양기관의 전산화 시스템에 포함시키며 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대조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대장경 이미지 파일도 두 시스템에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영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등의 협력관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는 이번 양 기관의 협약으로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장경 기반지식 제공서비스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2016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교환 및 호환성 협의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진행되며, 2017년 웹서비스 방식결정 및 중간보고, 2018년 까지 웹서비스 체계 확정 및 최종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대장경학회 설립도 추진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경우 현재 고려 재조 팔만대장경 81,258판과 고려 초조대장경 49,472판, 중국 돈황문헌 5종, 화엄석경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고려 교장문헌(속장경) 조사 및 이미지촬영이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 이미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과 연계해 대장경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사장 종림 스님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장경 전산화가 활용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밝혔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연구소의 지난 20년은 대장경을 전산화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1기였다. 오늘 협약 이후 각국, 각 기관의 자료를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2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검색의 시대’에 대장경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히로 시모다 동경대 교수도 “불교가 학문으로 자리잡고 서구사회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근현대 학자들의 불교학연구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계의 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하는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해 미래불교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현재 고려대장경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웹으로 공개하는 것은 연구소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10%에 불과하다”며 “일본측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연구소가 가진 DB를 활용하여, 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을 비롯해 불교문화사업단 진화 스님,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동경대 측이 개발한 신수대장경 검색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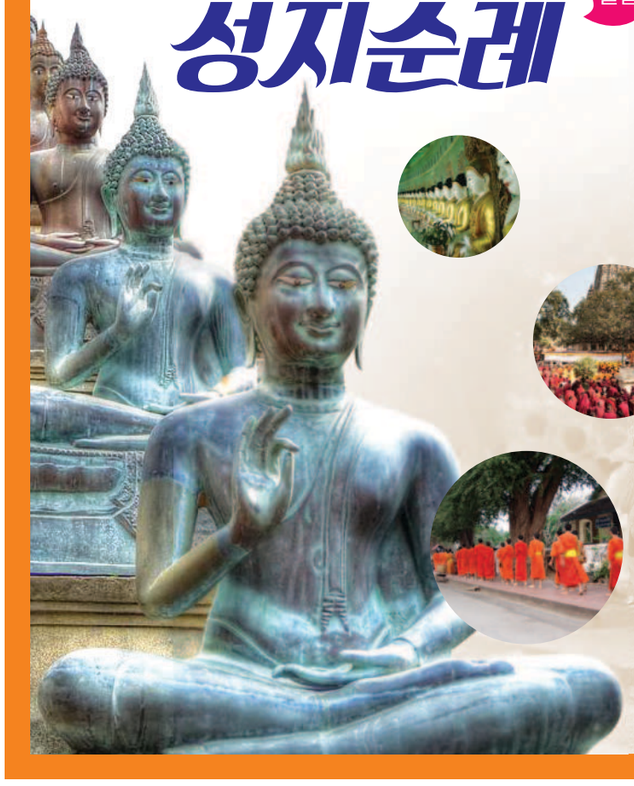


종림 스님과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 11월22일 요금문의
부탄/네팔 8일 출발일 : 12월1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 12월1일 요금문의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20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 9월5일,10월17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2박(껄로/삔띠야동굴) 7일 출발일 : 11월14일,12월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출발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石에 美學 새기다… 깨달음 과정 투영

박주부 작가 '숲의 노래' 전
11월 30일까지 부산 홍법사서

목어 법륜 금강경 등 불교적 정서를 조각 작품에 투영시킨 특별한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조각가 박주부(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장)가 부산 홍법사 야외 잔디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고 11월 30일까지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불자 조각가로 보령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작가는 깨달음에 대한 이미지를 조각으로 형상화해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들을 선보여 주목된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박주부 특유의 기법으로 숲과 화두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 등을 작품 속에 투영시킨 것이다.

"집안에 형님이 출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많이 읽다 보니 불교적 소재가 영감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특히, 선지식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교적 화두를 이미지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불교를 통해 진리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숲의 노래'와 '깨달음의 노래'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숲의 노래'는 목어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목어는 숲 위에도 있고 산 위에도 존재하며 항상 깨어 있음을 상징한다고.

"불교에서 목어는 구도자를 상징하죠.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르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길을 냈는데 이를 통해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부처님도 숲에서 수행을 하셨으니 숲은 안식처이자 수행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목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작품을 바라보는 대상일 수도 있죠. 여기에 경전을 새겨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숲의 노래',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구도자를 목어로 표현했다.

목어 법륜 등 불교적 소재
현대 조각 작품으로 승화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수행자의 구도행 그려내



'깨달음의 노래'는 목 없는 불상을 현대 조각으로 승화시켰다.

'깨달음의 노래'에서는 불상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작품이 눈에 띈다. 이는 경주박물관에 전시된 목 없는 불상에서 착안해 현대 조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기둥에 반야심경을 새기고 그 안에는 풍경을 걸어 놓아 관람객들이 소리로도 경을 듣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 틈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는 깨달은 수행자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 위로 올려진 불두는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당신의 깨달음을 나누었듯이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불자들이 그런 부처님의 삶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맷돌의 형상을 딴 '법륜'도 인상적이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은 윤회를 상징하죠. 그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는 구도자인데 고개를 내밀고 있으니 바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직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 중간에는 6개의 유두를 새겼는데 보령의 성주사지 탑비(보물 20호)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이는 열쇠가 아닌 열쇠를 의미하는데 화두의 틀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행자인 물고기가 이 문을 열고 화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를 현대화된 조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작가는 12월에는 뉴욕전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박 작가는 불교 미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등 이웃종교는 종교 미술이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 미술은 전통을 고수하다 보니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발전이 더디죠. 앞으로 불교계가 많은 불자 작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010-5429-007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여름철 장건강 사찰음식으로 지키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마죽 등 여름 메뉴 엄선

'약식동원'(藥食同源)은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동일하다'라는 뜻이다. 불교경전에서는 모든 음식을 약(藥)으로 칭하며,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자연적인 발효과정을 거쳐 만드는 사찰음식은 약리작용이 뛰어나다. 특히 한여름은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므로 비위와 대장에 병이 나기 쉬운 계절이다. 그렇다면 산사에서 권하는 여름철 사찰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여름철 약해지기 쉬운 장(腸) 건강을 지키는 사찰음식 메뉴를 엄선했다.

먼저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풍부한 마를 이용한 마죽을 들 수 있다. 마는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원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어 한방에서도 자주 섭취할 것을 권한다. 마와 다싯물, 소금만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리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예로부터 뿌리를 솥에 쪄서 잣가루와 깨로 고명을 얹은 마떡은 사찰의 건강 수행식이라고 한다.

삼삼한 마죽에 곁들여 먹으면 좋은 박속된장무침도 여름철 건강식이다. 박을 고를 때는 손톱으로 눌러 쏙 들어가는 부드러운 박을 사는 것이 좋다. 박은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부기를 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된장, 참기름, 참깨가루, 다진 고추를 넣어 뚝배기에 끓여내고, 된장이 식었을 때 박속을 넣고 살살 무치면 된다.

마지막으로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우는 매실장아찌가 있다. 껍질이 연한 녹색이고 과육이 단단한 청매를 이용하여 장아찌를 만든다.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이 함유된 매실은 피로 회복에 좋으며, 매실차는 살균·해독 작용이 뛰어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 여름철에 특히 좋은 음료다.



마죽. 마는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원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 밖에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제철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산사의 조리법은 사찰음식 공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혜숙 기자

만해 스님 생애와 작품 세계 조명

한국문인협회, 제1회 한국문학인대축전 개최
탄신 136주년 기념 강연과 포럼 등

광복 70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애국애족정신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제1회 한국문학인대축전'이 열린다.

'민족시인 한용운의 생애와 작품세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주최로 8월 29일~30일 서울 성북구 심우장 중심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선진규 한국문인협회 재정협력위원회 위원장(한국불교문인협회장)은 "8월 14일 문협의 재정협력 긴급회의를 갖고 스님 탄신 136주년을 맞아 8월 29일과 그 이튿날인 30일까지 한국문학인대축전의 날로 정해 각종 문화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문인들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거처였던 서울 성북구 심우장을 중심으로 그 일원에서 한바탕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주요행사로는 △문인시대선언 △문학포럼 및 강연 △만해시 낭송 △역대 전국 만해백일장 장원 입상자 작품 낭송회(대한불교청년회 주관) △노인대학 백일장 등이 개최된다.

선 위원장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시대정신을 계승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평소 열반일인 6월 29일 추모 행사가 이어져왔는데 탄신일을 맞아 여는 첫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만해시 낭송, 노인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탄신일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02)744-8046

정혜숙 기자



한국문인협회는 만해 스님 탄신 136주년을 맞아 서울 성북구 심우장 일대에서 8월 29~30일 한국문학인대축전을 펼친다. 사진은 8월 14일 한국문인협회 긴급재정위원회 회의 후 임원진 기념촬영.

'의성의 불교문화' 展 9월 20일까지

조문국박물관, 초조본 〈불설가섭부불열반경〉 등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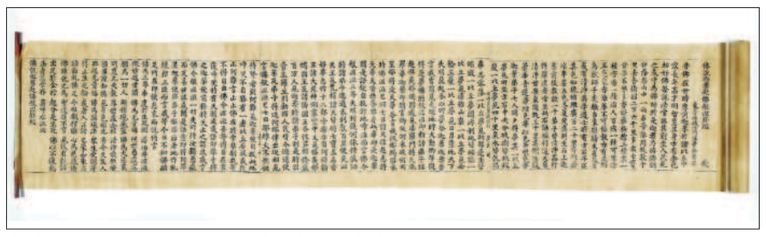
전국 각지에 흩어진 경북 의성의 불교문화재가 한 자리에 모였다. 2015년 '의성의 불교문화' 특별기획전이 9월 20일까지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빙산사지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와 운람사·지장사 복장유물 그리고 의성의 8개 전통사찰에서 보관 중인 의성의 불교문화재 총 95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11세기에 제작된 운람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현존 유일의 초조본 〈불설가섭부불열반경〉(初雕本 佛說迦葉赴佛般涅槃經, 보물 제1646호)이 의성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되어 주목된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대 의성의 독자적이고 화려한 문화의 전통이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의성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054)830-6906

정혜숙 기자



운람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현존 유일의 초조본 〈불설가섭부불열반〉



‘주체적 인간’, 붓다가 보인 新 인간상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3. 붓다와 보살(普薩) ㊤

새로운 이상적인 인간상의 등장

근본불교의 자기 비판 가운데서 대승불교에의 길을 찾으려는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지금 대승불교가 새롭게 표방하고 있는 보살의 이상(理想)도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

보살의 이상은 잘 알려져 있듯이 예부터 자각(自覺)과 각타(覺他)로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상구보리(上求普提) (위로 깨달음을 구한다) 하화중생(下化衆生)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이라고 표현 할 때도 그 내용은 전혀 같다. 즉 자기의 깨달음과 함께 남의 깨달음도 실현한 자, 자기의 구제에 관심을 갖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구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 양면이 상반(相反)되는 가운데 보살의 길이 있다. 오히려 자각(自覺)보다고 각타(覺他)에, 상구리보다도 하화중생에 그 관심을 집중하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 보살이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살의 이상을 새롭게 불교 속에 가져온 흐름이 대승불교이다.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상을 새로이 표방한 점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자주 보살승(普薩乘)이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면 대체로 대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러한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온 것일까.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새로운 관념을 감히 불교 속에 내세웠을까.

이러한 것을 찾아서 올라가면 또 당연히 근본불교가 내포(內包)하고 있었던 역사적 제한(制限)에 생각이 닿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역사적 제한이 그 후에 불교인 자신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비판되었을 때 그곳에서 새롭게 취해진 것이 보살의 이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근본불교는 이러한 이상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될 어떠한 역사적 제한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었을까.

인격 독립의 요청 밑에서

그 점에 관해서는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법구경(法句經)〉의 ‘자기품(自己品)’ 이라는 제목의 한 구절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의처(依處)는 자기뿐이다.
자기 외에 어떠한 의처(依處)가 있겠는가.
자기가 능히 조어(調御) 되었을 때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처(依處)를 얻는 것이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더러워지며,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하도다.
사람은 각자 스스로 정(淨)하기도 하며 부정(不淨)하기도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는 할 수 없다.
비록 어떠한 큰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리라.
사람은 능히 자기의 의무를 알며
언제나 자기의 의무에 전심(專心)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러한 구절은 근본불교가 얼마나 개개의 인격(人格)의 독립을 강조한 종교이냐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는 본래 인간형성의 가르침이다. 범부(凡夫)인 인간이 차츰 자기를 형성하면서 마침내 붓다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현에까지 다달으려고 한다. 그것이 불교의 전도정(全道程)이다.

그런데 붓다는 이러한 길을 닦아 가는데 있어 그 모든 책임을 자기 한 사람의 노력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신(神)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祈禱)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기적(奇蹟)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이성(理性)만을 연마하여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보며 거기에 자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이런 것을 여기서 제시한 한 구절은 “자기의 의처는 다만 자기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한 구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또 생각해보면 붓다가 그 입멸(入滅)에 앞서 아난다를 위해서 설법하였다는 소위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 의 가르침도 역시 이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그대는 여기에 스스로를 주(州)로 하며 스스로를 의소(依所)로 하지 않으며 법을 주(州)로 하며 법을 의소(依所)로 하여 다른 사람을 의소(依所)로 하여 다른 사람을 의소(依所)로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좋으리라.”

붓다의 가르침은 틀림없이 이러한 길의 가르침이었다. 그 길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개인주의(個人主義)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라고 하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란 것은 반드시 일괄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라고만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천안 각원사의 대불. 불교는 본래 인간형성의 가르침이다. 범부가 자기를 형성하면서 마침내 붓다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현을 이루는 것이 불교이다.

이러한 인격적 주체를 확립하는 일 없이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 우왕좌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군중을 떠나서 사회의 바깥에 서서 혼자서 조용하게 자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귀추(歸趨)를 생각한다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또한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또 붓다의 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인격적 주체라는 것의 관념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한다.

사상(思想)의 역사가 증언(證言)하는 바에 따르면 개인의 사상이란 것이 비로소 나타난 것은 이 시대의 일이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다만 전승(傳承)이 있었으며 관습(慣習)이 있었으며 신화(神話)가 있었다. 개인은 이러한 압도적(壓到的)인 힘 밑에 있으면서 다만 전승을 이어 받으며, 관습대로 살며 신화 그대로 생각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전승의 밖에 서서 생각하며 관습의 밖에서 행동하며 신화를 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개개인의 인격(人格)이 나타난 것이다.

쟈이나교(敎)의 교조(敎祖)인 지나(Jina)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소위 순세외도(順世外道)의 아지타(Ajita)도 그런 가운데 하나였다. 소위 순세외도(順世外道)의 아지타(Ajita)도 그런 사람이었다. 불가지론(不可知論)을 설명한 산쟈야(Sanjaya)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붓다는 이러한 개개인 인격의 가장 큰 존재이며 불교는 이러한 개개의 인격에 흐르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붓다의 가르침이 ‘주체적 인격의 확립을 매우 강조하였다’ 란 점은 정말로 당연하며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맹물 술잔치

중국의 고전(古典)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야겠다. 하루는 임금님이 그의 대신각료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후 궁궐 어전에서 저녁 잔치를 벌일 생각이다. 다만 참석자는 대신각료들로 국한해 조촐한 모임이 될 것이다. 대신들은 각자 집에서 아끼는 술이 있거든 한 병씩만 가져오도록 하라. 커다란 항아리를 준비해 둘 터이니, 그 술독 항아리 안에 준비해 온 한 병의 술을 부어 모두가 나누어 마시도록 하자. 다만 두 병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아끼는 명주(名酒) 한 병씩만 가져와 술독 항아리에 부으면 된다.”

하여 사흘이 지난 날 저녁에 대신들은 너나없이 술 한 병을 들고 와 어전에 마련된 술독 항아리에 어김없이 부어 넣었다. 대신 각료들의 준비해 온 술 붓는 작업이 이내 끝이 났다. 임금님은 대신들에게 술잔을 골고루 나누어 준 후, 술항아리에서 한 잔씩 떠서 요즘처럼 부라보를 외쳤던 모양이다.

그런데 명주(名酒)로 어우러진 짙은 술 향내가 나야할 술잔은 맹물 맛 그대로였다. 술이 아닌 맹물이었던 것이다. 임금님의 명령이요, 임금님과 함께하는 만찬 자리였다. 대신들이 가져온 술들은 모두 가보(家寶)급의 명주들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신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이 맹물을 명주 병에 담아 간다고 해도, 어차피 큰 항아리 속에서 희석될 것이니 절대 들통 날 리 없겠지.’

맹물을 들이킨 임금님도 놀랐지만, 맹물을 명주랍시고 위장해 온 대신들도 모두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자, 이쯤해서 고전에서 현실로 돌아와 보자. 색깔과 무게는 다를지 모르지만 맹물 대신들은 수두룩할 터이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 그 조직을 좀먹고 기울게 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원인이 더욱 많은 법이다. 칭찬에도 거짓과 진실이 있고, 바른말에도 자리(自利)와 이타(利他)가 있는 법이다.

희생과 봉사에도 이름 석 자가 따라다닐 수 있고, 종교의 신앙에도 엷음과 두터움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다. 내 주변을 살피기 전에 나는 맹물 쪽인지, 아니면 명주(名酒)쪽인지 한 번쯤 되돌아 볼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행복타령

미운 사람은 어디에든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웃 모임에서 단체 생활, 직장과 모임에서도. 가족 사이에도 가까움과 멀어짐이 있게 마련이요, 친인척 간에도 반가운 사람과 별로인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십상이다. 미운 사람 한 명쯤은 언제나 생명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어디 그뿐인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빛과 어둠처럼 번갈아가며 찾아든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팔고(人生八苦)’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괴롭다(怨憎會苦)고 했을까? 그렇다면 괴로움의 반대, 미움의 반대는 즐거움이요, 반가움이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덜 미워하며 즐겁게, 반갑게, 그런 도반(반려자)들의 만남이 줄지어 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지만 꿈과 현실은 어둠과 빛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지기 마련이다. 고단하고 팍팍하게 삶의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어설픈 삶을 까불어 봐도 쭉정이만을 만나야하는 절망감, 둘레를 휘저어 봐도 손가락에 감겨오는 것은 냉랭하고 차가운 어둠줄기 뿐. 하여 그들을 위해 오감(五感)을 만족시키는 행복타령을 늘어놓을까 한다.

조직을 좀먹는 것은 내부 요인 많아
세상은 바야흐로 노력한 자의 몫

행복은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행복은 누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두 손바닥을 활짝 펼쳐보자. 열 개의 손가락이 달아나지 않고 온전한지. 그리고 손뼉을 크게 쳐 보자. 그러고는 손가락을 하나에서 열까지 세어 보도록 하자. 하나에서 열을 셀 수 있다면 당신의 시력엔, 당신의 손가락엔 이상이 없는 거다. 손뼉을 쳤다면 두 팔이 건강하다. 그 손뼉 치는 소릴 들었다면 당신의 청력도 건강하다.

자, 이제부터 두 팔 활짝 벌려 두어 번 만세를 외치며 한 걸음쯤 앞으로 전진해 보자. 당신은 살아 있고, 당신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게으름은 병이다. 일어서고 볼 일이다. 주먹나팔이라도 불어대며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세상이 온통 소가죽으로 덮여 있길 바라지 말자. 내 발에 맞게 소가죽으로 신발을 맞춰 신으면 그만이다. 세상은 바야흐로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노력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世界佛教 法王廳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사회적 약자 보듬은 '검은 피부' 스님 화제

美 비구니 메뉴엘 스님, 지역사회 귀감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검은색 피부' 의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워싱턴 포스트〉 지는 8월 4일 "캘리포니아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젠주 어스린 메뉴엘(Zenju Earthlyn Manuel · 69) 스님이 '인종' '성별' '빈곤' 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오클랜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메뉴엘 스님은 특히 오클랜드 지역 유색인 청소년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우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저를 찾아오는 유색인 청소년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본다"고 말하는 메뉴엘 스님은 "처음 법단에 올랐던 날, 나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에서 놀라움을 보았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실 매뉴얼 스님은 미국 불교계 여느 사원이나 선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다. 검은색 피부에 가사를 두른 아프리카계 스님이기 때문이다. 메뉴엘 스님이 법단에 처음 올랐던 날,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피부색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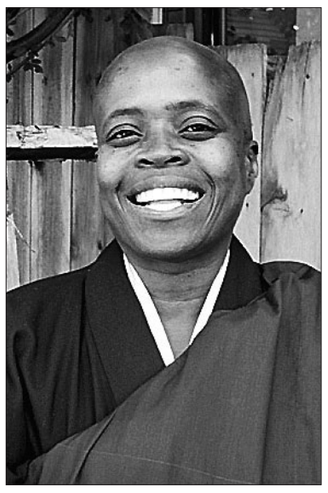
스님은 "놀란 대중들의 시선과 마주하고서 위축되긴 했지만, 대중들의 시선과 반응을 계기로 나는 또 다른 공부의 길을 찾았다"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신에게 닥치는 '고' 를 바로보지 못한 대중을 이끌어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는 메뉴엘 스님이 '인종' '성별' '빈곤' 등과 같은 '사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검은 피부의 비구니 스님이 '왜곡된 사회 통념' 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드리고 여여해지는'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풀이하고, "이는 스님의 강연에서도 작품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 대중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뉴엘 스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선원에서 강연에 열심이다. 또 〈Black Angel Cards〉, 〈Together We Are One〉, 〈Be Love〉, 〈The Way of Tenderness〉 등의 저서를 통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풍토는 없어야 한다' 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 두 가지를 강조하셨다"고 전제한 메뉴엘 스님은 "만약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절대적 진리' 만이 유용하겠지만, 우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상대적 진리는 '서로 다름' 에서 오는 '고통' 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며 지금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역설했다.



젠주 어스린 메뉴엘 스님
(Zenju Earthlyn Manuel)

강연 · 저술 등 활발한 활동
피부색 편견 딛고 소수자 대변
"부처님 진리, 약자 돕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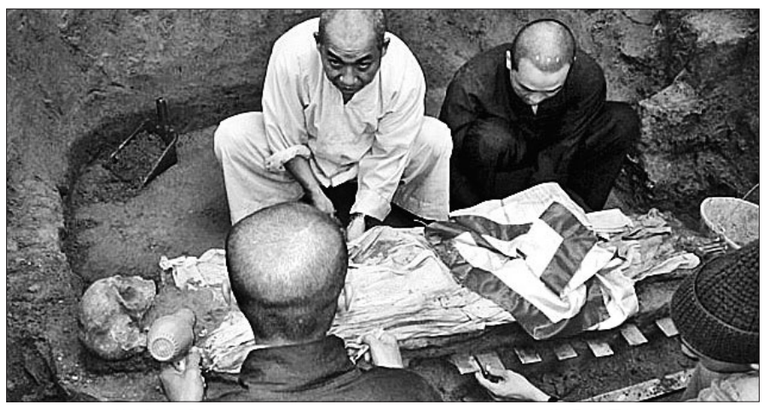
〈워싱턴포스트〉 지는 메뉴엘 스님이 강연과 저술에서 보여준 언술은 미국 주류사회 정서에 반하며 이런 점 때문에 스님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남다르고, 또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Dreaming Me: Black, Baptist and Buddhist〉라는 책을 낸 종교학자 젠 윌리스(Jan Willis) 박사는 "메뉴엘 스님의 행보는 미국 주류 불교계의 반발을 낳을 수도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윌리스 박사는 "메뉴엘 스님의 작품에서는 폭력, 빈곤, 편견 등에 시달리는 어린 흑인 소녀가 자주 등장하는데, 메뉴엘 스님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주목하면 바로 자신의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1970년대 인종 문제로 내홍을 겪은 미국 사회를 지켜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스님은 1984년 불교에 귀의하고서야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요즘 사회에서 약자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희생당할 수 있다"는 메뉴엘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메뉴엘 스님은 오늘도 오클랜드의 분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대중들과 명상하며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 스님은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26년 동안 썩지 않은 승려 시신 '경이'

2011년 1월 발굴… 두개골 사리색 시시각각 변해



'Vietnamnet' 은 7월 26일 "베트남 롱 부 파고다(Long Buu Pagoda)사원 틱민득(Thich Minh Duc) 승려 시신이 26년 만에 원형 그대로 발굴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Vietnamnet

베트남에서 매장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부패되지 않은 승려 시신이 발견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베트남 정보 사이트 'Vietnamnet' 은 7월 26일 "틱민득(Thich Minh Duc) 승려 시신은 보존을 위한 어떤 방법도 필요치 않았다. 약 30년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 놀라운 사건에 과학자들은 승려가 가진 종교적 힘이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1년 1월 11일 경 베트남 꽝응아이 지역 롱 부 파고다(Long Buu Pagoda) 사원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사원은 출토 기념식을 열고 틱민득 승려의 시신 유해를 새 사리탑에 봉안했다. 당시 신도들은 관이 모두 부식됐음에도 불구 원형이 보존된 시신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개골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을 뿐 중족골(발목과 발가락 사이 뼈)과 작은 뼈들은 매장 당시 모습 그대로 엉켜있었다. 이에 대해 'Vietnamnet' 은 "그 토양과 암석들로 인한 압박으로 관이 깨졌지만 골격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며 롱 부 파고다 사원 주지 틱한쿠앙(Thich Hanh Khuong) 스님 말을 인용, "시신이 발견될 당시 두개골에 있던 3개의 분홍색 점이 검은색으로 되었다가 1주일 후 다시 노란색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엔규엔 란 (Nguyen Lan Cuong) 박사는 "깨달은 불교 승려들 몸에는 과학적으로 설명 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리가 발견되는데, 이 시신 두개골서 시시각각 변색되는 점도 사리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박사는 "틱민득 승려 이전에도 젠(Zen) 명상을 마스터한 몇 승려의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들은 불교 특유의 미라 보존법으로 매장됐다. 불가에서는 종종 뛰어난 승려들을 미라 형태로 보존한다"면서 "하지만 틱민득 승려는 다르다. 이 승려는 30년 가까이 그저 땅에 묻혀있을 뿐 과학자들은 어떤 특별한 화학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틱민득 승려는 1901년 꽝응아이 히엡포 마을서 태어났다. 17세에 출가해 1940년 롱 부 파고다 사원 주지로 임명됐다. **박아름 기자**

폐교, 법향 그윽한 寺院으로 되살아나다

학생들이 떠난 곳, 폐교가 사원으로 거듭난다.

〈CINews Now〉 지는 8월 1일 "일리노이 주에 있는 작은 도시 피오리아(Peoria)에 첫 불교 사원이 들어선다"며 "수년째 비어있던 폐교, 워싱턴 학교(Washington School)가 선근을 심는 불교사원으로 탈바꿈한다"고 보도했다.

피오리아 시청에 따르면, 피오리아 시에서 '성공한 사업가' 로 알려진 아시아계 이민자 부부 샘 마치(Sam Mach) 씨와 타이 람 풍(Thai Lam Phung) 씨가 수년째 방치된 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개축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는 올해 안에 리모델링 과정을 마쳐 사원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라는 타이 람 풍 씨는 "스님이 주석하며 지역 불자의 법회를 집전하고 경전을 함께 읽고 명상을 가르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정이 적지 않다"고 전제한 〈CINews Now〉 지는 "폐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말 열리는 피오리아 위원회(City Council)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불교사원이 개원되길 바라는 지역 주민의 바람이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하고, 불교사원을 운영할 샘 마치 부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오리아 위원회 메간 엡에커(Megan-Erbacher) 위원은 "위원회는 불교사원 운영자의 기획 능력, 공간 활용의 다양성 등을 다각도로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다"며 "폐교가 좋은 종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바람직하는 게 지금까지의 위원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티브 잡스의 禪, 오페라로 전한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과 사상을 담은 오페라가 무대에 오른다.

〈뉴욕타임즈〉는 8월 6일 인터넷 판을 통해 유명 오페라극단인 산타페 컴퍼니가 차기작으로 스티브잡스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산타페 컴퍼니의 차기작은 'The evolution of Steve Jobs' 로 이 오페라를 단순히 'iO페라' 로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오페라에는 전자음향과 전통악기의 음향이 절묘하게 결합된다. 이는 선수행을 통한 창의적 발상으로 아이팟, 아이폰 등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오페라의 내용으로는 스티브잡스가 애플 창립 후 2011년 사망하기 까지의 일화를 담는다. 여기서는 그의 선수행적인 생활습관과 그로 인한 기술적인 감각, 또 그의 가족과 친구 등 대인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이 오페라는 마크 캠벨이 가극대본을 담당하며 메이슨 베이츠가 음향부분을 맡는다. 케빈 뉴버리가 감독으로 오페라 제작을 총괄하며 올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워크샵을 열 예정이다. 전반적인 사업 진행은 마이클 크리스티가 맡는다.

뉴욕타임즈는 "소식에 따르면 산타페 오페라 측이 실리콘 밸리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전자음향과 풍성한 대사, 일률적이지 않은 내레이션과 잡스 자신만큼이나 혁신적인 그의 생산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영국의 특별한 연등띄우기 7월 25일(현지시각) 영국 롱 디턴(Long Ditton)에서 특별한 '연등 띄우기 행사' 가 열렸다. 'Advertiser' 는 7월 28일 "영국 남부 서리(Surrey) 지역의 엘름브릿지(Elmbridge) 부시장, 타니아 쉬플리(Tannia Shipley) 시의원을 비롯한 영국 시민 약 6백여 명이 불교 센터 Shinnyo서 개최한 등 축제에 참가했다"며 "청중들은 개인의 소망과 가족의 안녕 등 소원을 등에 적어 띄워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6백여 등이 물위에 뜬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고 소개했다.
등 띄우기 행사는 고대 일본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일본 불교 신뇨엔(Shinnyo-en)종은 등이 떠있는 동안 소원을 빌고 내면의 빛을 밝힌다는 의미로 이를 계승해 왔다.
박아름 기자 〈사진출처=Advertiser〉

인 사 말 씀

(사)국제불교승가회 창시자겸 태화사
창건회주 법왕존자 동암스님 동상제막식



울산 태화사 창건 회주 이시고 불무도의 선구자, (사) 국제불교 승가회 창시자이신 법왕존자 동암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스리랑카와의 교류를 통한 중생제도에 혼신을 다하신 업적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야하라마 아난다 테로 스님의 사원에 동상을 세우는 큰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암스님 행장
- 병술년 경남 울산 출생
- 1967년 5월 대한불교 조계종 일붕 대종사 은사로 출가
- 대한불교 조계종 범행 큰스님을 법사로 구족계 수지
- 일붕 선원 지도법사 역임
- 일붕문도회 부회장 역임
- 서울 일붕 호국선원 주지 역임
- 태화사 주지겸 창건회주
- 국제자원 봉사 우호협회 한국본부회장 un-ngo 등록
- 삼장법사 대승정 승왕 존자 철학박사 8개 박사
- 불무도 선구자
- 불교 교리 등 많은 저서 집필
- 2003년 9월 9일 사단법인 등록 창시
- 2006년 7월 5일 울산 태화사에서 열반드심 (세수 61 법랍 39)

- 장 소 :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하야라마 사원
- 일 시 : 2015년 7월 28일
- 참 석 자 : (사) 국제불교 승가회 회장 최정구, 이사장 송애자, 부이사장 무상스님, 이사 대명스님, 사무총장 조상환, 송원스님, 학성스님, 수월스님, 선주스님, 송윤스님, 송광스님, 송인스님, 성초스님, 기국진, 이상효, 김춘화, 김인성, 박기문, 김규태, 황우화, 정영순, 서원상, 김복순, 주숙자, 류희숙, 김기훈, 유정은, 정효진, 스리랑카 라자팍스 前대통령, 각 정계 인사, 각 종단 큰스님과 사부대중 등

(사)국제불교승가회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아래와 같이 제1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오후 3시 30분 ~ 5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5년 8월 ~ 2015년 8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큰 지향점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⑫ 장생불사의 도를 얻는 손오공

술의 문을 거부당한 수보리 조사님, 다음 카드를 차례로 내놓으신다.

"흠, 유(流)자문은 어떠냐? 유가, 불가, 도가, 음양가, 묵가 같은 것들인데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하는 것이지."

"그럼 그걸로 장생불사 할 수 있나요?"

"좀 힘들게다. 벽속에 기둥을 세우면 좀 튼튼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썩어서 무너지게 마련이지."

"그럼 그것도 싫네요"

"그럼 정(靜)자문은 어떠냐? 항상 고요하고 깨끗함을 위주로 하여 참선하고 좌관(坐觀)하는 등의 공부를 하는 것인데"

"장생불사는요?"

"굽지 않은 흙벽돌이 물에 젖으면 쉬 허물어지는 것 같아 좀 부실하지"

"그것도 싫어요!"

"그럼 동(動)자 문은 어떠냐? 음(陰)을 취하여 양(陽)을 돕고 배꼽을 문질러 기를 기르고 여인의 월경을 이용한 약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인데"

"장생불사는요?"

"물속 달을 건지는 격이라 헛수고에 그칠 뿐이지"

"싫네요!"

"에잇! 돼먹지 못한 원숭이 놈아!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수보리조사 발연대노하고 계척(戒尺)으로 손오공 머리를 세 번 때리고 뒷짐 지고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다. 여러 다른 제자들 수근수근

"저 원숭이놈 욕심만 많아 조사님 성질을 돋웠구나"

야단치고 흉보고…그러나 손오공, 짐작이 가는 게 있다. 세 번 때린 것은 삼경을 가리키는 것이요, 뒷짐 지고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무도 없을 때 뒷문으로 오라는 것 아니겠어?

가슴이 두근두근, 홀로 삼경을 기다린다. 뒷문으로 가니 역시 문이 열려 있어 조사님 앞에 나가 절하고 장생불사의 도를 청한다. 조사님 정말 기쁘고도 기쁘다.

이렇게 영민한 원숭이, 암시를 알아채고 오니 정말 연분이 있구나.

이리하야 드디어 손오공! 수보리 조사의 진전을 이어 장생불사의 도를 얻게 되도다.

수보리 조사가 제시한 술의 문을 손오공은 가볍게 거부했지요?

"그걸로 장생불사할 수 있나요?" 하는 물음으로요. 애초에 손오공이 목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었지요? 그 원래의 물음을 잊지 않고 계속 지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서 큰 지향을 갖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 집안에도 그 큰 지향이 있지 않나요? 바로 사홍서원이죠. 네 가지 큰 지향,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가는 것이 바로 불자라는 증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요즈음 우리 불자들이 매번 법회 때 마다 끝날 때 사홍서원을 하곤, 너무도 거룩한 서원이라서 세속에 가지고 나가기가 죄스러운지 바로 부처님 앞에 맡겨놓고 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거룩한 목표는 절에 와서 한번 꺼내들고, 세속에서는 세속적 목표에 매진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불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언제나 네 가지 큰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 큰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바로 진정한 불자인 거지요.



그림 · 최주현

사홍서원을 향한 정진이 불자 증거
진리의 깨달음이 불교의 목표
손오공, 장생불사의 도를 원해
수보리 "술법 전수는 구도의 시작"

물론 손오공은 아직 불교적인 가르침을 접해보지 못하였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추구를 일으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을 뿐이죠. 그거야말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건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장생불사라는 목표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교의 목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지 장생불사는 아닙니다. 이 차이에 대하여는 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아무튼 손오공은 조그만 이익이라든가 신통력 같은 것은 거부하고 시종일관 장생불사를 외칩니다. 첫 번째 술의 문을 거부하고 수보리 조사가 줄줄이 제시하는 여러 길들을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뭐 좀 한다는 분들이 제시하는 길들이 다 들어있는 거 같지 않나요?

우선 유(流)자문부터 볼까요? 유교니 불교니 도교니 하는 모든 사상들이 다 여기 들어가네요. 삼교구류(三敎九流)란 표현을 쓰던가요? 삼교는 보통 유불선(儒佛仙)을 말하고 구류는 기타 여러 사상이나 학파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유(流)자문이라 하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불교도 들어가고 도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유기가 불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들을 유자문에 넣어서 폄하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화된 종교나 사상으로서의 유교, 불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조사의 설명을 보세요.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등등…. 그것이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장생불사를 이룰 수는 없다고 말하지요. 그 비유가 참 재미있어요. 흙 벽 속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네요. 벽을 지탱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썩어서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다음은 무엇인가요? 정(靜)자문이네요. 세속에서 행하는, 주로 정적인 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계통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불교나 도교의 참선, 좌관 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수보리조사의 표현으론 이것도 굽지 않은 벽돌과 같다더군요. 비법을 제대로 담지 못한 정적인 수양만으로는 결코 장생불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동(動)자문이죠. 정과 반대로 움직임을 통한 수양을 말하는 거네요. 여기엔 방중술도 들어가고 비약을 만들어 먹는 방법도 들어가고, 동적인 수양을 통해 기를 축적하는 방법들도 들어가는군요. 태극권(太極拳) 같은 권법은 동공(動功), 즉 움직이며 하는 수양이라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군요. 중국에서 유행하다 박해를 받는 파룬궁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수보리 조사는 이런 공부는 물 속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깎아내리고 있군요.

허 참! 다 괜찮은 공부가 될 것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지…. 혹시 수보리 조사 심보가 본디 좀 괴악한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실 듯하다. 그렇지만 여기엔 서유기의 중대한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유기의 배경은 불교가 주가 되고 도교가 종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불교는 궁극적 목표이고,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에 버금가면서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가장 큰 길,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도교인데요. 그 도교 가운데서도 바로 금단대도라는 정통의 수양만이 장생불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설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죽 들어 보인 술자문, 유자문, 정자문, 동자문 등은 그 정통이며 왕도라 할 수 있는 금단대도의 비밀스런 가르침을 담지 못한 아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길들에 대하여 손오공은 "그걸로 장생불사할 수 있나요?" 하는 물음을 던지고, 안된다고 하자 가차 없이 거부하죠. 그리고 수보리 조사 발연대노! 계척(戒尺: 스승이 제자를 훈육할 때 쓰는 도구, 또는 불교에서 의식의 진행을 위해 쓰는 도구)으로 머리를 세 번 때리고 뒷짐 지고 들어가셨다! 여기서 좀 견문이 넓으신 분들은 퍼뜩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으실 듯 하죠?

육조 혜능과 오조 홍인 스님의 이야기죠.

홍인대사가 대중에게 깨달은 자 있으면 와서 고하라 하니 신수대사가 게송을 지어 벽에 붙이죠.

身是菩提樹(신시보리수) 心如明鏡臺(심여명경대)
時時勤拂拭(시시근불식) 勿使惹塵埃(물사야진애)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대(臺)이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혜능행자가 이에 대하여 다른 게송을 지어 써 붙이죠.

菩提本無樹(보리본무수) 明鏡亦非臺(명경역비대)
本來無一物(본래무일물) 何處惹塵埃(하처야진애)
깨달음 본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이라 해도 또한 대(臺)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 티끌 일어나리!

홍인 스님, 나오셔서 짐짓 되어먹지 않은 글이라고 문질러 버리시고는 저녁 무렵 슬그머니

혜능 행자 디딜방아를 찧고 있는데 오시죠.

홍인대사; "방아는 다 찧었느냐?"

혜능 행자; "예, 방아는 다 찧었는데 키질을 하여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홍인스님; 지팡이로 방아공이를 세 번 두드리고 뒷짐 지고 가시다. 이에 혜능행자 삼경에 뒷문으로 홍인스님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은 뒤, 부처님 이래 전해 내려온 의발을 전해 받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대는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럼 서유기의 저자와 육조단경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 누구 것을 표절한 것일까' 가 문제이네요. 요즈음 표절 시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누가 누구 것을 표절했는지 결단코 밝혀서 철저히 응징하고, 표절자는 모든 공직에 나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이런 이야기에서 표절 시비하자면 정말 너무 너무 많아서 곤란해진다는 말씀! 예를 들어 인도의 여러 성인들 탄생설화는 매우 비슷비슷한 것이 많다네요. 지난 성인의 탄생에 얽혀있던 설화가 다른 성인의 탄생설화에도 비슷하게 붙는다던지 하는 것들도 있죠. 예수님 탄생과 부활의 설화도 이집트와 중동 권의 여러 탄생, 부활설화와 비슷한 것이 많다네요.(이 문제에 당혹한 기독교 교부들이 이를 악마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 미리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는군요) 이런 것들도 표절이라 할까요? 이와는 좀 다르지만 여기 서유기와 육조단경의 이야기도 적절한 이야기를 적절히 써먹는 훌륭한 응용이라 보아야겠죠? 결단코 이것은 표절시비의 대상 아닙니다. 남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통해 발명하거나 발견한 것을 슬그머니 제 것처럼 쓰는 비양심과는 구별되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래서 본디의 목적을 잊지 않고, 조그만 갈림길에 빠지지 않은 손오공! 수보리조사가 내놓은 수수께끼의 관문까지 돌파하고 드디어 장생불사의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일러 금단(金丹)의 큰 길이라! 도교 수양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도교와 선도 수행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하네요. 불교와 대비되는 도교의 수행법을 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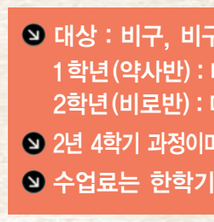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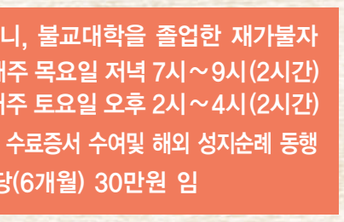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경쟁 넘어 이룬 통섭… 불교, 한국인 心性 뿌리돼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4. 토착신앙과의 융화와 대중화

불교의 전래와 함께 현세와 내세의 복을 기원하는 불교신앙이 삼국에 유포되고 확산되었다. 고구려의 경우 현존하는 고분벽화에서 예불과 설법, 전륜성왕 등 불교신앙의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며, 고구려 불상의 명문에서도 미륵신앙과 아미타신앙의 성행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는 남아있는 불상, 조각, 탑과 중국 측의 기록 등을 통해 다채로운 불교신앙이 있었고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구축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불교신앙에 관한 가장 많은 사료가 전해지는 곳은 신라이며 따라서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한반도의 불교신앙을 소개하고자 한다.

명산 신앙 · 토템과의 경쟁

불교 전래 후 신라에서는 기존의 무교 전통과 경쟁하는 가운데 불교의 토착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전통적 자연신격을 수용하여 이를 불교 안의 신앙 대상으로 포섭하였고 주술, 제천의식 등 무교의 역할을 불교가 대체하기도 하였다. 특히 무교의 전통적인 성스러운 공간을 점유하면서 극심한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무교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내기보다는 불교 안으로 무교 전통을 수용하고 결합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불교는 무교의 종교적 역할을 점차 대체하였는데, 무교 공간의 불교화는 역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불교의 무교화를 수반하였다. 승려가 무격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종교의 영역 내에서 불교와 무교가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교는 토착적 무교 전통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불교 도입 이전의 신라에는 명산신앙과 토템 등의 토착신앙이 중심이었다. 불교가 도입된 초기에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였던 삼마는 무교의 샤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확고한 기반을 가진 토착신앙의 토양 위에 불교신앙의 둥지를 틀어야 했다. 삼국시대 신라에는 일본의 신사와 마찬가지로 신성한 신앙적 공간인 제장이나 신당, 신궁 등이 존재하였다.

불교가 도입된 후 토착신앙과의 각축을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적 종교공간에 사찰이 들어서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천경림에는 흥륜사, 신유림에는 사천왕사가 세워졌다. 또한 후대의 윤색으로 보이지만 산신인 선도성모를 모신 신사에서 금을 캐내어 불전을 수리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등 불교신앙은 토착신앙과의 융화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편 신라에서는 지배층을 위주로 한 조상숭배신앙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조상에 대한 숭배와 신격화는 고대사회의 일반적 현상이지만 특히 신라의 지배층은 신성한 선조에 대한 제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했다. 시조 및 조상신은 천신이나 자연신 관념과 결합하여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고 자손에게 복과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믿어졌다. 이러한 조상으로부터의 신성한 혈통인식은 현세와 죽음의 세계가 이어지는 연속적 내세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교가 전래된 후 조상에 대한 관념이나 숭배 의식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불교는 윤회관념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재생을 설명하는데 동아시아에 들어와서는 거듭되는 재생의 과정에서 부모와의 인연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에 신라에서는 현생 뿐 아니라 전생의 부모와 윤회하는 내가 맺고 있는 인연까지도 소중하게 여겼고 여러 생의 부모에 대한 보답은 이전과 같은 신격에 대한 숭배가 아닌 명복을 빌고 선행을 하는 추선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윤회로 맺어진 부모와 나의 존재는 인과법에 의해 상호적 공덕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신라, 명산신앙 · 토템 등이 주류
불교 전래 후 마찰… 점차 융화
승려 · 사찰, 무교적 의례 이어받아
왕실불교의 호국적 성격도 파생

삼국서 모두 관음 · 미륵신앙 대중화
불교 확산, 특유 수용력서 기인

신라에서는 시조묘 제사 등을 통해 천손 관념이 유지되었고 정치와 제사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불교는 전통적 무교신앙의 하늘을 능가하는 고차원적 원리로 수용되었고 왕실의 신성함을 보장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불교 전래 이전의 하늘관념은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공동체는 하늘 관념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였고 위정자는 권력의 합법성을 획득하였다.

이에 비해 불교는 인간 삶을 주재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재래의 종교적 관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대 한국인들은 종래의 하늘 관념을 버리지 않았고 인간의 윤리적 삶을 견인하는 장치로서 하늘 관념을 끝까지 견지하였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불교는 행위에 대한 책임과 행위를 통한 운명의 개척을 뜻하는 업설을 통해 전통적 하늘 관념을 불교적 맥락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처럼 불교는 무교의 신성한 공간과 제사 등의 역할을 이어받았고 전통종교를 유연하게 포섭하면서 융화를 추구하였다.

왕실불교의 특징 '호국'

초기의 신라 불교신앙은 왕실 및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며 호국불교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진흥왕 때에 개설된 백고좌회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는 신라로 온 고구려 승려 혜량이 주도하여 시행되었고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는 일종의 진호국가 법회였다. 또한 신라와 불교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한 불국토 관념도 나타났는데 신라의 수도 경주에 과거 7불이 머물던 7개의 가람 터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구례 사성암 산신각의 모습. 명산신앙은 불교 전래 이전부터 있었던 한국의 토착신앙이다. 불교 도입 후 토착신앙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국 불교 안으로 융화된다. 산신각은 이 같은 융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진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는 진흥왕 때 처음 열린 팔관회였다. 신라에서 팔관회는 재가신자가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원래 의미의 팔관재 의식과는 달리 전쟁에서 죽은 호국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의 성격을 지녔다.

망자에 대한 위령은 고대로부터 행해진 중요한 의례이자 통치 행위였다. 이는 동아시아에 존재하였던,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원령이 되어 자연재해나 역병 등을 일으킨다는 원령관념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령 행위는 국왕의 통치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일찍부터 국가 주도의 위령제가 거행되었다. 불교가 도입된 후에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 위기상황에서 불교식 위령의례가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위령제의를 대체해 나갔다. 전몰영혼을 달래는 국가적 제의로서 열린 팔관회와 같이 불교는 전쟁으로 죽은 이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위령의 기능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후 불교의 위령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힘으로 망혼을 천도하고 교화하는 방식으로 후대까지 이어졌다.

한편 불교가 점차 대중에 보급되면서 국가 중심의 신앙과 의례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불교신앙도 확산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관음신앙이 유행하여 현실적 바람과 고통의 구제를 관음보살에게 기원하였고 그에 대한 큰 수요를 반영하여 수많은 관음보살상이 조성되었다. 관음보살은 대자대비를 서원하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나 현신으로 나타나는 보살이다. 관음신앙은 부여 군수리 사지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존재에서 6세기 후반 무렵에는 백제에서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6세기 초에 백제 승려 발정이 중국 월주 지방에 가서 관음도량을 참배하였다는 기록도 전한다.

대중화의 시작 '관음 · 미륵신앙'

신라의 경우에도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많은 관음신앙의 사례들이 전한다. 590년에 태어난 자장의 경우도 부모가 관음상 1000구를 조성하고 득남을 기원하여 세상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 유명한 조신설화는 조신이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명주 태수의 딸과 결혼하게 해 달라고 빌어서 소원을 이루었지만 자식을 낳고 40년 이상을 살면서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헤어졌다는 스토리이다. 조신은 인생의 부질없음과 고통을 경험하고 꿈에서 깨어났고 이미 늙은 몸이 되어 세간사에 더 이상의 뜻을 잃고 인생무상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이는 삶은 욕심을 부리고 아무리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의 일장춘몽일 뿐이라는 교훈을 관음보살의 영험함에 의지해 엮은 일화로서 이를 통해 불교의 무상개념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음신앙과 마찬가지로 미륵신앙도 삼국 모두에서 성행하였다.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도솔천으로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미륵 상생신앙, 그리고 미래불인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와 교화를 펼치고 일종의 유토피아인 용화세계를 이루기를 바라는 미륵 하생신앙으로 나뉜다. 이중 미륵 상생신앙은 고구려에서 매우 성행하였는데 당시 중국의 북위에서 도솔천 왕생신앙이 유행한 점, 그리고 하늘의 자손인 천손임을 자부한 고구려 지배층이 사후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졌던 점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미륵 하생신앙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백제와 신라에서 성행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몇몇 국왕들은 전륜성왕을 추구하였는데 전륜성왕은 정법에 의해 세상을 평화적으로 다스려서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는 현실에서의 토대를 닦는 이로 알려져 있다. 아들 이름을 전륜성왕과 관련 있는 동륜, 사륜으로 짓고 새로 정복한 영토에 순수비를 세우면서 자신이 아쇼까 왕과 같은 전륜성왕임을 선언한 진흥왕은 유명한 화랑 조직을 결성하였다. 화랑은 전륜성왕과 마찬가지로 미륵불의 용화세계 건설을 위한 현실에서의 실천을 담당하였고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경쟁과 동시에 융화 · 확산

한편 〈삼국유사〉를 보면 진흥왕의 아들이자 사륜, 또는 쇠륜(철륜)으로 불린 진지왕의 재위 시에 미륵 하생신앙과 관련된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백제와 신라에서 만들어진 반가사유상은 당시 사회의 이상형을 반영하여 미륵보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주에 현존하는 8미터 높이의 단석산 미륵 삼존 마애불이나 백제 무왕이 전륜성왕을 추구하면서 미륵불이 하생할 때 세 차례 설법을 할 수 있도록 3금당 3탑의 특이한 가람배치로 만든 미륵사의 존재는 신라와 백제에서 미륵 하생신앙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신라에서는 관음신앙, 미륵신앙과 아울러 6세기 초 원광에 의해 점찰법회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점찰법회는 나무로 된 간자를 굴려 전생의 업보를 점친 후 그 죄를 참회하고 선행을 닦는 방식이었다. 이는 토착신앙에 익숙한 신라의 일반민들에게 불교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방안이었다. 점찰신앙은 이후 널리 확산되어 통일 직후 경주의 흥륜사에서 점찰법회가 열린 사실이 있으며 8세기 중반 경덕왕 대에 활동한 진표의 점찰법회가 특히 유명하다. 한편 신라에는 삼국통일기인 7세기 중반 무렵에 아미타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희구하는 아미타신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가장 대중적인 불교신앙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

불교는 전래 후 토착적인 무교신앙과 경쟁하면서 융화와 확산의 길을 걸었다. 한편으로는 무교의 영역을 점유하고 대체하였고 한편으로는 무교를 적극적으로 포섭한 나머지 불교 내에서 일종의 주술화, 무교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불교의 원래 가치나 지향과 맞지 않는 면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여러 지역에서 보여준 불교의 수용력과 토착적 융합의 힘은 신라를 비롯한 삼국 모두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삼국시대 사람들이 불교신앙에 순식간에 심취하고 열광하게 된 것은 바로 불교가 가진 포용력과 대중성에 이유가 있었다. 불교는 전래 후 처음에는 강고한 무교의 벽에 부딪혔지만 결국 융합을 이루어내었고 이후 한국인의 관념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합적 신앙이자 종교로서 기능하였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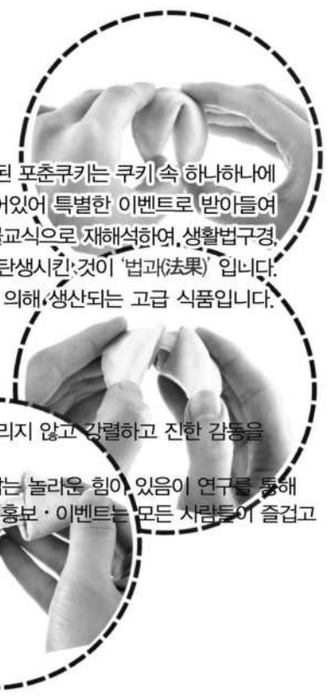


법과활용(Application)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감명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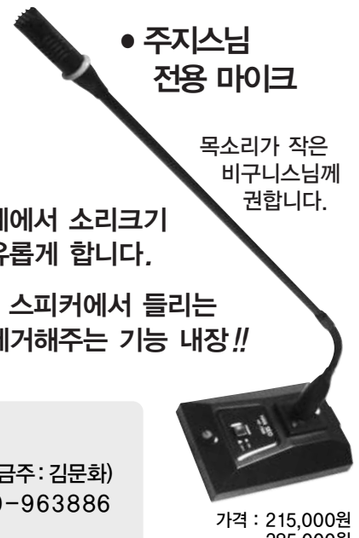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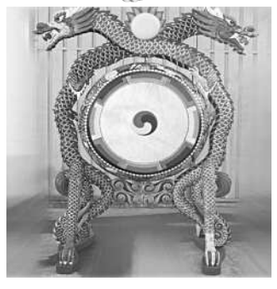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26~2015.8.0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2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3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4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7	감산자전	담산덕청 대성	탐구사
8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9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10	행복 뇌 접속	릭핸슨/김미옥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목련존자 이야기 소설화… 교차편집 전개

목련의 기도

백금남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 3500원





불교서 효(孝)는 부처님의 자비롭고 올바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최선의 방법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님 은혜를 갚고자 등에 업고 수미산을 수백번 돌아 발에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깎여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하셨다. 또한 아비지옥에 떨어진 불효자는 천신도 그를 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불효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조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경전이 많다. 그중 부모은중경, 효자경, 잡보장경, 말라말경, 육도집경 등이 대표적이다. 부처님께서는 유독 효를 가리켜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이 말은 불자가 효를 행하면 모든 계품을 일심에 구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중요한 명절중 하나인 우란분재(백중)도 바로 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서 기원한 재이다. 이는 효를 중요시 여긴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이다.

소설가 백금남<사진>은 최근 이 우란분재(盂蘭盆齋)의 기원이 된 목련존자 이야기를 소재로 부처님 가르침과 업보, 인연, 윤회 등 불교와 관련된 주제를 풀어 소설을 썼다. 제목은 〈목련의 기도〉이다. 책은 주인공 '나'가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일본서 귀국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도쿄에 교환교수로 나와 있는 '나'는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잠이 깬다. 전화를 걸어온 조카는 실종된 어머니에 대한 단서가 있다고 말하고, 나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공항서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차 안에서 조카는 한 권의 책을 건넨다. 〈목련암〉이라는 제목의 책은 붓다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찾아 여섯 지옥을 헤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 백금남은 군더더기 없이 담담하고 담백한 필치로 전생과 현생, 전설과 현실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 현실서 시작돼 현실서 끝나지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의 고갱이는 책 속의 책인 바로 〈목련암〉 이야기에 있다. 구율타, 출가해 목련이 되는 주인공은 어머니가 생전에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지옥,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무간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 받고 있음을 알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떠난다. 도중에 그가 목격하는 8대 지옥의 무시무시한 풍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목련은 안내를 맡은 질로라는 아홉 살 꼬마의 맹랑함에 아연실색하고, 화도 내고, 어처구니없어 하면서도 함께 무시무시한 지옥을 두루 순례한다. 목련과 티격태격하면서 고정관념과 허상의 실체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질로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이 책은 한 번 읽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거듭 읽으면서 삶과 인연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하게 하는 소설이다. 효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요즘,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식의 그릇된 생각이 횡행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목련의 깊은 효심과 인연의 가없는 깊이를 그린 〈목련의 기도〉는 효란 과연 무엇이며, 나와 부모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붓다는 무엇을 설파했는지에 대한 깊은 화두를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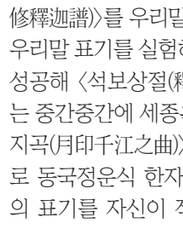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저자 백금남은?

제주도서 출생했다.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히트하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2003년에는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바바〉로 민음사 제정 올해의 논픽션상을 수상 했다. 2008년 9월에는 일본의 화신(畵神)으로 불리는 도슈사이 샤라쿠가 바로 한국의 김홍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추적한 소설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2년여 동안 신윤복과 조선 후기 회화사에 대해 집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 신윤복〉과 신작 〈관상〉을 발표했다.

한글 창제의 일등공신은 佛家의 학승?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글의 발명
정광 지음
김영사 펴냄
1만 9800원

언해본을 〈월인석보〉에 담은 이유
한글 제정 동기는 '발음기호'
기존 한글연구 통념 뒤집어
한글 20C 음운론보다 500년 앞서

한글은 한자음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로 만든 것이다. 원나라가 성립하고 이전 중국어와 발음이 전혀 다른 한아언어(漢兒言語)가 대두되면서 중국의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이 크게 달라져 소통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우리 것을 교정해 〈동국정운〉 한자음을 만들었다. 이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발음이란 의미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유신들은 중국 한자음이 정음을 표기하는 문자라는 뜻으로 정음(正音)이라 불렀다. 교착어인 우리 말 쓰임에 고립어인 한자는 어순과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가 '변음토착(발음을 바꿔서 토를 달다)'의 난제를 해결하자 세종은 이 문자로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보상절〉을 짓게 하고 스스로 〈월인천강지곡〉을 지어 이를 확인했다. 이 책에서는 세종이 이 둘을 합편하여 〈월인석보〉를 간행하면서 권두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붙여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한자를 그대로 읽는 것이다. 아전인수 격이나 자기 멋대로 한자를 해석하지 말고 원래의 뜻대로 읽자는 것이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바른 글자"로 해석한다든지 '정음(正音)'을 "올바른 글자"로 보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음(音)'은 발음이지 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자에 있지도 않은 뜻이나 발음으로 한자를 멋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누가 만들었는가=한글 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불가의 학승들이었다. 훈민정음 〈언해본〉이 불서(佛書)인 〈월인석보〉에 부재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수양대군이나 동궁, 정의공주 등 가족과 세종이 직접 골랐다는 친간팔유(親揀八儒)로 불리는 성삼문, 신숙주 같은 젊은 학자의 도움도 있었지만, 한글 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불가의 학승들이었다. 고대 인도의 조음음성학이 팔만대장경에 포함되어 고려와 조선에 유입되면서 불가의 학승들이 음성학을 공부,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한글로 토를 단 이후로는 변음토착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문 본문과의 구별도 확실해져서 이해가 훨씬 쉽게 되었다. 이로부터 세종은 새 문자로 고유어를 표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고안한 문자로 우리말 표기에 몰두하였는데 이것은 동궁, 수양, 안평, 정의 등의 자녀들과 함께 작업했다. 또 자녀 가운데 수양대군은 신미(信眉), 김수온(金守溫) 등과 함께 〈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우리말로 언해해 신문자로 우리말 표기를 실험하게 했다. 이 시도가 성공해 〈석보상절(釋譜詳節)〉이 저술되는 중간중간에 세종은 스스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으면서 신문자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표음과 고유어의 표기를 자신이 직접 시험하게 된다. 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몸소 확인하고 〈해례본〉에 붙인 자신의 서문과 예의(例義)를 우리말로 풀어 자신이 편집한 〈월인석보〉의 구권(舊卷)에 붙여 세상에 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훈민정음의 〈언해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제 제정되고 반포되었는가=한글은 이미 만들어졌다가 10여 년에 걸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세종 25년 12월 기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언해본 〈훈민정음〉이 〈월인석보〉 권두에 부재돼 간행된 것을 진정한 의미의 반포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세종 29년의 간기가 있는 〈월인석보〉의 옥책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한글이 세종 28년 9월 상한에 간행한 소위 〈해례본 훈민정음〉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해례본〉은 난삽한 성리학과 성운학의 이론으로 새 문자를 설명한 것이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해례본〉 앞부분의 석장 반을 우리말로 풀이한 훈민정음의 〈언해본〉이 간행된 것을 한글의 공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언해본〉은 천순 3년(1459), 즉 세조 5년에 간행한 〈월인석보〉 권두에 〈세종어제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첨부되었기 때문에 모든 연구자들이 이때에 훈민정음의 언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정통 12년, 즉 세종 29년의 간기가 있는 〈월인석보〉의 옥책을 근거로 하여 구권은 세종 생존 시에 간행되었고 여기에 〈훈민정음〉이란 이름의 언해본을 붙여 간행하여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월인석보〉는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것처럼 천순(天順) 3년, 세조(世祖) 5년(1459)에 처음 간행된 것이 아니라 세종 생존 시에 간행되었다. 이것은 세조의 어제(御製) 서문서 밝힌 바와 같이 세종이 구권(舊卷)을 간행하였으며 이 책의 권두에 〈언해본〉을 붙여 간행한 것은 전혀 새 문자의 공표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통(正統) 12년(1447), 즉 세종 29년에 개성 불일사(佛日寺)서 제작한 〈월인석보〉 옥책이 있다.

▲한글이 과학적인 진짜 이유=한글은 서양에서도 20세기가 되어서야 발달한 조음음성학과 구조음운론보다 500년이나 앞서 이 같은 언어학 이론을 동원해 문자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각 문자의 음가를 밝혔다. 한글이 과학적인 것은 15세기에 제정된 훈민정음이 조음음성학의 이론에 입각해 음운을 분석하고 문자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서양서 발달한 조음음성학은 인간의 언어음(言語音)을 발성기관의 조음(調音)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으로 나누어 구별했는데 세종대왕은 이보다 500여 년이나 앞서서 이러한 음성학의 이론을 동원해 문자를 제정하고 이 문자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각 문자의 음가들을 밝힌 것이다. 음운을 대립적인 구조(構造)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구조음운론은 20세기에 서양에서 발달하였다.

▲한글은 과연 사상 유례없는 문자인가=한글은 그보다 170여 년 전 원나라에서 만든 파스파 문자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티베트 서장문자, 근본적으로 고대 인도 음성학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중국의 북방민족들은 한자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가 어려워 일찍부터 스스로 표음문자를 제정하여 자국어를 기록했다. 기원후 650년경에 만든 티베트의 서장문자부터 10세기 거란의 요나라에서 만든 거란문자, 12세기 여진의 금나라에서 만든 여진문자가 그랬다. 13세기에 몽골의 칭기즈 칸은 위구르 문자를 빌려서 몽고어를 기록했고 14세기에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은 한글과 유사한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 한자음과 몽고어를 기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글이 15세기에 이와 같은 북방민족의 전통을 이어 만든 문자라고 주장한다. 파스파 문자의 한자음 표음은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한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즉, 한자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므로 표음문자인 파스파자는 한자의 발음을 표음하는 데 더할 나위가 없는 좋은 발음기호였다. 이 문자가 고려 후기에 널리 애용된 것은 몽고어 표기를 위한 문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드디어 파스파 문자와 동일한 역할의 훈민정음을 제정하여 한자음 표기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새 왕조의 통치계급 물갈이에 이용되기도 한 한글=한글 발명 이전에도 동아시아 민족들은 나라를 건국하면 새 문자를 제정하는 전통이 있었다. 새로 만든 문자로 관리 임용 시험을 치러 같은 세력의 인물들을 채용해 통치계급 물갈이를 추진했다. 한글도 마찬가지였다. 공표 2개월 후 이과(吏科)와 취재(取才)에 출제, 인재를 선발하고 고려의 잔재를 척결하는 데 이용하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책 속의 밑줄 긋기

"모든 것의 바탕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란 뭐냐?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 달리 말하면, 경험되는 모든 것입니다. 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전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모습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느낌을 갖든, 어떤 욕망을 갖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전부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 하는 일이죠."

〈禪으로 읽는 금강경〉 중에서

"갈매기들도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느리게 날고 있다. 그 몸짓이 신비로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갈매기는 그렇게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걷는 곳마다 마음꽃이 피었네〉 중에서

Books

"마음을 깨달으면 곧 진리를 깨닫는 것"… 言句보단 '마음법' 해설

禪으로 읽는 금강경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3만 2천원



동아시아서 가장 널리 독송된 금강경은 선종, 교종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진다. 육조혜능 대사는 출가 전 장작 팔러 시장에 나왔다가 어느 탁발승이 외우던 금강경 구절을 듣고서 처음 법을 깨쳤으며, 금강경은 육조혜능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도 금강경 해설서는 수없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이 설법한 〈禪으로 읽는 금강경〉은 다수의 해설서와는 궤를 달리한다. 금강경의 언구를 해설해 알음알이를 늘리거나 생각으로 이해하게 하는 대신,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켜 보여 주고자 하는 것, 즉 모든 것의 바탕인 '마음'을 시종일관 분명히 가리켜 보여 줌으로써 진지하게 발심한 구도자라면 단박에 깨달음의 자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흔히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선종의 교리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나타내듯이, 깨달음이란 우리의 본래 성품인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곧 진리이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곧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흔히 '내 마음, 네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바탕이며,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변함없이, 늘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마음은 나뉘어 있지 않고 결코 둘이 아니므로 불이법(不二法)이며, 마음뿐이고 마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무루법(無漏法)이며, 우리에게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늘 자연스럽게 활용되므로 무위법(無爲法)이며,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므로 부증불감(不增不減)이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므로 불구부정(不垢不淨)이며, 우리의 참 존재이므로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사실은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이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진실 하나밖에 없지, 다른 뭐가 복잡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당연하고, 한 번도 사이가 벌어진 적이 없는, 너무 당연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이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목을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이야기하죠? 눈을 깜박깜박하고, 숨도 쉬고, 눈길을 이리저리 돌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본 적이 없죠? 눈 깜박이는 이게 무언가? 목을 끄덕끄덕하는 이게 무언가? 숨 쉬고 있는 이게 무언가?"

〈금강경〉, 아시아서 가장 널리 독송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 설법서
금강경이 가리키는 지향점 해설
"깨달음, 본래성품인 마음 아는 것"

모든 부처와 조사와 선사들이 가리키려 했던 것도 이 마음이고, 모든 경전이 가리키는 것도 역시 이 마음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도자들이 마음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 도(道)라고 하는 이름, 깨달음이니 불성이니 반야니 하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그 이름에 맞는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 그 이름에 걸맞은 어떤, '이것이 마음이다'라는 게 있으면, 다시 바깥에 그와는 다른 무엇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도다'라는 게 있으면 또 이것 아닌 다른 것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도라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도라는 것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도 바깥으로 벗어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는 유심조(唯心造)라고 하듯이 전부가 다 이것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근본이요, 바탕이요 하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잘못된 방식으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진리를 깨친 선지식의 바른 지도를 받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책은 79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 수많은 방향에서, 수많은 손가락으로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므로, 책을 읽는 동안 독자로 하여금 저절로 몰입되어 이 마음 하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새책









17대 까르마빠 최초 법문집

선한 마음

까르마빠 오갠 틴래 도제 지음 | 지영사 펴냄 | 1만 8천원

17대 까르마빠는 티베트에서 태어나서 14살에 인도로 망명했는데, 전통 사원교육과 철학교육 외에도 역사, 과학,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도 배우는 한편 사람들을 접견하면서 법을 전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법문한 것을 정리한 까르마빠 최초의 법문집이다. 내용은 불교교리나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에 대한 궁금증에 답한 것이다. 까르마빠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더불어 사는 삶, 지구환경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닌 선한 마음을 일깨워 자신이 바뀌면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까르마빠는 분노가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법을 이야기한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등 우리들의 삶에 밀착된 소중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한 관계, 사랑, 갈등해소법 등 우리 삶 속에서 한번쯤 맞닥뜨릴 문제들에 대한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장산 스님의 53일간 만행 일기

걷는 곳마다 마음꽃이 피었네

장산 지음 | 세종서적 펴냄 | 1만 3천원

2013년 10월, 장산스님은 20여 년간 마음에 품고만 있던 만행길에 올랐다. 부산 세존사에서 설악산 낙산사까지 그리고 다시 부산 세존사로 회향하는 53일간, 1천 300킬로미터를 걷는 전국 도보 순례였다. 매일 25킬로미터 이상을 걸으며 장산스님이 만났던 바깥 세상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그리고 '시간을 들여 오래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장산스님이 깨달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 책은 前 동명불원 주지이자, 현재 부산 세존사의 회주인 장산스님이 써내려간 53일간의 만행일지다. 애초에 장산스님은 도보 수행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부처님의 지혜를 더듬고자 했다. 하지만 고통을 참으며 쉬지 않고 걷는 수행의 길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성찰하고 재발심하는 깊은 사유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한 스님이 떠난 국토 순례의 기록이자, 길 위에 선 수행자의 불교적 성찰의 결정체이다. 세속에서 만난 인연들과 그들을 통해 얻은 선지식과 지혜들, 그리고 신행생활에서 벗어나서 길을 걸으며 얻은 인생에 대한 뜻밖의 배움 등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 이야기다.

고구정녕한 법화경 신행 지침서

삶의 브릿지

일우 스님 지음 | 해조음 펴냄 | 1만 3천원

〈삶의 브릿지〉는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평생 법화행자로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효동 일우 스님의 고구정녕(苦口丁寧)한 신행 지침서다.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신행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그 위에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며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믿음이 삶을 건너는 최고의 다리가 됨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스님은 머리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BTN 불교TV를 통해서도 꾸준히 법화신행을 강의하는 일우 스님은 그동안 크고 작은 법회에서 오롯이 한 결같이 강조해온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 책에서 친절하게 인도함으로써 믿음이 삶의 희로애락을 건너는 튼튼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

특히 법화경 사경으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법을 제시하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행 생활을 해야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지 안내한다. 책 구성은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의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 믿음과 가르침, 보살행과 마음의 증득에 이르는 28가지 내용을 담아냈다.

49재는 왜 하는 것일까?

불교에서의 죽음이후, 중음세계와 육도윤회

허암 지음 | 예문서원 펴냄 | 1만 7천원

저자는 말한다. "책 집필 된 동기는 불교신자들이 49재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49재를 왜 하는지, 49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단지 망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위의 말만 듣고 49재를 하는 분이 많았고 게다가 망자를 위해 49재를 지내지만, 육도윤회를 믿지 않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음세계와 육도윤회의 세계를 집필키로 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2개의 장으로 나누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1장에서는 중음세계에서 망자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한다. 더불어 망자가 재판 받는 49일 동안 유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한다. 제2장서는 중음세계 재판에 따라 망자가 가는 곳인 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 인간, 천계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지옥도와 아귀도이다. 경전에서는 지옥 중에 팔열지옥을 136개로 분류해 기술하는데, 이 지옥에는 현생서 어떤 죄를 지은 자가 떨어지며, 이곳에 오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상세히 언급한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아귀를 36종류로 나눠 설명하므로, 36종류의 아귀에 대해서도 본문과 미주를 통해 설명한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도 모집합니다


종정 석능인

●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 총무원장 : 대웅당 혜송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근본교리와 조선불교중흥조 경허선사의 선풍을 이어받은 우각도일선사 법맥으로 종지종풍을 세우고 종정 석능인대종사께서 본 종을 16년전 창종을 하여 많은 종사들을 품계를 품수하였고 품수받은 종사큰스님들이 각 종단을 창건하는 등 불교중흥에 많은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불타 탄생지 네팔 룸비니를 무려 서른 다섯번이나 다녀오면서 한국불교위상을 널리 알리고 2년전에는 룸비니동산 마야데비사원에서 세계최초로 세계불교문화평화축제를 개최하셨습니다.

지금도 네팔, 대만, 태국, 중국 등으로 세계적인법회행사에 초빙되고 있으며 수행자들을 적극 추천하여 불교국가에서 수행 및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본 종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종에서는 종도모집하오니 총본산에 연락을 주시면 등록하는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번지 각황사
행정실 | 053) 325-0400. 팩스 / 053) 325-4848. 문의 / 010-7283-0089
총무원 |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80-1 불광사
선 원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1004-1 홍제선원

건 물 안 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272-27번지
■ 2층 건물 한 채, 한옥기와집 한 채
■ 대지 400평, 전 4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 가액 : 1억 5천 대출안고 3억 현찰 가능함 (조정가능)

■ 위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874-9번지
■ 2,143평 / 창고 1동
■ 바닷가 바로 앞, 평당 14만원 (조정가능)

■ 위치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 세 필지 14,60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조정가능)
■ 사찰, 전원주택, 별장, 여러가지 과수 농장, 약초 재배도 가능

■ 상담전화 : 010-8666-6210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마음 다이어트

〈2〉 통찰력과 지혜가 밝아지는 원리

김대선

의식과 무의식 통합될 때 지혜 완성



지혜를 밝히는 열 가지 힘

명상의 최종 목표는 마음을 비우고 조절하여 중심을 잡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알고 느끼는 깨달음, 즉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밝히는 것일까? 명상 지도자 중에서는 마음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밝아진다는 이들도 있다. 어려워도 꾸준히 훈련하다보면 된다고 하지만 지혜를 얻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혹 지혜를 얻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은 이상 평범한 사람들은 알 길이 없다.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외적으로는 자연과 우주의 순환 원리를 아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자신이 왜 태어났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에는 단계가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지혜를 적극적으로 단계별 훈련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 의 사덕은 단계별로 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여 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율곡 이이는 〈성학집요〉에 성인이 되는 공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 선조 임금이 성인이 되어 조선을 바르게 통치해 주기를 기원하였다. 첫째는 목표 설정이요, 둘째는 극기복례를 통한 인내로 도전해야 한다고 썼다. 동양 사상에는 몸을 사용해서 지혜를 밝혀 도에 이르는 정신적인 작용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10가지 요소로 정리해서 스승에게 배운 적이 있다.

첫째, 뱃심과 생명력을 담당하는 정(精), 신(神), 혼(魂), 백(魄)

둘째, 마음과 교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심(心), 의(意), 지(志)

셋째, 통찰과 지혜 등 사고를 담당하는 사(思), 려(慮), 지(智)

나는 10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화두로 삼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10가지 정신 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자.

정신과 혼백이란 무엇인가? 첫째, 정(精)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나 이것으로 나타난 상태인 몸을 말한다. 즉 몸을 이루는 근본 에너지(기운)이자 힘을 의미한다. 옛말에 '태어날 때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먹을 것은 정, 입을 것은 몸을 의미한다. 둘째, 신(神)은 아버지의 정(정자)과 어머니의 정(난자)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생명력을 말한다. 신은 영(靈)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개성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다. 동백꽃처럼 눈이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코스모스처럼 가을이 되어야 피는 꽃도 있다. 이것은 각각의 꽃이 가지는 생명력이자 개성이다.

셋째, 혼(魂)은 영과 함께 몸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혼은 몸의 근육을 움직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간의 정신적 기능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 간은 피를 통하여 몸의 독소를 빠르게 해독하여 세포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백(魄)은 정(精)이 온몸에 골고루 운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백은 폐와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를 포함하는 기운을 흡수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백(氣魄)은 자신감과 비슷한 의미로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 을 의미하는데 기와 백은 모두 폐의 역할에 해당된다.

정신 혼백은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주는 토대를 제공한다. 줄여서 '정신' 이라고 부른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정은 배터리 용량, 신은 윈도우와 같은 운영프로그램, 혹은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드라이브, 백은 회로를 흐르는 전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마음과 의지란 무엇인가? 첫째, 마음은 심(心)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힘, 주재하는 힘' 을 의미한다. 비슷한 의미로 본성(性)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성은 무의식을 포함한 인간 전체의 마음이고, 개성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신(神), 즉 생명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의(意)는 뜻을 세운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意)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목표를 정하고 결정한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령이나 의지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선택하는 힘, 순발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비슷한 말로 결심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志)는 뜻을 정해서 기억한 의(義)를 오래 간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志)는 오래 버티는 힘인 지구력으로 한결같은 마음인 항심(恒心),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집심(執心), 집념과 비슷한 의미다. 신장과 관련이 잇고, 정력이 강하다는 의미도 일부 포함된다. 감정에 흔들려 뜻을 잘못 세우면 집착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한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지(義志)가 강하다' 고 표현한다. 뜻을 정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인 '심, 의, 지' 는 마음과 연관된 것이다.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기준점을 세우는 것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한다. '나비효과' 는 뜻을 세우고 밀고 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사려와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 사(思)는 지(志)에 근거하여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필요한

명상은 지혜 밝히기 위한 것
지혜 추구에 행동, 실천 중요
행동하지 않으면 정신질환 걸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특별한 무언가를 먼 곳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혜의 출발은 자신을 관찰하고 주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패(百戰不敗)'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둘째, 려(慮)는 사(思)에 근거하여 깊이, 멀리 보는 것이다, 려(慮) 자에는 사(思)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의지(意志)와 사려(思慮)에는 마음 심(心)이 포함되어 있어 마음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함을 기억해야 한다. 려(慮)는 분석력, 추리력, 직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려(慮)는 마음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고 어떤 특징, 공통점,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智)는 말 그대로 지혜를 의미한다. 지(智)는 려(慮)에 근거하여 사물의 변화를 주관하는 힘으로서, 창조와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이는 마음의 뜻을 세우고,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다. 지식과 사려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몸으로 실천하다 보면 앎이 생긴다. 몸의 행동을 통해 지식과 자신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혜로 터득한 것은 필요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특성이 있다.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과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가 들어와 몸을 통해 나가는 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자연의 '순환' 원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 들어오고 나가는 총 에너지는 같다. 이처럼 전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결합 과정을 거쳐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많은 정보를 배출하지 못하면 지식의 비만이 발생하여 생각의 답답증으로 정신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마음과 생각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옛 선인들은 책으로 공부한 뒤 꼭 명상으로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지혜를 밝힌 연후에 벼슬에 나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학자들은 책으로 공부는 하지만 체화시키는 명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먼저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

지혜 통한 통찰력과 각성

사(思)와 려(慮), 지(智)를 합하여 '사고(思考)' 라 한다. 이는 뇌와 관계가 있다. 사람에 따라 기억을 잘하는 뇌, 논리적인 뇌, 분석적인 뇌, 통합적인 뇌 등 타고나거나 발달된 특성에 따라서 기능에 차이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무의식에 의하여 정보를 재구성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균형 잡힌 시각, 즉 '중용' 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명상은 의식 세계를 조절하여 무의식의 힘을 끌어 쓰는 훈련으로 지혜의 완성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지혜는 통찰력과 각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찰력은 사물을 보는 눈이다. 지식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의 사물의 원리를 발견하고 알아내는 것이다. 각성은 현재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 통찰력을 모두 동원해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개선하게 하는 힘이다. 깨어 있음의 최고의 경지는 바로 '각성' 이다.

의식세계 조절로 무의식 이끌어
이러한 명상 통해 지혜 완성돼
'깨달았다' 는 함정 경계해야

자신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평준화시키고 후에 그 둘을 모두 강화시키는 훈련이 명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명상법 중 현재 자신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해야한다. 기초인 호흡을 배우고 익혀 몸과 마음을 맑은 상태로 비우고, 우주의 진공을 구성하는 80%의 암흑 물질처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채울 때 지혜는 칠흑 같이 어두운 밤의 빛나는 등대가 될 수 있다. 태양 빛이 태양계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것은 진공에서 빛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지혜는 비움을 통해 빛나게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인가

매순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명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면이 그러하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명상법 중에 과거의 인연을 뒤로 버리는 것이 있다. 당시에는 따라서 했을 뿐 그 이유를 몰랐었다. 그러다가 명상을 하는 도중 우연히 과거의 경험을 스스로 등에 짊어지고 힘겹게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아픈 추억들을 과거로 돌려보내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가벼워지는 원리를 이해한 것이다.

마음의 중심과 자신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중심(中心)' 이란 마음이 한쪽에 쏠려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개의 한자(漢字)를 하나로 합치면 '충(忠)' 이 된다. 명상에서 말하는 충의 방향은 타인과 조직, 국가가 아닌 자신의 양심, 본성, 불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 정심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마음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힘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연비가 올라가 기름을 구입하는 돈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둘째,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자신의 주관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깨달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현재의 불균형한 상태에서 아는 것과 나중에 정심에 가까워진 균형 상태에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명상에서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인 정심에 온전히 닿아 있지 않은 상태, 즉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전부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겸손과 하심은 명상에 식사와 같이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명상으로 정심인 가운데 원을 찾은 후 확장시켜 가는 것을 의식의 확장 또는 마음의 확장이라고 한다. 이때 남으로 생각했던 사람과 사물들이 자신과 하나 되어 구별이 없게 되는데, 공자는 70살을 종심(從心)으로 표현했음을 기억하자.

명상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했다면 쓸데없는 걱정과 생각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연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 가장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순리에 맡기되 과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2016년 달력 ※





12절(벽걸이형) 달력
100부@1,000원
삼천부 이상@800원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7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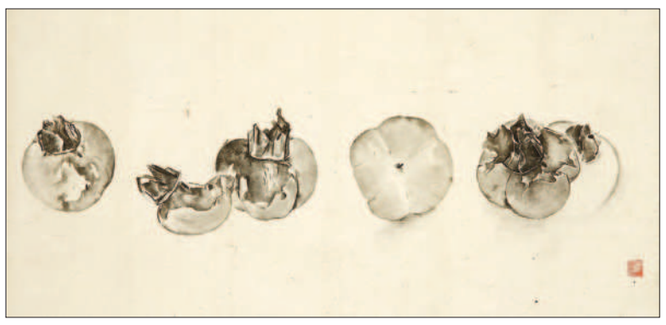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지효 스님

확철대오하기 전에 법상에 오르지 않겠다



스님의 눈빛은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다. 그 모습은 눈이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기보다 내부를 향하여 자신을 보고 있는 심득의 경지이다.



입주기(부분), 88x59cm, 종이에 수묵, 2013. 하늘감(까치밥)은 새들과 교유한다. 그이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자연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오직 한 물건을 향한 스님의 참모습과 방불하다.

사진작가 주명덕 선생님으로부터 관조 스님에 대해 저간의 여러 말씀을 전하며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나는 관조 스님께 전화를 드린 후 부산 범어사로 스님을 찾아뵈었다. 관조 스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 되었지만 이후 입적할 때까지 국내 · 외 여행과 스님의 사진집 출간 그리고 전시개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했다.

첫 만남에서 스님은 은사스님이신 지효 스님의 영정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효 스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기억하기 어렵지만 힘이 있었고 절실한 효심이 묻어 있었다.

"지효 스님은 불교 정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할복으로 조계종의 법통을 지키려 한 분입니다. 우리 스님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당시 할복 후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두 분이 출가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스님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림자에 한 약속조차 철저히 지킬 정도로 내외가 동일한 분이었어요. 스님께서 늘 긴장감과 힘이 들어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시기에 모든 끈을 놓아버린 뒤 자유로움이나 거리낌 없는 소요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스님은 자신의 형태대로 원칙이 가장 편한 분입니다."

나는 관조 스님에게 지효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머물었던 극락전 방으로 안내해 달라 부탁했다. 방 한쪽에 지효 스님 초상화가 기대어 있었다. "이 초상화를 본 대부분의 스님이 지효 스님을 닮지 않았다고 하고 나도 스님의 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김 화백에게 부탁하고자 불렀습니다. 작가에게 이미 재제작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고 작가 또한 김호석이 그린다면 좋겠다면서 동의했으니 불편해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지효 스님의 진영을 그렸던 작가가 저를 추천했다는 사실에 고마웠다. 그렇게 해서 스님의 진영 작업은 시작됐다.

지효 스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선재 스님으로부터 정성스럽게 비닐로 코팅하여 보관한 작은 사진자료를 받아 왔다. 사진을 보면서 스님의 행적과 삶을 생각해 보았다. 스님은 출가 전 의류사업을 하였고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였다. 해방 직전 남한으로 내려 와 출가했다. 평생 선방 수좌로만 사셨다. 법문 한번 한 적이 없고 법상에 올라 설법한 사실도 없다. "참된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확철대오하기 전에 법상에 오르지 않겠다"는 신념을 견지한 철저한 수행승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한줄 글로도 남기지 않았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투철하였고 깨끗하게 살다 정직하게 가셨다.

스님은 불교 정화 때 할복으로 조계종 법통을 지키려 했다. 곧고 강한 성품은 평생 일관했다.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 수행을 마치고 해인사에 내려 와 있을 때 성철 스님의 법문 중 "조계종 법통이 엉망이다"는 말을 듣고 현실의 또 다른 모습에 화가 났다. 가지고 있던 염주로 성철 스님을 내려 쳤고 성철 스님은 주장자로 이를 막았다. 이런 소동 후 두 스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들어간 지 5분도 채 안되어 호방하게 대화하더니 파안대소 하고 나왔다. 원칙주의자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대자유인 이었다. 스님의 속마음은 더욱 넓고 깊었다.

스님에 대한 윤곽이 잡혀 갈 즈음 가장 스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첫 번째 진영 작업은 선재 스님이 건네 준 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관조 스님은 평소 모습과 다른 카메라 왜곡이 있는 모습이라 하였다. 더욱이 의례적 모습이어야

> **스님은 철저한 수행승이었다.**
> **자신의 흔적을 한줄 글로도**
> **남기지 않았다.**
> **자신의 삶에 투철하였고**
> **깨끗하게 살다 정직하게 가셨다.**

할 진영을 반 가사 모습으로 그렸다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버린 그림이 되었다.

두 번째 진영 작업은 전적으로 관조 스님이 건네준 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사진 자료는 많았지만 가장 스님다운 모습이라며 지정해준 상태를 기준으로 했다. 생전에 지효 스님을 뵙지 못한 상태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스님의 여러 모습을 작업실 벽에 붙여 놓고 한 달여 동안 스님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체구에서 오는 특징은 어깨와 등이 굽은 구부정한 자세이다. 인상은 깐깐해 보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형상으로 읽혀졌다. 스님의 얼굴은 길고 피부는 얇다. 최소한의 허영심마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했다.

눈썹은 길고 하얗다. 그러면서 좌우측으로 내려가 신선같이 신비롭고 청초한 기세를 내 뿜는다. 이마는 주름이 여럿 있다. 특히 이마에는 스님의 마음과 다스림, 감정과 사유 그리고 삶의 신호 체계가 드러나 있다. 나는 이마 주름을 통해 스님에 대한 시각 기호를 남기기기로 했다. 눈두덩은 움푹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눈은 작고 가늘다. 눈빛은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다. 그 모습은 눈이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기보다 내부를 향하여 자신을 보고 있는 심득의 경지이다.

코는 시원하게 뻗어 있지만 코 망울은 얇다. 입은 가늘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절제한 삶이 나타나 있다. 유독 입 주변 근육에서 가장 긴장감이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 할 때 입에 힘을 주는 것인데 스님의 모습에서 유독 강렬했다. 말은 짧고 간단하지만 고집이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코 아래로 생긴 주름과 하악골 주변에 생긴 근육을 통해서 짐작했다.

귀는 크고 길다. 양 귓속에는 하얗고 긴 털이 연기처럼 나와 있다. 목에는 주름살이 지난한 구도 행적을 표시하고 있다. 나는 이런 느낌을 살려 지효 스님 진영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작업한 진영은 관조 스님의 배관을 거쳐 범어사에 보내졌다. 이때 관조 스님은 "전신을 그리기 위해 화가 본연의 몫을 다 하였으니 초상화의 특성도, 그림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작가의 진정성과 긴장감 그리고 작품의지가 살아있는 그대로 뜻을 지켜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지효 스님 진영에는 이런 관조 스님과의 스토리가 있다.

나는 최근 현대불교에 연재를 하면서 15여 년 전에 그렸던 지효 스님 진영의 행방을 수소문 해본 결과 극락전 방에 기대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진영에 표현된 지효 스님의 눈이 몽롱하고 초점이 없다. 스님이 이상주의자인 것은 맞는데 너무 멍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 또한 양쪽 턱이 각이 져 있어 사실과 조금 다르게 보인다. 완성한 진영이 몇 살의 스님 모습인지 연대가 잡히지 않는다. 스님의 이미지와 달라 아직 점안을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서울에 올라가 관조 스님이 찍은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는 스님의 눈에서 세상일에 문을 닫아 버린 지 오래된 마음의 눈을 보았다. 스님은 눈을 뜨되 보지 않고, 눈을 감되 어둡지 않는, 오직 자신의 본성에 침잠해 있는 스님의 참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린 그림을 모시지 않고 한쪽 벽에 외로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죄송스럽다. 상좌 스님들 마음에 차지 않는 그림이라면 다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생전 지효 스님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잘 모시고 싶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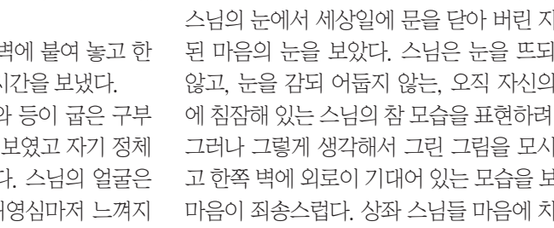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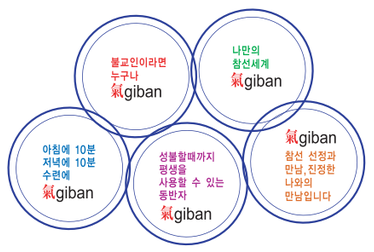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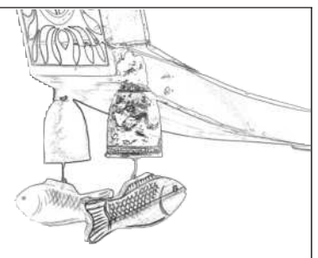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착한 벗을 가까이하면 더욱 선량해지고,
나쁜 벗을 가까이하면 못된 짓만 자라나게 된다.

- 현우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정확한 방편술
한권의 책으로 방편
술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 배우시면서 행사 함께 하실 분 모집
010-3172-1145

미륵불 (대형)
알 림
010-4630-800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고승 비급 전수
책임지도, 바로 친견가능. 기존 사주학 아님
동국대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영혼천도 잘하는 스님
49재, 천도재,
기타의식 대행 (바라,
작법무,살풀이, 회심곡) 이
인연으로 성취하소서
보현사 010-5482-2091

관 상 (손 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손금만봐도어떤질병이있는지한눈에알수있다
암질병산소문제재판가족,교통사고운을알수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은평구 진관동 용암사)
02-387-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0-8559-9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4415-5780

경상남도 신라유형문화재 45호
미륵불
소원성취 기도로
영험합니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강선암)
055-883-3459
010-4116-8418

좋은 인연을 찾는 여성불자입니다
스님께서 외롭게 홀로 계시면서 건강이안좋으셔서 식생활이불편하시고 힘드신분 도와드리겠읍니다. 환자 케어할 수 있는 간병요양보호사자격증 있읍니다. 음식을 잘하며 차량소유자임. 공양주 개념과 무보시는 아닙니다.
010-5276-5982

이름은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주는 인생의 씨앗이요
이름은 인생의 꽃입니다
빛나는 이름, 향기로운 이름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덕인 성명학 (역삼역 6번출구)
02)562-8353
(홈페이지 참조)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 원하는대로 이루는 기도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6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관음수련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임 등등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고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닦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벽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사찰전세7천만원
- 2층법당58㎡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금액 7천만원(양도 가능)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 내 대형 분수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5억(절충)

010-8988-341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부지:70평 ◎ 면적:130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외전각:4채
◎ 요사:60평 ◎ 차량진입, 경관양호
◎ 양도:9억5천 ◎ 양도:15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제천시 포교사찰 급 양도
* 법당48.7㎡, 한옥요사채59㎡, 토지25㎡
* 제천시시장부근사찰.포교사찰적당함
* 양도가 : 1억6천만(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음성IC 3분
- 부지 1,187평, 법당 39평
  삼선각 5평, 용왕단 7평
- 요사채 60평, 법회즉시 가능
- 법당 미등기
- 산세가 수려하고 정원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음
- 가액: 7억 (조절 가능)

010-3708-173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관음전,종각, 요사채
- 방총13칸,공양간,창고,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건물 총13동
- 대형버스 5대주차장,
  소형차주차장 20대 등
- 가액 : 3억 9천만원(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7번지 태진빌딩 4층
- 총 실평수 120평, 대법당,
  일체 시설은 최상임.
- 100% 시설완벽
  일체 양도해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급 양도 일단 오셔서 눈으로 보세요

010-4010-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총 1.250평
- 법당 30평
- 요사 3동 75평
- 가액 : 2억원

011-370-590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암자 임대 및 안내
- 위치 :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지리산 입구 청정 기도 도량
- 법당 1칸, 방사구들방 1칸
- 공양간, 해우소 현대식
-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
- 가액 : 1억 3천, 임대 5천만원
- 양도시 절충가능, 암자옆 계곡 있음
- 방향 정남향 기도하며
  수행하실 분 최적지

010-7702-629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안
- 2층, 삼존불, 소불 108불,
  아담한 법당
- 평수 20평, 시설일체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삼십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3101-1151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 평수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2칸, 화장실, 옥상사용가능
- 1층 공양실 20평,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능)

010-4858-5377

사찰싸게(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9평, 법당 23평 조립식
- 주택-한옥 및 양옥 35평
- 지하암반수 50미터, 수목, 담장, 대문
- 가액 : 2억 2천
- 2016년 복선 전철개통(상반기)
  남이천 IC개통 2015년 말
- 비구니 수행도량 최고, 시내 5분거리(자가용)

010-2813-1381
010-3194-37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 가능, 터는 도깨비터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감전시장 옆
  새벽시장과 감전시장이 바로
  인접한 유동인구 많은 대로변
- 명리공부하신 스님 최적!
- 평수: 38평, 3층 건물 3층
- 법당:삼존불,약사불,신중,영단
  후불 금탱화,친견실,방,공양간,소형창고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7236-1808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도보 3분거리
- 교통 주차 좋음
- 125평, 2층, 3층 조립식
- 가액 : 2억 7천(조정가)
  대출 1억 2천(승계가능)

010-9150-8633

포교원임대
- 위치 : 김해지역
- 평수 : 약 50평
-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하기
  좋은 곳(불교대학가)
- 가전집기 일체
- 가액 :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
  시설A급

010-2610-9997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 법당 약 90평 3층(시설완벽)
- 보증금 전세금 3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 두번째조건 (몸만오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40만원/ 호조건임
- 노스님 건강상 부득히 양도함

010-3750-5424
02)826-640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과 교통요충지
- 평수 35평 3층 건물, 방1, 주방1, 옥상 30평 이용가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탱화
  영가단 및 앰프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주방, 집기일체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몸만오시면 됨
- 소임 관계로 부득이 양도코저 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
  시설비 2,200만원 보시면 깜놀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성군 의성 IC 5분이내
- 대지 235평, 주차장 10대주차,
  채전밭 약 300평(국유지)
- 법당 : 삼성각,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30년된 아담한 사찰
- 가액 : 1억 5천만원(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스님 건강상 문제로 안내

054)832-6567
011-522-6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양지IC 20분거리
- 땅 3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
- 심야전기, 상수도
- 가액 : 4억5천만원

010-8564-6155
오전 11시, 오후 9시 전화요망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옥과 설산
  기암괴석사자형상, 적송림
  옥과 톨게이트 5㎞
- 산: 1만2천평, 종교부지650평
- 약사석불12자(血사리봉안)
- 건물 : 조립식건물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 가액 : 3억7천, 차진입가함

010-8224-1688

좋은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 종교부지 160평, 대웅전 25평,
  전110평
- 스님방, 공양주방, 삼존불,
  각단탱화(소불)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4천 안고(2억1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010-8826-83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243-4번지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포교원 임대
- 위치: 안산 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고, 포교원 운영으로 최적지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 좋고, 일체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실평수 60평
- 법당, 상담실, 요사채, 다용도 공간, 주방,욕실,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 90만원
  시설비 3,300만원(상담시 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 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옥상활용(기도, 행사) 너무 좋음
- 현대 원활히 운영중이며, 불사관계로 소임을 맡아 급하게 내놓습니다

010-5913-7239 일연스님
010-3145-8626 종무소

친환경 삼베타올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 3층 법당 35평 삼존불
- 요사, 공양간, 화장실 등
  15년간 운영 급양도
- 보증금 : 천만원
  시설비 천만원

010-6616-00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영천 IC 5분
  2차선접
- 법당 30평
- 부처님 진신 사리탑 5층
- 공양실 + 주방 20평
- 요사채 50평, 저온창고 4평
- 가액 : 7억 5천만원

010-7429-444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5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사 찰 안 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서울시 노원구, 건평: 40평중
- 4층 : 법당, 5층 : 요사채
- 보증금 : 2,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 협의후 절충 가능
- 주변이 산과 아파트 단지로
  20여년 운영중입니다

010-5237-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내요지
- 평수: 50평
- 3층건물중 1층, 부처님5존불,
  법당장엄함, 쑥찜질방2칸,
  쪽방2칸, 큰 거실 있음
- 전세 8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576-11번지
  부산 온천장 중심
- 3층 약 50평
- 삼존불에 모든시설 완벽
  모든시설 완벽 최상, 방2개
- 시설비는 거의 없음
- 직접 만나서 절충,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월세50만원

010-4010-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남포5가88번지
- 5층 건물 중 4층 150평
- 원불 380불, 상단 아미타,
  관세음, 지장
- 신중단(인등), 영단, 강의실 등, 단청
- 사진 전송 가능
- 가액 : 전세3천만(변경가능)
  월세 250만원
  시설비 7천만원(특A급)

010-4564-4428

사 찰 안 내
- 위치: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공유지 포함 약 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행도량으로 최적지
- 가액:1억 6천5백만원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포함)

010-3895-2258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5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울산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30평
- 삼존불:아미타불.관세음.
  지장보살.관음.지장보살.소불60불
  후불탱화.미타.관음.신중.칠성.산신
- 현재법회도량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558-90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8천만원
  (대출 2억8천 안고 매매금액 3억)

010-5019-5385

사찰(급)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교당 35평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격 : 보증금 300백, 월50만
  보증금 포함 1천 5백만원
  방문 후 가격절충
- 은사스님노환으로 인해 급 안내
-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9071-60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불자 세상보기

진정한 광복… 통일의 '그날'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합창.

2015년 8월 15일 KBS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축제를 여는데, 그 주제가 '나는 대한민국' 이다. 가슴 뿌듯한 구호다. 마치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듯 외치는 그 소리를 듣노라면 힘과 충만감이 솟는다.

'나는 대한민국' 은 곧 '대한민국은 나' 이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이 말을 불교 화엄의 '일즉일체' (一卽一切)로 풀어본다. 만유의 하나 하나 실체는 차별적 존재 같지만 모두 절대적이면서도 만유와 서로 융통한다. 마치 한방울의 바닷물에서 큰 바닷물의 짠맛을 알 수 있듯이.

국민대합창은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전국 곳곳의 지역 합창단이 함께한다.

해방둥이들로 구성된 '1945년 합창단' 은 가수 이선희의 지휘아래 연습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얼굴인 70 노인들이 사뭇 열정적이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아침 합창단' 을 꾸렸다. 노련미 넘치고 익살스러운 가수 조영남이 지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이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높고 낮은 음이 듣기좋게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가고 있다.

전국의 지역 합창단들도 국민대합창 축제 참가를 위해 땀 흘리며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노라면 감동과 환희가 일렁인다. 가슴이 저려온다. 저토록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하면서도 순수한 우리민족이 어쩌다 36년간 그 수난을 겪어야 했는가.

국민대합창이 서울에서 울려 퍼질때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이 될 것이다.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어울리는 국민대합창의 '화음' , 그것은 화합이고 소통이고 결집이고 통합이다.

2015년 8월 15일 이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도덕한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다. 우리사회의 비리나 부조리가 광복 70년 8월 15일 이전과 다를바 없다면 국민대합창은 무의미해진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는 대한민국' 이라고 떳떳하게 외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하는일, 즉 업이 다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해야할 공업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다.

광복 70년 8월 15일, 우리국민은 통일의 '그날' 을 위해 결단하여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외침을 극복하거나 통일이 완성될 때는 언제나 국민의 절개있는 단결과 철저한 애국심의 충절정신, 신의와 도의가 중심이 되었다.

오늘의 우리는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조선의 멸망과 일제 36년의 능욕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반면의 교훈이다. 임진왜란을 다룬 드라마 〈징비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류성룡은 혼자 길을 걸으며 이렇게 독백한다. "훗날 이 길을 걷는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오늘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길을 무심히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까."

〈징비록〉의 징비는 〈시경〉에서 유래된 말로 과거를 징계하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말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는 법이다.

한반도의 한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족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로 5천년을 굳세게 이어왔다. 그러나 일제 식민통치의 비극, 그리고 외세에 의한 독립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적으로 두개의 한국이 되고 말았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민족으로 두개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인륜에도 벗어난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민족의 숙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통일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의 길은 혼자가는 길이 아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가 굳건해야 한다.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북핵을 극복할 수 있는 국방력과 경제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내부가 공고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남 · 남갈등은 통일대비에 깊은 관련이 있다. 원래 외부 갈등보다 내부 갈등이 더 위험하고 해결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거나 위태로워진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위해 자강(自强)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강은 국민적 구심사상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곧 전통윤리의 재발견이다. 한민족에게는 홍익인간의 기본 정신이 있다. 넓게 백성을 이익되게 하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사상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교육으로 지향해야 한다.

통일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분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곧 분단의 고착화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증진, 그것은 국민적 교육뿐이다. 남북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 이 바로 진정한 한반도 광복의 날이 될 것이다.

발언대

불교 역사 지우고 가톨릭 성지화라니…



허정 스님
서산 천장사 주지

지난해 교황 방문 이후 서산시는 그 후속작업을 위해 19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예산을 문광부에 신청해놓고 국회의 승낙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계획에는 주변 논 6000평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도 있으며, 舊해미초등학교에 교황기념관을 짓는 계획도 있다.

가톨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가 성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순교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고 성지로 불리우고 있다.

국토의 '성지화' 작업은 1600년 역사를 가진 불교 및 여타 종교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경기도 광주 천진암은 가톨릭 성지로 바뀐지 오래며 동학 창시자인 최제우가 처형된 대구 관덕정의 가톨릭 성지 '관덕정 순교기념관' 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국가톨릭의 성지화 작업은 땅에 새겨진 타종교의 흔적에 가톨릭의 순교사로 '덮어쓰기' 를 하고 있다. 가톨릭의 '나의 역사 만들기' 가 결과적으로는 '남의 역사 지우기' 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은 마을과 이웃한 평지에 축조되어 있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미읍성은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공동체 회복의 장소, 종교화합의 장소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무리 종교 안에서의 일이라고 변명한다해도 가톨릭이 겉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웃 종교와의 소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종교의 사찰을 빼앗고 다른 전통의 역사와 문화를 짓밟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톨릭인의 선량한 웃음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비판을 하고 불상을 훼손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될 뿐이다.

첫째 해미읍성은 공동체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광장이다. 읍성은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왜구를 지키는 역사의 현장이며 연등축제, 연날리기, 활쏘기와 같은 민속놀이와 민속공예가 펼쳐지는 체험의 현장이다.

둘째 해미읍성은 종교화합의 장소로 사용돼야 한다. 해미읍성 동서남북에는 해미읍성과 같은 역사를 가진 돌로 만든 미륵불이 사방비보(四方裨補)로 세워져 있다. 해미읍성이 도선(道詵)국사가 불교의 밀교(密敎)를 바탕으로 체계화한 비보풍수(裨補風水)의 원리에 의해서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그중에 동쪽 산수리 미륵은 30년전 잃어버렸는데 금년에 호암미술관 정원에 있다는 제보가 있어 마을 주민들과 불교계는 산수리 미륵을 찾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해미읍성은 유교의 흔적도 많다. 이렇게 불교와 가톨릭과 유교의 흔적이 중첩되는 해미읍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가 만나게 되는 소통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2000년 '쇄신과 화해' 라는 참회의식에서 다른 종교가 지닌 정신 문화적 가치와 사회 윤리적 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도 고백한 바 있다. 이 고백이 국민과 타종교인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어야 한다.

불교도 불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있는 것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제가 제안한 해미읍성의 이용방향은 우리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관점에서 드린 말씀이고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서 올린 글이다. 잘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공존과 평화의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이 글은 허정 스님이 가톨릭 대전교구 유흥식 교구장에게 보낸 편지글을 일부 발췌 · 정리했습니다.

社說

불교 근대문화재 지정 관심가져야

지난 7월 24일 용성 스님이 선농일치의 불교운동을 펼쳤던 '화과원(華果院)' 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용성 스님의 상해임시정부 자금지원시설인 함양 백운산 '화과원' 의 국가사적 추진을 선포했다.

함양군에서 발간한 〈함양문화대전〉에는 건물 16동에 스님 수십명이 기거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용성 스님이 거주했던 곳에 전각 1채만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화과원의 경우도 다른 독립운동 관련 근대문화재 현황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대문화재 등록 건수는 648건. 이중 불교관련 근대문화재는 총 30건으로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458호), '구리 한용운 묘소' (51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629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630호) 등 8개 정도다. 범위를 넓혀도 11건에 불과하다. 이중 용성 스님 관련 유물이 50%를 넘는다.

문도들이 현재 불교계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용성문도회와 선양사업을 진행 중인 경허 · 만공 선양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문도들의 관심에서 빗겨간 곳은 보존관리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 만당비밀결사를 조직해 독립군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우봉 스님의 경우 근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국가유공자 서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료 수집 발굴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불교 근대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근대 불교계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방치한다면 결국 스스로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근대문화재와 인물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고취되길 기대해본다.

해미읍성 천주교 성지화 막아야 한다

서산 · 당진 불교계가 요즈음 뿔이 단단히 났다. 교황 방문 1주년을 맞아 해미읍성 일대에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너무 한다는 생각에 서산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이 7월 20일 가톨릭 대전교구 유흥식 교구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자신의 종교 역사 부각을 위해 다른 역사를 지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였다.

허정 스님은 편지를 통해 성지화 작업이란 명목으로 땅에 새겨진 타종교 흔적에 천주교 순교지로 '덮어쓰기' 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역사 만들기' 가 '남의 역사 지우기' 가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읍성은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지킨 역사 현장이다. 해미읍성 역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해미읍성은 가톨릭 박해 현장이지만,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시대에 축조 돼 유교 흔적도 많다.

또한 읍성 동서남북에는 돌로 만든 미륵불이 사방비보(四方裨補)로 세워져 있다.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의 흔적이 중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곳이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공동체 회복의 장소, 종교화합의 장소로 꾸며져야 한다. 불교 사찰이 가톨릭 성지로 변하는 경우는 수차례 있었다.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어사가 대표적 사례다.

천진암은 이제 가톨릭 발상 관련 사적지로, 주어사는 가톨릭 강학처로 변신하고 있다. 주어사의 경우 용주사 신도회가 나서서 성지화를 저지 중이다.

이 같은 가톨릭 성지화를 막기위해서는 지역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종단차원서 큰 관심을 갖고 근현대 사지 연구 조직을 만들어 발굴해내는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현사
• 주 지 : 보현 (최완옥)
• 주 소 : 서울 관악구 대학동 251-47호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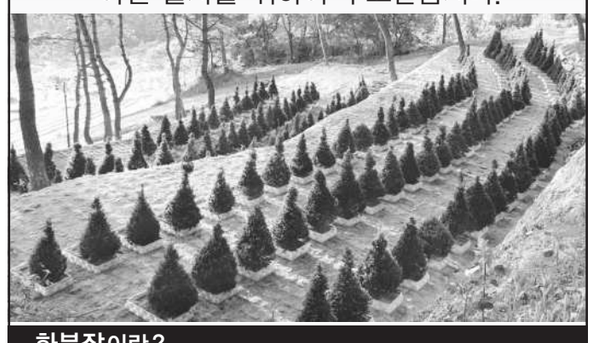
국제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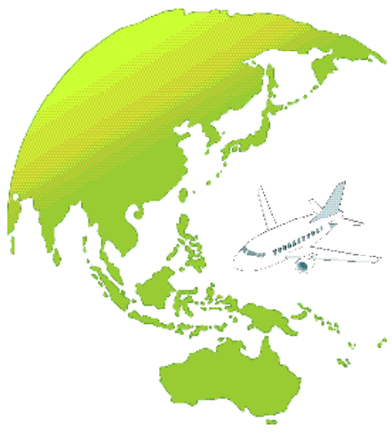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심전 정병문 교수의 통변완결
핵심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가오는 우리네 인생의 길흉화복에 각자의 이정표를 찍어가며 운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학현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핵심 위주의 사주해법으로 명쾌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실전 및 통변 강의 입니다.
– 사주명리 공부를 하였으나 통변에 자신이 없는 분
–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부가 부족하신 분
– 철학관, 사주카페 개업을 준비 중이신 분
■ 강 사 : 심전 정병문 교수 (010-4714-6767)
■ 개 강 : 2015년 9월 2일 수요일 2시 개강 (주1회 3시간 교육)
■ 수강료 : 2015년도 2학기 등록금 30만원 (한학기분)
■ 특 전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칙에 의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장학금 지급(등록금 할인 혜택 부여)
※1주 1강 3시간이며 『핵심사주 명리학』 저자 심전 정병문 직강입니다.

제1강	생극제화의 원리	제2강	합충형파해
제3,4강	용신과 격국	제5,6,7,8강	간지 체성
제9,10,11,12,13,14,15,16강	육친 통변 완결		

무료공개강의 2015년 8월 27일(목) 2시 ~ 5시
(본관302호강의실 – 공개강의 수강후 등록하시는 분 모두에게 저서 『핵심사주 명리학』 (상원사 간 30,000원) 1권씩 무료증정
수강신청 및 문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8길 60 (성북동) TEL 02)3668-9890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에서
버 스 : 1111,2112번으로 환승 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하차 정류장 바로 앞 동방아구찜과 손칼국수 사이 골목으로 200M 정도 도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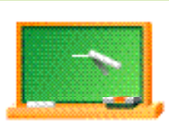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저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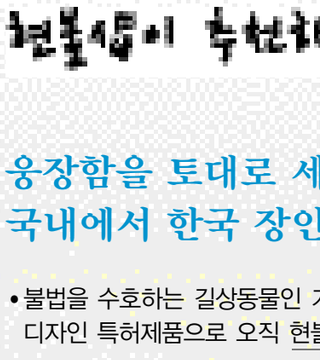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혜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현불샵에 독점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통일·근대 연구·전법… 미래 불교의 숙제

제언 – 미래 불교

올해는 광복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무수한 파고를 넘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해방공간에서부터 2015년 현재까지 행정, 포교,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과제들도 적지 않다. 본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부대중에게 불교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정리=신성민 · 노덕현 · 정혜숙 기자



원경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광복이면서 남북분단 시작이기도
민족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통일'
수행자도 '통일' 화두로 참구해야



정목 스님
서울 정각사 주지

현대인 정신적 고통, 불교로 치유
첨단 기술 다루는 불교 인재 양성
포교 콘텐츠 개발에 역량 집중해야

진정한 광복은 '통일'

올해 201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한 남과 북이 분단이 된지 70년이 되는 슬픈 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원로의원 원경 스님은 "광복을 이끈 독립지사들의 피땀어린 노력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꾸었기에 가능했다"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분단된 이 조국 아래서 광복을 기뻐할 수 있는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광복 이후 곧바로 진행된 분단으로 인해 그 트라우마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치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경 스님은 "광복 당시 우리나라는 남측은 미국이, 북측은 소련이 원하는 체제가 들어서 결국 분단되고야 말았다. 광복은 기쁘게도 찾아왔지만 또 다시 우리 민족이 외세의 힘에 의해 좌우된 서글픈 역사"라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로지 통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경 스님은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을 창설하고 해방 후 남조선노동당을 이끌다 1956년 북에서 김정일에 의해 처형당한 박헌영(1900~1956)의 아들이다. 박헌영은 1941년 일제 검거를 피해 숨어있던 시절 원경 스님을 낳았다.

원경 스님은 광복 70년을 맞아 희망 섞인 진단도 내놓았다. 그 근간에는 조석예불에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스님들의 모습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불교계 통일운동가들, 그리고 독립운동관련 조명운동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스님은 "모든 예불에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데 이제는 이런 발원에서 더 나아가 진정으로 광복 이후 이어져 온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당시 선지식들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수행자들은 수행정신에 근간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참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근현대 불교사 관심 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불교계는 '호국불교'라는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국제화시대에 접어든 지금,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퇴보하는 듯하여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 불교계는 해방 전후 불교계 민족투사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자료를 발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광복70년 8.15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실제, 스님이 원장을 맡고 있는 대각사상연구원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연구함과 동시에 근현대 불교사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광복 70년을 맞이한 지금 뒤돌아보면 과거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며 "독립 운동할 때의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위원이기도 한 보광 스님은 특히 광복 당시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계에는 수백년된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지 100년 남짓한 근대문화재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근대문화재는 우리 역사의 질곡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물이 될 것이다. 근대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한국불교의 연구는 신라와 고려시대 연구에 집중돼 있다. 우리시대와 함께 숨쉬는 근현대 불교에 대한 연구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동국대 불교대학에도 근현대를 전공하는 교수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해 한국불교계는 대승불교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밝혔다.

"한국불교는 전통적인 대승불교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의 안거문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일본과 중국불교 조차 가지지 못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광복 70년을 맞은 불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불교, 시대에 맞는 포교를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은 항상 대중을 접하는 강사인 만큼 포교에 대한 제언을 쏟았다. 시대 안에 흐르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늘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불교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교의 포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IT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물질의 발전에 비해 현대인 정신적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 고유의 치유 콘텐츠들로 극복해 나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적인 테크놀로지들을 불교 포교에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고 낡은 습관과 규격화된 형식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출재가에 상관없이 인재 불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포교법에 묶이지 말고 범종교적인 공감과 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포교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는 이미 대중들을 지혜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다 보니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불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불교의 정신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중들 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된장, 고추장이 고유의 음식이지만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맞게 새롭게 개발되는 것처럼 우리의 포교 방식도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목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녹아든 포교 콘텐츠 개발에 불교계가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재차 강조했다.

"진정한 독립은 개개인의 심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불교의 색을 강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녹아든 내용인 동시에 대중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곧 개개인의 불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대중간의 소통 시급하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과제로 '소통'을 꼽았다. 소통의 대상은 바로 대중이다. 한 교수가 분류한 대중은 출가자와 재가자, 그리고 학자로 나뉜다. 일명 '3부 대중'이다.

"예전에는 출가 스님들이 불교 지식을 담당하고 대중들을 교화했지만, 지금은 학자층이 따로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문제는 서로가 전혀 다른 관심과 다른 논의점을 가지고 있어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의 형국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스님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으로 화두 참선이라는 좁은 문을 대중들에게 권하고 있고, 학자들은 자신들만의 학문적 관심에만 치우쳐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일반 신도들도 자신들의 생활에 치우쳐 불교의 가르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출가자와 학자가 제대로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과제도 많겠지만 제 생각엔 한국불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중 그룹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근대 100년 역사를 생각해 보면 21세기의 불교의 화두는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이 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대중 간 소통의 부재를 타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양질의 인재 출가 이뤄져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계가 광복 70년 이후 괄목할만 한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사찰이나 불자 인구는 양적으로 발전했고, 종단 내 각종 제도들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지식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스님 그룹은 퇴보했다고 진단했다.

"예전에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존경을 받았는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스님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행력을 겸비한 스님과 대중 인지도가 높은 스님들 사이의 갭이 크다고 봅니다. 포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뒤처지는 부분도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양적 증가를 이룬 불교지만,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사회적 인재를 출가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 불교가 억압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던 것은 뛰어난 인재가 출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사명, 신미 스님 등은 모두 세속의 학문을 뛰어넘는 선지식들이었습니다. 세속의 사람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엘리트 그룹의 출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질의 인재가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스님이 포교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불교는 역량이 있는 스님들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소임을 맞기도 어렵고, 종단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전면에 활동할 수 있는 내부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부 풍토가 완성돼야 포교도 인재 출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

민족·국가 개념 퇴보 안타까워
불교 독립운동가 발굴·조명 필요
근대문화재도 중요… 인식 바꿔야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출가, 재가, 학자들 동상이몽
서로의 관심사 논의점 확연히 달라
불교, 내부 구성 대중 소통 나서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불교 각종 행정·제도 훌륭히 안착
지도자 스님 그룹은 예전보다 퇴보
양적 발전보다 질적 발전 꾀할 때

선학원은 제2정화운동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견인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 학 원

이 사 장 법진
총무이사 송운
교무이사 한북
재무이사 정덕 스님 外 임직원 일동



■ 신규사찰 등록 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2동 206호(경운동, 운현궁 SK허브) ☎ 02)734-9654~6 | 팩스 02)734-3410

“日 진정한 참회가 한일 관계 해법”

특별 인터뷰 – 이치노헤 쇼코(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은 진정한 한일 불교 교류를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다. 2012년 군산 동국사에 ‘참사문비’를 건립했고, 일본 조동종이 2차대전 당시 어떻게 전쟁에 동조했고,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정책에 조력했는지를 기술한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오는 8월 15일 동국사에 건립되는 ‘평화의 소녀상’에 기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3년만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치노헤 스님은 이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이뤄질 담화도 “반성정도가 담긴 개인적 의견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징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역사를 바라봐라”라고 일본 정부에게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한국의 우파는 전후 배상 문제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당시는 할머니들이 슬픔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일 불교가 표피적 교류에 머무는 이유로는 일본 불교의 진정한 참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으며, 과거사 정리 역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E-메일로 이뤄진 이치노헤 스님과의 일문일답. 번역은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도움을 줬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 스님은 … 1949년 아오모리현 출생으로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대학원 영미문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아오모리현(青森縣) 운쇼지(雲祥寺) · 주지이자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동지회) 회장이다. 이밖에도 원죄 ‘사야마(狭山) 사건을 생각하는 시민집회’ 실행위원, ‘인권 · 평화 · 환경’ 운동단체 ‘촉광(燭光)’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가 있다.

스님과 인터뷰를 하게 된지 꼬박 3년(2012년 8월)이 됐다. 근황이 궁금하다.

2012년 군산 동국사에 ‘참사문비’를 건립한 이래 진정한 한일 불교 교류를 목표로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매월 방한해 일제 강점기의 일본 불교 사원 유적 조사, 동국사 지원 활동과 한국 불교 관계자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과는 매일 1~2회 E-메일로 연락하고 있으며, ‘민족사’ 윤재승 사장과 류정길 전 에코붓다 공동 대표들과 서울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김춘호 교수와 교류를 하고 있다.

올해 8월15일 오픈 예정인 ‘대구 위안부 박물관’에 자료 기증 및 일제시대의 일본 조동종 사원 유적을 조사했다.

지난 3년여 간의 일본 내부 정서의 변화가 있었는가? 한국은 일본이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

2013년 4월 졸저가 〈조선 침략 참회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출간됐다. 서울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참가자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당시 “정치인은 항상 지지율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아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동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평화 헌법을 무시한 미일 안보 법안 처리, 군함도(軍鑑島) 유네스코 등록에 있어서 한국 입장을 제외했다. 현재 일본은 다수 여당을 배경으로 분명히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우경화’를 우려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다수의 학자와 시민이 나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첨언하자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빈번히 행해지던 ‘혐한(嫌韓)’ 데모는 현재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 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가 배경에 있다. 그 뒤에는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일 관계는 경색 일로를 걷고 있다. 근본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일 양국이 식민지 시대의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일본에서는 “도대체 몇번 사과해야 되는가”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박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악행을 일본이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부분은 독일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죄와 참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참회는 절대적이다. 일본의 참회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종교다. 경제적 손익에 머물러서는 진정한 참회는 결코 할 수 없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려면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을 바라는 불교의 힘이 꼭 필요하다.

최근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군함도의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동아시아의 비극 대부분이 일본의 근대화에 의해 초래됐다. ‘과거의 역사’는 ‘청산’이 아니라 항상 ‘과거’를 인식하여 검증하고 반성하는 입장에 서서 올바른 길을 가야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만남의 장소다.

일본의 근대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그 정점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었다.

한국인 강제 징용의 현장인 군함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돼야 한다는 일본의 견해는 자신의 근대화가 내포하는 어두운 면을 속이는 행위다. 여기에서도 독일의 전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우슈비츠가 등에 짊어질(負) 세계 유산이 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 일본이 군함도의 한국인 강제 징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유적은 유네스코 등록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강제 징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궤변이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역사를 마주하길 바란다. 잘못된 과거사를 피해서는 안된다. 그 벽이 높고 두꺼워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독일이 전후 유럽 국가에서 좋게 평가된 것은 깊은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최근 조선인 위안부 소녀상을 동국사에 건립하는 기금을 쾌척했다.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 가져온 큰 비극 중 하나다. “어느 나라든 전쟁에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 만이 아니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옆 사람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부정을 해도 괜찮다는 완전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위안부 제도를 마련한 국가나 개개인이 그 악행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의 일부 우파는 전후 배상 문제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당시는 할머니들이 슬픔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다. 인권 문제에 시효는 없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나는 이런 이유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되는 ‘수요 시위’에 참여했고, ‘나눔의 집’도 방문했다. 또한 일본에서 개최되는 증언회에서도 할머니들의 비통한 호소를 들었다. 배울수록 전쟁이 가져다 준 비극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올해 8월 15일 군산 동국사에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 ‘동국사 지원회’ 회원들이 동상 건립 기금을 실시 일반 모아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소녀상 동상 건립에 일본인이 동참한 것은 세계에서 첫 사례라고 생각한다.

작은 동상이지만 처음으로 한일 민간 협력에 의해 건립되는 소녀상은 앞으로 한일 관계 방향 설정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 아베 총리가 준비 중인 전후 70년 담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사죄’를 빼고 ‘반성’만을 담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담화에 대해 지금 아베 총리는 다른 길로 빠지는 것 같다. ‘반성’은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 이것도 대외적으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총리의 개인 견해로 발표할 것이다. 즉, 비공식적인 개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담화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불협화음도 만들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자신의 견해를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 향후 큰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과 일본불교가 2차 대전 당시 다른 나라를 어떻게 식민화하려 했는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발굴한 사실이 있는가.

방한 때마다 기회가 되면 일본 조동종 사원 유적과 강점기 시설물을 조사하고 있다. 6월에는 종걸 스님의 안내로 목포에 소재한 조계종 정광정혜원을 방문했다. 이 사찰은 1918년에 도현(道賢)이 창립했으며, 경내에는 창립 기념비도 남아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 조동종을 기억하는 역사 검증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는 10월 2일 동국대에서 발표할 논문도 작성 중이다. 한일불교문화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다. 논문 주제는 ‘다카하시 죽미가 본 조동종의 전쟁(高橋竹迷に見る曹洞宗の戰爭)’이다. 다카하시 죽미는 패전 이전의 일본 조동종 승려이고, 한시 전문가였다. 그는 중일 전쟁기인 1938년 〈응용전시인도법어(應用戰時引導法語)〉를 출판했다. 이 법어집에서는 장례식에서 사용할 법어로 전사자를 애도하기 위한 한시 25편이 수록돼 있으며, 전국의 조동종 사원에서 전사자의 장례를 집행할 때 이용됐다. 이를 분석해 전시(戰時) 일본 조동종이 어떻게 전쟁을 미화하고, 또한 병사를 재생산했는지 밝히려고 한다.

현재 다카하시 죽미는 조동종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를 발굴해 일본 조동종이 범한 잘못을 기록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불교적 활동을 재현하지 않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대부분은 스님의 종단인 조동종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다. 어려운 점은 없는가.

2012년 동국사 경내에 ‘참사문비’를 건립할 당시 일본 조동종과 우익으로부터 비난과 중상모략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저의 활동을 잘 이해하는 승려들이 집행부에 취임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 기부에 대해 한국발 보도가 일본에도 알려졌고 이에 우익계 주간지〈주간 신조(週刊新潮)〉가 7월호를 통해 사실 무근의 거짓말 기사를 실었다. 그것을 읽은 사람이 나를 ‘재일 한국인 승려’로 오인해 “재일한국인 사업에 협력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오기도 했다. 헌데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니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교류가 표피적이다.

현재 공식적인 한일 불교 교류는 주로 한일불교교류협의회가 실시하고 있지만 표면적 교류에 그치고 있다. 2009년 신륵사에 건립 ‘인류 화합 공생 기원비’가 그 전형이다. 비의 뒷면에 새겨진 문구는 불교로서의 참회가 없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수준의 교류는 한일 불교계에 큰 온도차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불교교류대회 개회 법회에서는 공양탑에 ‘영령(英靈)’이란 문자가 사용됐다. 일본에서 ‘영령’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칭호로 바로 야스쿠니 황국 사관 그 자체다. 한국의 받은 상처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일본불교의 방만함이 엿보였다.

한일 불교 교류는 참회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웃는 얼굴로 인사해도 무의미한 일이다.

또한 불교는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일본 불교계는 70년 전 패전의 상처가 너무 깊고,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활기를 잃었으며, “정치와는 관계 없다”면서도 국가를 추종하고 있다.

일본 불교계는 다시 불교 정신의 원점으로 돌아가, 한일 불교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양국의 원만한 관계 형성은 이렇게 실현될 것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다. 이를 맞아 한일 양국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해야겠는가.

전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85세 이상으로,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697만 명(2014년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6%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전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쟁 경험이 없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 전쟁의 배경에는 경제가 있다. 전쟁에서 소리 높여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전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벤자민 프랑클린은 “지금까지 좋은 전쟁, 나쁜 평화는 결코 없었다.(There never was a good war or a bad peace)”고 말했다.

현재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군비(軍費)가 팽창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동시에 불교라는 공통된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 이 같은 아이러니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일본이 참회할 용기를 분발시켜 진정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광복 70년
불교 70대 뉴스

불교 현대화… 분야 마다 '日新又日新'



올해 5월 15~17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메인 행사인 간화선 무차법회에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30만 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한국불교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1994년 개혁회의의 현판식 모습. 1994년 개혁은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의 현재가 있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2013년 9월 9일 탄자니아 아름다운동행 농업고등학교 기공식. 불교계는 해외구호에도 매진 중이다.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아이들. 2002년 시행된 템플스테이는 현재 한국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1945년 8월15일 오후 2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 항복 선언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한국에게 광복의 기쁨과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줬다.

해방공간 안에서 불교는 일제 청산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1945년 8월 20일 곧바로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했고 9월22일과 23일 열린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사찰령과 31본말사법을 폐지키로 결의했다.

당시 불교계는 일제 청산을 통한 개혁과 함께 한국불교 전통성과 수행 가풍을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1946년 10월 해인사에 가야총림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100명의 수행자들이 모였다.

1947년에는 현대불교사의 족적을 남긴 봉암사 결사가 시작된다. 성철, 청담, 자운 스님 등은 문경 봉암사에서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공주(共住)규약'을 정하고 이를 따라 실천하는 스님들만 방부를 같이 정진했다. 처음은 성철, 자운, 보문, 우봉, 청담 스님으로 시작해 향곡, 월산, 혜암, 법전, 성수, 종수, 지관 스님 등 20여 명으로 늘었고, 비구니 묘엄, 묘찬, 지영, 재영 스님 등은 백련암에서 참여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민족 상잔의 6.25전쟁이 끝나면서 불교는 '정화'라는 큰 격랑을 맞이한다.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처승을 축출하라는 불교정화 지지 담화가 발표되며 정화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기까지 약 8년에 걸쳐 진행된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 전국비구승대회가 개최되고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만들려는 종헌 제정, 공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응적인 교단의 다수 구성원인 대처승들은 이같은 정화에 반대했다.

1960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이뤄지고 군사 정부가 만들어진다. 당시 정부는 불교가 자율적으로 교단을 재건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비구, 대처 양측은 합의를 이뤄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다. 하지만 종회의원 비율을 놓고 양측의 갈등은 다시 촉발됐고, 결국 1970년 대처승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태고종이 창종되면서 갈등은 마무리된다.

해방 이후 일제 청산 최우선
정화운동 발현… 조계·태고 분리
10.27법난·종교편향 등 아픔

신도 조직 정비 등 제도 완비
TV, 방송 등 불교 미디어 발전
2000년대부터 사회운동서 두각

불교 현대화를 위한 노정

정화를 거치고 교단이 안정되면서 불교계는 현대적 제도 정비와 포교 사업 등에 매진했다. 통합종단 출범 이후 조계종이 도제양성·포교·역경을 3대 지표로 정한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1956년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창립됐고 1963년 9월 22일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대학생 포교에 시작을 알렸다. 대학생 불자들은 신행뿐만 아니라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한축을 담당하며 민중불교의 주역으로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도 1963년 10월 26일 창립하며 계층 포교의 틀이 만들어졌다.

종단의 3대 지표에 따라 1964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이 설치됐다. 제대로 된 한글 경전이 없었던 만큼 역경원의 출범은 주목할만한 성과였다. 역경원은 2001년 4월 25일 총318권의 한글대장경 불사를 회향했다. 이는 불교 대중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승가 교육을 위해서 해인사에 해인총림이 만들어졌으며(1967), 이듬해에는 송광사에 조계총림이 설치됐다. 1979년에는 중앙승가학원(중앙승가대학 전신)이 설립됐다.

불교계 문화·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석들이 만들어진 것도 1970~80년대이다. 불교미술 진흥을 위한 불교미술공모전이 1970년 처음 시작됐고, 한국불교학회가 1973년 9월 7일 창립했다.

1975년 1월 14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으로 제정된다. 당시 불교계는 서옹 대종사를 위원장으로 추진위가 구성돼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용태영 변호사가 적극 나서 공휴일 지정을 이끌어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은 1975년 (주)동국제강의 창업주이자 불교 대중화를 위해 헌신한 대원 장경호 거사가 30억원 헌납을 통해 만들어진다. 지금도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 대중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시련·개혁 속 변화 움직임

1980년은 불교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됐다. 1980년에 들어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 10월 27일 새벽에 전국 3천여 사찰에 계엄군이 진입해 강압적인 수색을 하고 총무원장을 비롯한 주요 사찰 소임자 스님들을 불법 구금하는 10.27법난이 일어났다. 당시 군부는 무차별 폭력과 고문이 자행됐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 현재 2008년 3월 '10·27법난에대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0.27법난은 권력과의 유착을 비롯해 불교 현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됐고, 젊은 스님과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민중불교운동이 시작된다. 민중불교연합이 1985년 5월 4일 출범했고, 1986년 6월 5일 정토구현승가회가 창립됐다.

1986년 9월 7일 해인사승려대회에서는 2000여 스님들이 불교관계 악법 철폐, 사원의 관광유원지화 중지, 성고문 사건 진상규명, 수입개방 압력 거부, 10.27법난 해명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이 현재와 같은 현대적 시스템을 갖춰나간 것은 1994년 개혁 이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3선 연임을 강행하자 대중의 반발이 일어나 종정과 총무원장이 같이 퇴진하고 종단제도개혁이 추진됐다.

당시 종헌과 종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총무원장 선출을 선거인단의 간선제로 하고, 교육과 포교를 전담하기 위해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두어 3원 체제로 변화하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교구자치제도를 도입하여 교구장을 직선제로 선출도록 했다.

불교, 이제는 사회 속으로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교계 사회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특히 2000년대 불교계 NGO를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은 한국환경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경 스님은 새만금을 살리기위해 전국토를 3보1배로 순례했고, 지율 스님은 천성산 습지를 위한 100일 단식을 이어갔다.

신문과 잡지 등 인쇄 매체에 의지하던 불교 미디어가 TV, 라디오로 확장된 것도 이 시기다. BBS불교방송(1990)과 BTN불교TV(1995)에 각각 개국하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 사업을 위해 199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고 2008년에는 불교계 최고 공익기부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이 출범했다. 현재 불교계 복지 사업은 국내 복지뿐만 아니라 국제 구호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70대 뉴스 (1945~2015)

1945년 8월 20일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
1945년 9월 22~23일	전국승려대회
1946년 10월	해인사 가야총림 출범
1946년 9월 20일	명진학원, 동국대학 승격
1947년 5월 13일	불교혁신을 위한 선학원 불교도 대회
1947년	봉암사 결사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 담화 발표
1954년 8월 24~25일	전국비구승대표자회의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 개최
1956년 6월 16일	조계종 전국신도회 창립
1960년 1월 1일	불교신문 창간
1960년 11월 25일	정화 위해 6명 비구 스님 할복
1961년 5월 22일	한글판 〈불교사전〉 출간
1962년 4월 11일	비구·대처 통합종단 출범
1962년 5월 31일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1963년 9월 22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1963년 10월 26일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1964년 7월 21일	동국대 동국역경원 개원
1966년 8월 13일	〈무구정광대다라니〉 발견
1969년 11월 30일	군승 장교 첫 임관
1970년 5월 8일	한국불교태고종 창종
1970년 7월 13일	제1회 불교미술공모전 개최
1972년 11월 30일	〈불교성전〉 출간
1973년 9월 7일	한국불교학회 창립
1975년 1월 14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1975년 8월 16일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1977년 7월	조계종 3년 분규
1979년 3월 18일	중앙승가학원(중앙승가대 전신) 개원
1980년 10월 27일	10.27법난 발발
1981년 2월 27일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산림 실시
1981년 4월 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창립
1983년 8월 6일	비상종단 출범
1985년 5월 4일	민중불교운동연합 출범
1985년 9월 5일	전국비구니회 창립
1986년 6월 5일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창립
1986년 9월 7일	해인사 승려대회
1987년 1월 24일	경승단 발족
1988년 5월 28일	전통사찰보존법 제정
1989년 11월 25일	〈한국불교전서〉 완간
1990년 3월 7일	선우도량 결사
1990년 5월 1일	BBS불교방송 개국
1991년 10월 29일	남북불교지도자 LA연석회의
1993년 11월 4일	성철 스님 입적
1994년 4월 10~13일	개혁회의 출범
1994년 10월 15일	현대불교신문 창간
1995년 1월 13~20일	조계종 교육원, 포교원 개원
1995년 3월 1일	BTN불교TV 개국
1995년 6월 9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1996년 11월 22일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
1998년 8월 18일	백양사 무차대법회
2001년 4월 25일	〈한글대장경〉불사 회향
2001년 6월 13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2002년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기공식
2002년 5월	템플스테이 시작
2003년 3월 19일	새만금 살리기 3보1배
2004년 5월 8일	조계종 통합신도회 발족
2004년 7월 1일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시 봉헌 파문
2005년 2월 3일	지율 스님 100일 단식 투쟁
2005년 4월 5일	낙산사 화마로 전소
2007년 3월 26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2007년 6월 29일	신정아 학력 조작 사건
2007년 10월 12~14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낙성식
2008년 8월 27일	범불교도 대회
2008년 9월 30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창립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 입적
2012년 1월 2일	지관 스님 입적
2012년 4월 23일	백양사 도박 몰카 사건
2012년 5월 2일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 개원
2012년 8월 27일	조계종 노동위원회 출범
2014년 11월 17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
2015년 5월 15~17일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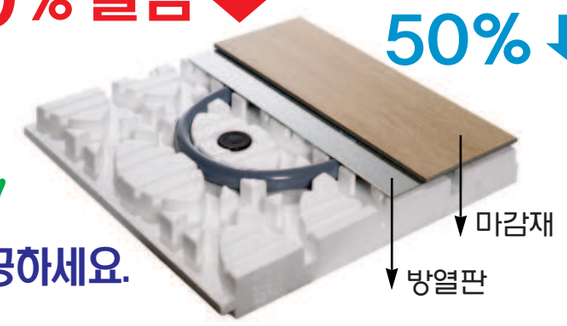
【소】 1,200×600×1,300 (가로×세로×높이)㎜
【중】 1,600×700×1,700 (가로×세로×높이)㎜
【대】 1,700×800×1,800 (가로×세로×높이)㎜
〈대(大)에는 반야용선조각이 추가됩니다.〉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 연락처
010-6428-3889 / 010-9195-1044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진주 : 010-3583-7139
익산 : 010-6610-2337
안산 : 010-2487-3393
화성 : 010-3168-9250
수원 : 010-5211-7260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대구 : 010-3821-4849
남양주 : 010-9183-9729
김천 : 010-9091-4583
서광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서산 : 010-7301-5854

독립정신 깃든 사찰, 지금은…

항일 운동 중심… 韓불교 전통 수호 앞장

(재)선학원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질곡의 시대사와 함께 한 민족불교 도량이다. 경술국치 이후 빠르게 일제 식민지화 된 한반도에서 조선 임제종운동에서부터 선학원은 태동한다.

1910년 10월 6일 굴욕적인 한일불교협약인 '조동종 맹약'이 조선의 원종과 일본의 조동종 승려 사이에서 체결되고, 다음 달인 11월 6일 이 맹약에 반대하며 임제종 운동이 전개됐다. 맹약의 핵심은 당시 한국 불교계의 대표기관인 원종(圓宗)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일본 조동종의 고문을 위촉하고, 조동종의 한국 포교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1912년 서울 대사동의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간판은 철거됐다.

그러나 임제종 운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들의 노력은 선학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남전(1868~1936) · 도봉(1873~1949) · 석두(1882~1954)스님이 설립자금을 모았고, 임제종운동에 참여했던 만해 · 용성 · 만공스님 등은 설립이념을 민족불교의 확립과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뒀다.

서울 종로 안국동 40번지에 1921년 서울 간동포교당(諫洞布敎堂) 보살계 계단에서 선학원 설립의 서막을 열었고, 그해 8월 10일 기공을 거쳐 4개월 뒤인 11월 30일 준공됐다. 창립 직후인 1922년 3월에는 전국 수좌들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선우공제회가 창립됐다. 그러나 일제 침탈로 한국불교의 전통인 선 수행의 위상이 저하됐고 당시 31본산 주지들은 선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 재정상 어려움을 겪던 선학원은 1926년 연고권을 가진 범어사 포교당으로 기능이 용도 변경된다.


강원 백담사에 세워진 만해 스님 흉상.

1921년 법당 건립하고 활동
일제의 억압에 침체 겪다가
1931년 적음 스님이 중흥해
만해 스님의 주된 활동 도량

100주년 앞두고 기념관 불사
근대불교 조명 공간으로 장엄

1931년 들어 적음 스님이 나서서 선 수행 대중화에 나서며 선학원은 중흥된다. 적음 스님은 남녀선우회선학원을 설립했으며, 불교 잡지인 〈선원〉을 창간했다. 1934년에는 법인 인가를 받아 (재)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개편하게 된다.

선학원은 특히 만해 스님의 독립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선학원 정신에 뿌리를 둔 임제종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만해 스님은 운동 참여 이유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기도 했다.

또한 1926년에 만해 스님은 6.10만세운동으로 선학원 근처에 잠복해 있던 일본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6 · 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인산일(因山日,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학생 수는 서울에서 210여 명이었고,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같이 민족 불교 운동의 중심 도량인 선학원은 새로운 도약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새롭게 건립 중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이다. 기념관 건립 불사는 순항 중이다. 선학원은 2014년 11월 20일 중앙선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고, 2015년 12월31일 준공, 2016년 7월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념관은 814.1㎡(246.27평)의 대지에 지상 2층 지하 4층 규모로 신축된다. △지상 1층 한국근대사 및 근대불교전시관 △지상 2층 참선 수행 및 명상, 상담치유를 위한 힐링센터 △지하 1층 식당 △지하 2층 전통문화체험관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문화교실 △지하 3층 교양, 문화 강좌를 위한 소통센터, 시니어 및 주니어 센터를 운영할 소 · 대강당 △지하 4층 기계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선학원이 태동한 자리에 세워지는 기념관은 선학원 설립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재단 행정 · 교육 · 복지의 중심이자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학원이 중앙선원 자리에 건립불사 중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조감도. 내년 7월 경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학원 중앙선원의 첫 모습.1921년 선지식들에 의해 세워졌다.


1931년 열린 선학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수좌대회.


2009년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태극기.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스님이 비장했을 것으로 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발견당시 모습. 태극기와 함께 〈독립신문〉등 사적류가 나왔다.


진관사 칠성각. 이곳에서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 등이 발견됐다.

태극기에 담긴 정신, 도저하여라

서울 진관사

2009년 5월 26일, 진관사 칠성각(서울시 문화재 제33호) 해체복원 불사 현장을 지휘하던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은 불단과 기둥사이 벽면에서 흰 한지 뭉치를 발견했다. 범상치 않은 발견에 스님은 주지 계호스님에게 사실을 알렸다.

물건을 대중방으로 옮긴 후 조심스레 펼쳐 본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 속에는 곱게 접힌 태극기와 〈신대한〉 3점, 〈독립신문〉 2종 4점, 〈조선독립신문〉 5점, 〈자유신종보〉 3점, 경고문 1점이다.

이 같은 근대 유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수륙재와 사찰음식으로만 알려졌던 진관사가 독립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태극기는 세로무늬의 태극과 4괘 덧붙임식 태극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덧붙임식 태극 은 1900년대를 전후해 태극기 제작 양식이 규정되기 이전에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연구를 담당한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연구소 김용달 연구위원은 "제작 방식으로 볼 때,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크기로 볼 때 3 · 1운동 등 시위보다는 단체용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극기와 보관됐던 사료 가운데에는 단재 신채호가 중국 상해에서 창간한 〈신대한〉 신문과 독립운동세력이 발간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자유신종보〉 등 국내에서는 처음 발굴됐다.

태극기와 〈독립신문〉등을 비장(秘藏)한 인물로는 백초월 스님이 지목됐다.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의 연관성을 찾은 것은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다. 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백초월-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불꽃같은 삶〉을 통해 이를 잘 기술했다. 김 교수는 법해 스님과 함께 태고종 범륜사 금봉 스님에게서 초월 스님에 대한 회고를 듣는다. 1930년대 진관사에서 초월 스님에게 수학한 금봉 스님은 "초월 스님이 진관사 도량 내의 전각 중 가장 으슥한 곳에 숨겨놓았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생전 모습.

2009년 칠성각서 보수 중
태극기 · 독립신문 등 발견
김광식 교수의 조사 · 연구로
백초월 스님 행적 밝혀져
수륙재 등 전통문화 계승

1876년 2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백초월 스님은 14세 때인 1890년 지리산 영원사로 출가했다. 20대 후반 강백을 역임할 정도로 실력자였던 스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불교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다.

1920년 일본의회 독립청원 활동을 이유로 일제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상한 몸을 추스르며 포교당에서 일심(一心)사상을 강연했다. 스님은 이 사상을 독립운동의 이론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1939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군용열차에 '대한독립만세'라는 글귀를 쓰는 사건을 주도했다가 다시 일제에 체포됐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6월 29일 청주교도소에서 끝내 순국했다.

김광식 교수는 저서에서 초월 스님이 일제의 구금으로 고문을 받고 나와 몸을 추스르고 독립운동을 준비한 곳으로 진관사를 주목한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독립운동과 진관사' 학술세미나에서 "임시정부의 불교 중앙 연락본부가 진관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며 태극기를 그리고 자료를 감싸 비장했던 백초월 스님에 대한 공적은 100여 년이 지난 현재와서 인정돼 빛을 발하고 있다. 진관사는 이를 통해 사찰음식 · 수륙재 중심도량에서 항일운동 거점 사찰로의 명예를 안게 됐다.

진관사는 발견 후 관련 2차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2011년 백초월 스님 태극기 비석을 제막하기도 했다. '잊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스님들을 발굴 · 연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화두를 진관사의 태극기와 백초월 스님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독립정신 깃든 사찰, 지금은…

윤봉길 수계 도량… 대각사상 꽃피운다

서울 대각사

"용성 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 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스님은 매헌 윤봉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위국충절의 사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김구 선생이 1945년 12월 12일 귀국 20여일 만에 대각사 용성조사전을 찾아 통곡하며 내뱉은 말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밀이었던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활동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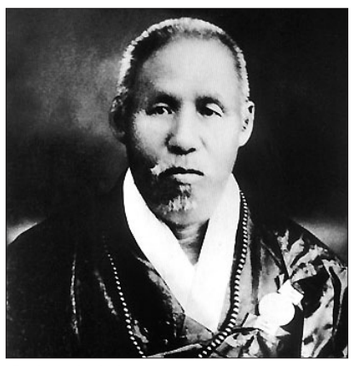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각사는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용성 스님이 세운 사찰로 용성 스님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용성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한국 근대 불교의 새벽을 연 선각자로 조선불교의 왜색에 일갈하고 종풍을 새로이 세운 선객이자 사상가였다. 1895년 억불숭유의 상징이던 승려 도성출입 금지령이 300년 만에 해제됐다.

용성 스님은 14세에 출가해 해인사 · 보광사 · 송광사 등에서 용맹 정진했다. 용성 스님은 산중생활을 청산하고 1911년 2월 상경한다. 당시 스님은 봉익동 민가를 절집으로 바꿔 대각사를 창건한다.

3 · 1운동 당시 스님은 33인 민족대표를 결속시켰다. 바로 용성 스님이 막후에 있었다.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민족대표 33인의 거사는 용성 스님의 중재가 없었다면 종교간 갈등으로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3 · 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행보가 크게 갈릴때 용성 스님은 동북아 국제정세를 활용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용성 스님 영정

1912년 창건이후 독립운동 지원
김구선생 실천행자 서원 사찰
대각회 · 불광사 등 창건 배경
용성 총서 발간 대장정 진행중

이때 용성 스님은 대각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조우한다. 김구 선생은 1919년 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된 이후 탈옥한 상태였다. 마곡사에서 스님이 돼 '원종'이란 법명을 받은 김구 선생은 대각사에 머무르며 용성 스님의 영향을 받아 민족을 살릴 대원을 세우고 실천행자가 되기를 서원한다.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이러한 독립운동의 근간은 구세와 자아완성이 둘이 아니라는 대승불교 사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후에 이 인연으로 김구 선생은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용성 스님은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용성 스님이 1930년 윤봉길 의사에게 3귀의 5계를 주어 불자로 삼은 곳도 바로 대각사였다. 윤 의사는 만주 용정의 대각사를 거쳐 상해의 김구 선생에게 보내게 돼 의거를 거행한다.

용성 스님은 대각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전번역과 전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화과원을 세워 잉여농산물을 팔아 독립자금과 독립군 식량으로 사용했다. 1931년 결국 독립운동 근거지로 발각된 대각사는 조선총독부에 재산 몰수를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현재 대각사에는 스님을 기리는 비석이 조촐하게 서있다. 용성 스님은 광복을 앞둔 1940년 4월 1일 급작스럽게 대각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스님의 다비식은 일본 경찰의 철저한 방해와 수색 검열 등으로 제자 몇 명만이 참여해 치러졌다.

이런 역사로 인해 대각사에는 근현대 선지식들이 거쳐갔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동산 · 고암 · 혜암 · 법전 스님을 비롯해 자운 · 송암 · 지관 스님 등이다. 대각사에서 정진한 이들이 이후 3000여 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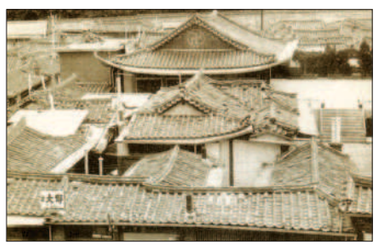
1974년에는 불광법회가 열리고 그 영향으로 불광사가 세워지기도 했다. 현재 대각사는 대각회와 조계종의 법인등록 사찰이다. 현재 용성 스님이 거주하던 단층 기와집은 헐리고 지금은 현대식 3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1969년 조계종 종정이었던 고암 스님과 용성 스님의 상자와 손상자들이 용성 스님의 대각교 창립정신을 기리고 대각사상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대각회'다. 대각회는 현재 2013년부터 동국대와 함께 용성 스님이 남긴 60여권의 저술과 번역서를 정리하는 한편 새 자료를 발굴해 20여권의 총서를 엮는 대장정에 들어간 상태다.

대각회는 "대각사를 비롯한 대학회의 사찰들은 용성 스님의 민족독립과 중생제도의 원력을 이어 대중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1945년 12월 12일 김구선생의 종로 대각사 참배. 가운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이 백범김구 선생


1940년대 종로 대각사의 모습.


종로 대각사의 현재 모습.


2015년 3월 1일 금정중학교 학생을 비롯한 부산시민들이 펼친 동래 만세운동 재연 모습.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범어사 지방학림 · 명정학교 만세운동 참가자 명부'



명정학교 졸업식 사진(현 금정중)

학림스님들, 동래 만세 시위 이끈 산실

부산 범어사

3 · 1만세운동으로 드러났듯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민초들의 삶 곳곳에서 진행됐다. 부산의 대표사찰인 범어사 또한 이러한 역사가 전해지는 곳이다.

서울에서 민족적인 3 · 1독립의거가 무르익어 가던 1919년 2월 만해 한용운 스님은 범어사로 내려오게 된다. 바로 부산지역의 3 · 1운동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범어사 주지 오성월 스님을 비롯해 이담해, 오이산 등 범어사 스님들과 만해 한용운 스님은 중대사를 의논하고 서울로 돌아간다. 당시 오성월 스님 등 7명의 대표자들은 서울의 3 · 1운동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 불교 중앙학림(현 동국대 전신)에 재학하던 김상헌은 범어사 지방학림을 졸업한 김법린과 함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지도하에 중앙학림 학생들의 모임인 유심회를 이끌고 있었다. 당시 불교교리와 민족사상 연구에 관한 잡지 〈유심〉의 편집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각 지역대표에게 연락하는 책임도 맡고 있었다.

김법린과 김상헌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지시에 따라 3월 4일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에 관계되는 문건들을 봇짐 속에 감추어 가지고 범어사 청련암에 도착했다. 이들은 3월 17일 저녁에 개최된 명정학교, 지방학림 두 학교 졸업생을 위한 송별연 모임에서 3월 18일 동래읍 장날을 기하여 의거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방학림 3년생 허영호(허영호)에 의해 독립선언서와 격문 1,000매가 준비되었고, 태극기 큰 것 1개와 작은것 1,000매는 주동인물 등에 의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3월 17일 저녁 졸업생 송별연 모임은 김영규의 축사를 끝으로 모두 '대한독립만세' 3창을 외쳤고, 청련암으로 자리를 옮겨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동래읍에 잠입하기로 하였다. 불교포교당에 18일 새벽 한시쯤에 도착하였으나, 명정학교 학생 오계운이 일어교사 나까무라에게 고발해 일본헌병과 경찰 20여명이 들이닥치게 된다. 이에 김영규, 차상명, 김상기, 김학기 등이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강제로 해산된다.

다음날 19일 아침에는 허영호가 작성해 놓은 '一死莫如得自由'(한번 죽는것은 자유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민족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격문과 독립선언서를 동래시장을 비롯한 동래읍 일원에 뿌리며

청년불자 힘모아 만세운동 전개
범어사 비롯 곳곳에 흔적이…
종립학교에 교육관 지어 교육
"선조 원력 계승, 지속 노력"


범어사 순환도로에 설치된 만세운동 유공비

다시 시위행진이 전개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십명의 명정학교, 지방학림 학생들과 민중들이 합세하여 동래시장 남문부근에 다시 집결해 그 인파는 부산부 2000명, 동래군 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진하다가 강제 해산되고 주동인물은 대부분 검거되었다. 또 현재 부산 금정중학교인 명정학교는 폐교조치를 받았다.

강대민 경성대 사학과 교수는 범어사의 만세운동을 "시위 횟수나 적극성을 볼때 규모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범어사 의거는 조직화된 독립운동의 발현으로 범어사의 근대불교화 과정의 결과물적인 성격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범어사 만세운동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34명에 달하며 대부분 부산 또는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부산 동래의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과 시위횟수는 전국에서 경기도와 황해도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항일정신이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범어사는 왜색불교 청산에도 앞장서 2009년 대웅전 앞 석탑의 하단 일본식 조성 난간 제거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불사를 벌여 2012년 대부분을 일제 이전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산하 종립 금정중학교에 유공비와 함께 현충시설인 교육관을 지어 이러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 범어사의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부산시는 1995년 범어사 순환도로에 삼일운동 유공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뜻을 바르게 이어야 한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8.15 광복 70년

불서에는 당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이웃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 하는 전법의 걸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민족사 | 불광출판사 | 운주사 | 우리출판사 |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

5대 출판사, 더욱 새로워 지겠습니다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둬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살아 숨쉬는 금강경 해설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북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이 공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화제의 신간

일감 지음 | 308쪽 | 15,000원 | 민족사 펴냄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토크 콘서트

일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일감 스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패널 5명 선착순 모집
- 문의 민족사 02.732.2403~4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게송!



일백오십찬불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배우는 「일백오십찬불송」을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로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 · 의정 한역 · S. 담미카 영역 · 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값10,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불교에 매혹된 미국인들의 이야기!



미국과 불교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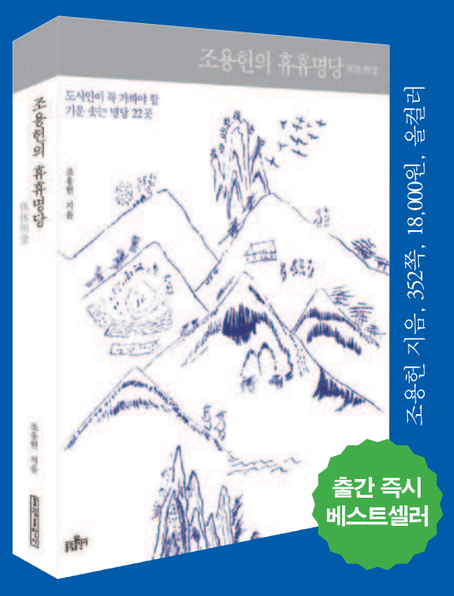
외래종교인 불교가 미국의 지배적 종교 및 문화와 겪는 갈등과 융합의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
동 · 서양 사상이 접촉하여 발생하는 긴장과 수용, 변용의 과정에 대한 흥미있는 성찰을 보여준다.

토마스 A. 트위드 지음 · 한창호 옮김
신국판 | 440쪽 | 값 20,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02) 926-8361

인생의 배터리가 방전될 때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조용헌의 휴휴명당

休休明堂



조용헌 지음, 352쪽, 18,000원, 올컬러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도시인이 꼭 가봐야 할 기운 솟는 명당 22곳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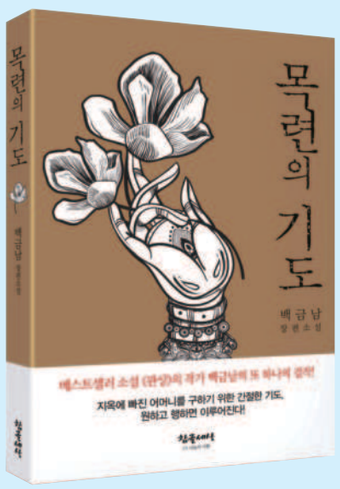
사경은 부처님을 가슴에 새기는 수행입니다



- 우리말천수경
- 한글반야심경
- 대불정능엄신주
- 불설아미타경
- 신묘장구대다라니
- 관세음보살42수주진언
- 한글금강경
- 부모은중경
- 광명진언

사경시리즈 각권 값 5,000원

우리출판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 팩스 (02)393-9696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1003@hanmail.net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



대행 스님

내 한생각을 잘 돌려서 나라고 하는 거를 다 버려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랬듯이, 사람이 사람이니만큼 마음이라고, 마음! 벌써 문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깐,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줄 게 없고 가져갈 게 없어도, 악이나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은 그거 좋을 게 뭐야?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어떤 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을 테고, 또 나도 인간이고 그런데. 생각하면은 가엾고 안됐지. 그러니까 동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그때 생각을 안 해봤지마는 지금 얘기하자면 동생이라도 몇째뻘 동생이더라고.

그래서 '에이휴, 만약에 내 동생이 저런다면 얼마나 속이 썩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그것도 없어. 왜? '내가 하고 갈 게 있다. 내가 뭘 해야 할 텐데. 내가 꼭 있어야만 해.'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얘깁니다. 아,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으면 고만이고, 살 때 되면 사는 거고 그냥 그저 길을 걸어갈 뿐이죠. 구태여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잘 산다.' 이럴 것도 없어요. 또 '내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럴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나왔으면 다 자기네 나오기 이전, 전생에서 짓고 나온 대로 악업이 많으면 더 많이 고(苦)를 당하고, 선업이 많으면 고를 덜 당하죠. 아, 국회의원도 표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됩디다.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악업 선업을 짓는 것도.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내 한생각을 잘 돌려서 나라고 하는 거를 다 버린다면 이 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도 다 그냥 송두리째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苦) 덩어리 하나 착을 두지 않는다면 멸(滅)하게 되고, 도(道)가 되죠.

그런 거와 같이, 서산 대사께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길을 걸었답니다. 그 길을 걸었는데 그때 시대에는 칼이나 활을 썼죠. 창이나 그런 걸 썼죠. 비행기도 없었고 총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 환경대로 육신통을 안 하면은 아주 어려웠을 때고,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도 필요했고 어떠한 난리가 나도 그러한 술수가 참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육신통의 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참, 고도로 발전을 시켜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 서산 대사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명 대사(四溟大師)가 말입니다,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선 덜렁덜렁 왔단 말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빼먹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얘기만 합시다. 그래 와서 하는 소리가 새를 손에 쥐고 "이 새를 날려 보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하거든. 응? 그러니깐 서산 대산 아무 소리 없이, 같잖다는 것도 되지만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서 문지방을 걸터 짚고 서서,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대사가 고만 허무하게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절을 한번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해 놓곤 '그래도 못 믿어! 저놈의 술수는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응? 그거 뭐 육신통 했다고 정말 대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알 바가 뭐야?' 이러면서 또 한 가지 계책을 쓴 것이 계란 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아래서부터 탁 쌓아서 지붕까지 붙였는데 서산 대사가 쓰윽 그걸 보더니 하는 소리가 "그 장난 참 심하구먼." 하고선 "그럼 나도 장난 좀 한번 해 볼까?" 하곤 지붕에서부터 내려 꽂거든요. 허허허. 아, 그러니 아래까지 턱 내려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 이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이러고 묻더라는 겁니다, 사명 대사한테. 그러니까 사명 대사가 거기서 또 그냥 "아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는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백배사죄를 했죠.

그래서 이럭저럭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명 대사가 스님을 쫓아가는데 또 속으로 '키는 조그맣고 몸뚱이는 가냘프고 조그만 저것이 대도를 이루었을까?' 또 의심이 난 겁니다, 인제. 허허허. 못생기기도 했지마는 '저거, 아유!' 그 사명 대사, 자기는 출중하고 아주 훤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선 스님을 보면 아주 천지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인제 가는 거죠. '저거 정말 대도를 이루었을까, 과연? 내가 정말 스승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서 뒤에 슬슬 쫓아가니깐 그냥 착 돌아다보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놈아!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보이걸랑은 지금 빨리 가라!" 하고 말이야. 그냥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깐 거기서 자지러졌단 말이야, 그냥. 자지러졌어요. '야! 속까지 들여다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걸 어쩌나.' 하고선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굳혔습니다. 뭘 굳혔느냐 하면은,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인제는 믿겠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거꾸로 간대도 "네. 옳습니다." 했고 바로 간대도 "옳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구렁이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서산 대사께서 사명 대사를 천야만야한 절벽으로 탁 밀어 던졌죠. 그러니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다 보니깐 자기 가는 지금 그 절의 부목이 나뭇짐 해다 놓은 큰 더미 위에 뚝 떨어져서 자기 몸뚱이가 출렁대더랍니다. 그래서 떠다밀어도 요런 데다 떠다밀었으니 "참,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올라가서 백배사죄를 했죠.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이 "떨어진 것이 화가 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떨어진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떠다밀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거든. "그만하면은 됐구나."

그러고는 이튿날서부터는 또 뭘 해 줬느냐 하면은 날콩물 있죠? 날콩물에다가 솔이파리를 찧어서 그 시퍼런 물에다가 날콩가루를 타서는 한 그릇씩 먹는 겁니다. 그걸 먹고 나니깐 설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앉았다 섰다 할 수가 없이 그냥 앉았으면 서야 하고 섰으면 앉아야 하고, 이렇게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드나드니까, 똥이 나와서 그냥 죽겠어서 벌떡 일어나니까, 큰 작대기로다가 그냥 후려치며 "나는 먹고 된똥을 누는데 너는 어째서 먹고 설사만 하느냐." 이거야. 물찌똥만을 누느냐 이거야. 응?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쳐도 "이놈아, 설사하느라고 볼일을 못 보니, 된똥을 못 누니 어찌 네가 막대기 하나, 손가락 하나 쳐들 수가 있겠느냐? 술수만 배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느니라. 그건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진짜 우리가 도를 이루려면 그게 아니니라." 하고선 그냥 어떻게나 작대기로 때리는지 설사 똥끝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날부터 된똥을 누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허허허.

사명 대사가 그만큼 했으니 지금까지도 일본은 사명 대사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하다못해 우동 가게 앞에까지도 그 개집처럼 해 놓고 있죠. 얼마나 놀랐으면…. 허허허. 그래서 지금 하오리를 입은 것도 조선의 도포를 보고 그렇게 했고 참, 공깃밥 먹는 것도 우리 발우공양 하는 걸 보고, 또는 각반을 친 것도 우리 행전을 보고 그렇게 했고, 또 오조가사를 보고서는 총받이를 만들었죠,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그 폭탄 하나로 인해서 일본이 사경을 헤맸던 그 이치를 생각해 볼 때에 꼭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하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를, 일본이 그렇게 혼나고 난 뒤에야 깨달았죠. 그리고 그전에도 참 미국 사

☞ A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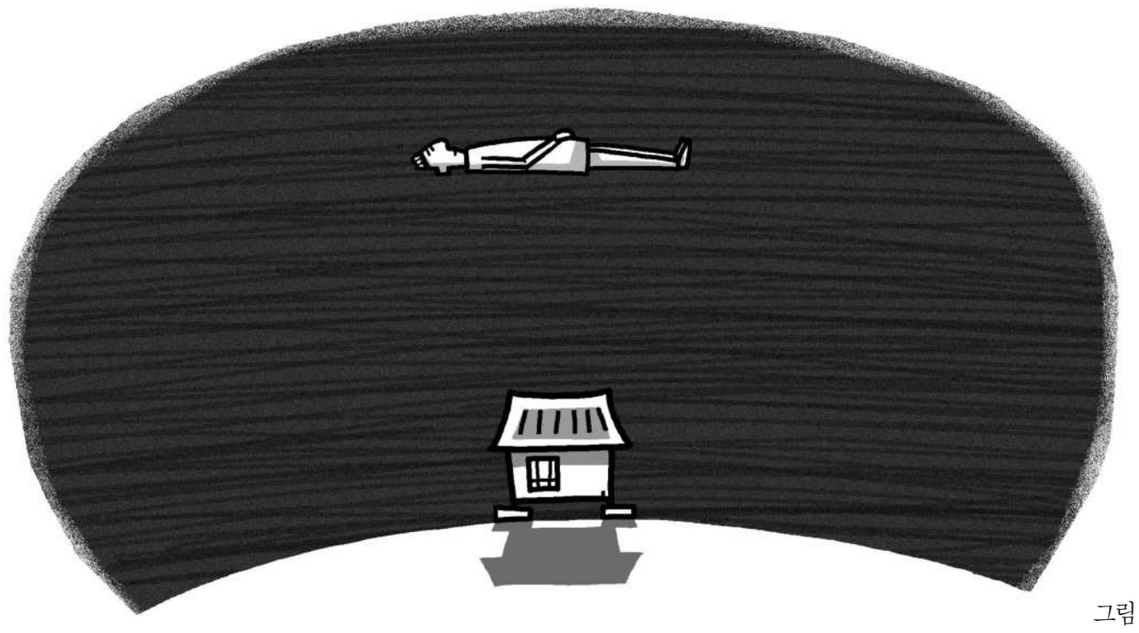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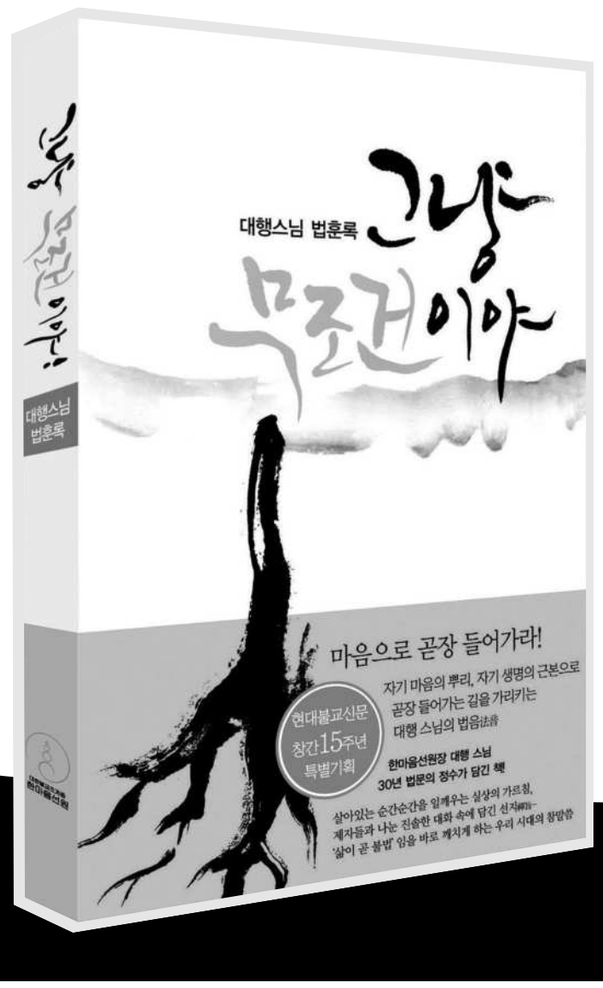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고 덩어리가 나온 데다가 고 덩어리를 그냥 되놔라!

☞ A21면에서 계속

람한테 너무 까불다가 한 번 혼났고, 또 너무 까불다가 사명 대사한테 혼났고, 그래 가지고 아주 자지러져서 이제는 저 국수 가게까지도 갖다 놨습디다.

그러니 모든 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언짢은 일을 했으면 언짢은 결과가 오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 하면서 사명 대사도 서산 대사도 이 조국을 위해 애쓰신 걸 잘 생각해 봐야죠. 그분들은 일본 군사가 붙들러 오면 이쪽으로 가면서도 짚세기를 거꾸로 신고 갔단 말이야, 짚세기를. 거꾸로 신고 담을 뛰어넘어 가니까, 담을 뛰어넘어 온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히질 않고 그렇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서른 안짝으로 나이가 적었을 때 얘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산으로 다니면서 이럭저럭 지내다가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정이 있는 이치가 있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맹물에다 빨아서, 물이나 뭐 맹물이나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산에. 그런 것도 없는 데다 빨아서 입었으니깐 너무 추웠습니다. 내가 이런 소릴 지금 세 번째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발치에서 불이 깜박거렸습니다. 그래서 '서산 대사처럼 축지법을 했으면은 내가 이런 추위를 모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때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활이나 칼이나 창을 쓰던 시절이었지만, 만약에 지금 몸뚱이로다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이런다면 그건 몹쓸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랴. 몸뚱이가 가지 않고 내 이 춥다는 의식 자체를 빼서 좀 뜨듯하게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태양이 크게 확산이 돼서 만약에 우리 국민을, 아니 국민보다도 이 지구의 주인들을 그냥 삽시간에 다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지구도 그렇지마는 저 태양도 우리 손아귀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든지 마음대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런 나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일체 나와 더불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나툼을 알아야 하겠기에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서로 문답식으로 차차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내 영력으로써 이 몸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들고 나면서, 수십억 마리가 다 모습을 바꿔 가면서 급하면 급한 대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그러면 멀고 가까움도 없는 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저런 혹성세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은하계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천지가 다 통신이 되고 천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보이는 몸뚱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감추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한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내가 돼서, 바로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천백억도 될 수 있고…. 그,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 수효를. 그렇게 일체가 다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뇌의 얘기도 해 드리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 오늘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어때요? 질문하실 분, 어떠한 문제라도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내가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진실한 나이며,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라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거는 나의 주인공, 너의 주인공이 따로따로 있으며 그것을 관장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냐, 아니면 본래부터가 너와 내가 없이 태양같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 전체를 관장하는 주인공이 구분이 없이 하나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러면 이거 한마디 묻겠소. 당신의 마음과 지금 말하는 그 이치가 있는 것도 당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자1(남)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죠?

질문자1(남) 네.

큰스님 네. 일체가 다 한마음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조차 없어요, 원칙으로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만약에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가 있고 시계추가 있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도 없죠. 고정되게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깁니다. 그래 죽어야 자기를 알죠.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얻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얻지 못해요.

가정에서 살아나가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어느 절에 가서 큰스님한테 여쭤 보니까 "너는 귀신이 잘못 들렸으니까 시식을 해라." 했다고 합디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영계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땐 그렇게 해 줘선 안 되죠. 아무리 영계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너 자신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영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사이가 없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거기에 대치를 해 주느냐면 '그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문제가 보인다 들린다 하더라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고 거기 맡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점,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했다? 무슨 호흡인가 뭐를 하다가 열이 머리로 올라와 가지곤, 선생님인데 학교에 나갈 수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걸 놓지 않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라는 걸 놓지 않고 항상 그 머리에 열을 올려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몸뚱이는 호흡법을 해도 피를 모아서 사대(四大)로 탁 펼치는 반면에 그 몸의 피로한 거를 풀기 위해서인데, 그 몸을 풀기 위해서도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다 여기 생명들이 운반해 줘서 건강해질 텐데 구태여 그걸 꿇어앉아서 말이야, 그 피를 모아서 하다가 잘못되면, 머리로 올라가면 그건 고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위험치 않게…. 여러분이 위험하면 내가 위험해. 왜? 나니까. 하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 우는 걸 보면은 내가 아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 짓은 안 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사고 나지 않도록 시키기 위해서 주인공을 믿고 '당신이 오다가 엎드러졌으면 당신이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다. 전생에 내가 살면서 악업 선업을 지었다면 그 속에서 다 악업 선업이 나오는 건데, 나오게 되면 한번 거기다 다시 넣어라. 거기서 악업 선업도 지은 거니까 그 악업 선업을 무너뜨리는 것도 거기다.' 하곤 탁 놓는다. 또 안되는 것도 거기서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잘된다 하면 또 '잘됐으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지수화풍으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어야 한다는 요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해 보죠. "나를 버려서 나를 얻는 소식이다." 하고 탕! (주먹으로 법상을 치시며)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또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다." 탕! 이렇게 치고. 이 소식이 이게 광대무변해서 말로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분들도. 그러면 또 "나와 더불어 나를 버려서 일체 나툼의 소식이니라." 하는 것을 그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탕!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소식을 아신다면 나와 같이 동등하고 또는 일체와 같이 동등하고, 일체 우주 천하가 도량이고 일체 천하가 다 나 아님이 없고, 또 내 몸 아님이 없고, 참 내 아픔 아님이 없어서 정말 옛날에는 창, 칼, 활로 전쟁이 나도 그렇게 쓰던 건데,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은 그냥 보이지 않는 데에 까마귀 떼 가듯해서 그 참, 의식 속에 들어가서 서로 해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해서 전체의 모든 남과 나를…, 나도 남도 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일체를 구하려고 든다면은, 만날 싸움질들을 하니까 싸움하게 놔두었다가…. 재미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좀 재미로 봤다가 나중에 이게 큰 어른 싸움이 나겠구나 이러면 말려야죠. 그 말릴 때에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지금 세상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육신통을 해서 술수를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써 뭐든지 내가 될 수 있고, 나툴 수 있고, 또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과거를 알 수가 있고, 현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서 내가 바로 결단적으로 누진(漏盡)을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거를 결정을 짓는다, 이럴 때 바로 우측, 그 바른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는 우측에서 하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좌측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을 해치려 드는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거죠. 살생이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자비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러분이 원심력에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내 몸 이 혹성 안에서도, 내 이 혹성 안에 들어 있는 이 생명들도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뭐 걱정입니까? 야, 여기서 신호가 오면은, '내가 죽겠다.' 그러걸랑은 '그럼, 그거 얼른 공장장한테 얘기해서 고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걸 그냥 애를 쓰고 그러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것도 그 속에 악업 선업의 그 생명들이 돌아가면서, 육체로는 돌아가면서 그 악과 선을 자꾸 풍긴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 풍기니까 보이는 데로 나올 수밖에. 그러니 여러분이 고(苦) 덩어리죠. 그래서 고 덩어리를 면하려면 그 고 덩어리가 나온 데다가 고 덩어리를 그냥 되놔라 이거야.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요, 요다음 법회 때는 질문을 하실 거를 간단하게 써 가지고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아셨죠?

※위 법문은 89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서 나를 얻는 소식이다. 탕!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다. 탕!
나와 더불어 나를 버려서 일체 나툼의 소식이니라. 탕!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02)393-8027

개인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수행
한국불교
수행 70년

禪 중심으로 수행법 다양화…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



월정사 만월선원에서 참선 수행 중인 납자들. 근대에 불교 수행법은 출가자를 중심으로 한 간화선 수행이 주류를 이뤘다. 현재는 염불, 절, 주력 등 전통 불교 수행법과 더불어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도 많은 수행을 하고 있다. 또한 요가 명상, 단학, 마음수련 등 명상 산업이 발전하며 마음 수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법왕정사의 절을 기반으로 한 감사 수행. 사찰을 중심으로 자체 수행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근래에 들어 수행과 명상의 물결이 기업, 의료계, 학교 및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수행과 명상이 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수행은 명상의 언어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전에 종교의 영역 속에 머물러 전문 수행자들이 실천하던 선(禪)수행이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근대 한국불교에서 수행은 출가자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간화선의 경우 더욱 그랬다. 그리고 근대불교에서 수행이란 간화선 이외에 별다른 영역이 없었다고 해도 그다지 반박의 여지는 없다. 강원에서의 경전 독송이나 그 밖에 '천수다라니' 주력이 있긴 했지만, 뚜렷한 수행의 물결을 형성하진 못했다. 아무튼 근대불교에서 우리의 수행은 선이었다.

禪 대중화와 명상의 범람

근대에 들어 경허와 용성 스님으로부터 선풍이 일어나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사찰에 선원이 건립되면서 선수행 납자들이 안거에 들었다. 재가불자로서는 극히 일부 여성 불자들이 선방의 화주 역할을 하며 간간히 참선을 한 것이 전부일 것이다.

해방 이후에 한국불교는 식민지 불교를 청산하기 위해 교단 개혁을 도모하지만 미군정의 종교편향 정책 등으로 교단은 혁신세력과 수구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이런 질곡을 타개하고자 교단은 모범총림 설립을 통해 수행에 전념하는 청풍납자와 도제를 양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46년, 해인사에 가야총림이 들어서게 되고 1947년에는 방장으로 효봉 스님, 도감으로 구산 스님을 모시고 정진에 들어갔다. 만암 스님은 백양사를 중심으로 고불총림(古佛叢林)을 열어 교단 쇄신을 위해 승풍 정화운동을 전개한다. 이어 1948년에는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취지아래 '봉암사 결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결사 운동은 한국전쟁으로 와해되기에 이른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는 정화의 혼란 탓으로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여러 선지식의 활약으로 1960년대부터 간화선 수행 풍토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신도 대상의 간화선 수행이 공식적으로 선 보인 것은 1960년 '대한불교조계종 달마회'가 매월 주중에 두 번씩 저녁에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선지식을 모시고 좌선과 법문, 문답을 진행하면서부터다.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는 1965년에 봉은사학생수도원을 열어 대학생들이 스님들처럼 수행 정진하기 시작하면서 수행 분위기를 이끌었다. 한편 1969년 김기추 거사가 충남 대덕에 거사풍의 보림선원을 개원해 신도들에게 '새말귀'라는 화두로 간화선을 지도하게 된다.

근대에는 출가자 위주 禪 수행
1960년 '달마회' 신도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 지도… 대중화 시작
1980년대 요가 명상서 인기몰이
1990년대 위빠사나 · 단학 등 열풍

94년 개혁 이후 수행 체계 정립
조계종, 간화선 등 입문서 발간
관련 수행프로그램 개발도 진행

불교 수행 대중화는 '현재진행형'
인재 양성 · 수행 공간 확보 시급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1970년대부터 사찰에서 수련대회가 개최하기 시작하여 신도들은 간간이 간화선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송광사 수련회가 인기를 모았다. 1970년대 중 ·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구산 스님은 송광사 수련회를 이끌면서 사람들에게 참선과 화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방학이나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여러 사찰에서 개최된 수련대회 참가자들은 새벽 참선 시간에 화두를 들고 정진했으며, 열성적인 신도들은 철야정진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의 간화선 수행지도는 체계적이지 못했다. 발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화두를 주었으므로 망상과 졸음에 사투하다시피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분위기가 1980년대까지 이어진다.

사람들은 수행에 목말라 했지만 체계적인 수행법 소개와 수행지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도 당시에 여러 수련대회에 참가하여 새벽이나 저녁 시간동안 참선 시간을 가졌지만 화두는 도무지 들리지 않아 어린 시절 물고기 잡던 추억이며 이러저런 생각을 헤아리며 시간을 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나마 수식관을 권유한 지도법사 스님의 권유에 따라 호흡을 세어가며 좌선에 든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1990년부터 전국에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보살선방이 개원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서도 체계적인 간화선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1980년에 용타 스님이 강진 무위사에 동사섭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982년 동사섭법회라 칭하면서 한국사회에 새로운 수행 명상문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수행이 좌선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루고 나누어, 바로 여기서 지극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 집착을 벗어나 탁 트인 해탈을 느끼는 것임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심어주었다.

또한 1980년대 초 라즈니쉬, 크리슈나무르티 등의 인도 성자들이 쓴 명상 번역서들이 대중의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인도 명상과 요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요가는 동국대 인도철학과와 서울대 요가 동우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 위빠사나를 동남아시아에서 체험하고 돌아온 여러 스님이며 재가 지도자에 의해 위빠사나가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가히 위빠사나 열풍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1993년부터 마음수련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점점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 급기야 교직원연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단 월드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였다. 그 무렵 아바타 수련에도 많은 불자들이 몰렸다. 틱낫한 스님이나 달라이라마의 수행과 명상 관련 책도 꾸준히 번역되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로 말미암아 간화선에 집중되었던 수행 인구는 외국의 수행법이나 제3수행으로 물밀 듯 빠져나갔다.

종단 차원 수행체계 정비

1995년 개혁종단이 출범했다. 그리고 종단차원의 수행문화 개선이 요구되었다. 1996년부터 1997까지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와 포교연구실을 중심으로 '신도 수행체계 정립 사업연구'를 진행하였다. 재가불자의 수행 여건 조성 및 체계적인 수행지도를 위한 수행체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점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재가불자 신행체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종단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간화선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법에 대한 체계적 소개와 안내를 해 주어 다소나마 갈증을 풀어주었다. 아마도 이것이 선, 간경, 염불, 진언, 기도수행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안내서라고 생각된다.

1999년에 들어 포교원에서는 〈재가자를 위한 수선 교본〉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참선의 의미', '좌선하는 방법', '호흡과 자세', '간화선과 화두 드는 법' 등을 일상의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재자불자들에게 참선의 의미와 가치, 화두 드는 방법을 안내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간화선을 비롯한 간경, 주력 등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보급은 이뤄지지 못했다. 위빠사나를 위시하여 당시 유행하던 수행 · 명상법과는 비교가 될 수 없었다.

2003년부터 포교연구실에서는 종단 수행체계에 대한 연구를 다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도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교육원에서는 수행전문가들을 규합하여 간화선을 비롯한 염불, 간경, 주력 등 여러 가지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포교원에서는 사찰이나 신도를 대상으로 신도 수행법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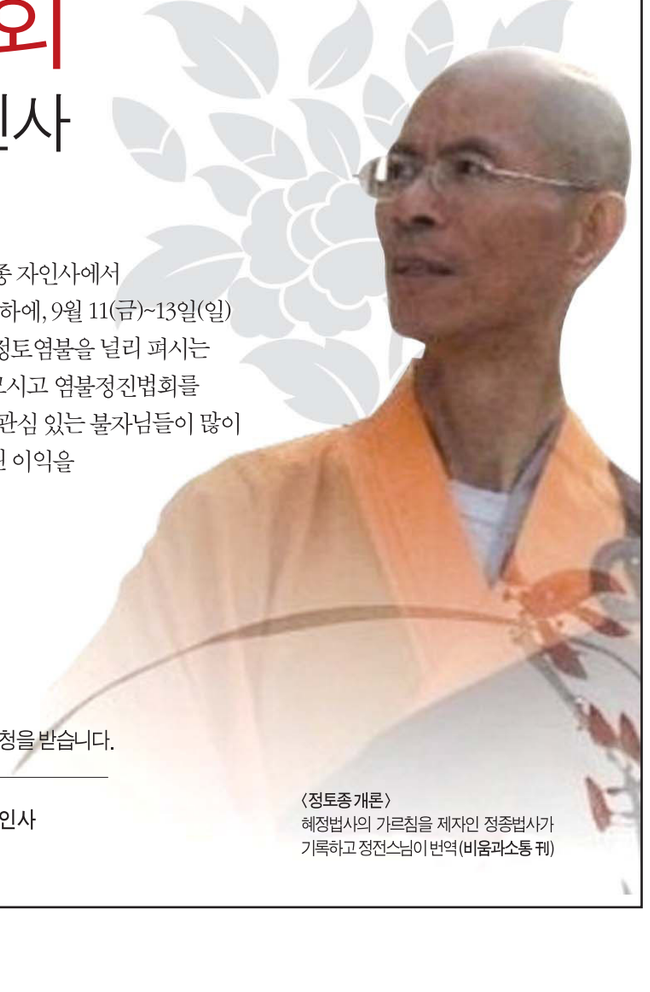
그 주된 목적은 마음산업으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수행과 명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종단차원에서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행 지침서를 비롯한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90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8월 17일
◆ 개강일시 : 2015년 8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혜정법사님 초청
정토염불법회
2015. 9. 11~13 | 자인사

나무아미타불!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조계종 자인사에서 건봉사 정전(서현)스님 주관하에, 9월 11(금)~13일(일) 2박3일간 대만과 중국에서 정토염불을 널리 펴시는 선지식이신 혜정법사님을 모시고 염불정진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염불에 관심 있는 불자님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정토염불의 참된 이익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준 비 물 : 세면도구, 옷가지(법복 및 취침복), 개인 물병
동 참 금 : 1박2일 - 5만원, 2박3일 - 10만원
접수방법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 확인 요망
농협(예금주 : 자인사) 351-0815-6450-13
※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808 자인사
☎ (031)532-6141, 9453

〈정토종개론〉
혜정법사의 가르침을 제자인 정종법사가 기록하고 정전스님이 번역(비움과소통 刊)

수행
한국불교
수행 70년

출세간서 수행 관심 확산


염불만일회의 염불 정진대회. 신라시대 염불만일회의 전통을 이은 이 단체는 매년 여름 정진대회를 열고 염불 수행을 이끌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이 만든 간화선 수행 지침서와 수행별 입문서. 2000년대 이후 수행의 이론체계 확립이 이뤄졌다.


진각종 신도들의 진언 수행. 밀교 종단을 중심으로 진언 수행은 보편화돼 있다.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행법 조사 및 연구 대상은 간화선, 간경, 주력, 절, 염불, 염불선, 위빠사나 등이었다. 이 중에서 먼저 간화선에 대한 수행 지침서 편찬과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였다. 그 결과 포교원에서는 2003년에 〈신도 수행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2004년에 〈불자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어 2005년에 교육원에서 〈간화선 – 조계종 수행의 길〉 단행본을 발간하여 보급하게 되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포교원 불학연구소 실무자들이 당시 전국 선원의 선원장 스님을 비롯한 중요한 수좌스님들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전국선원수좌회에서도 적극 호응하여 무수한 회의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었다. 이 책은 최초의 간화선에 대한 체계적인 수행지침서로서 현대 간화선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원에서는 또한 〈수행법 연구〉라는 묵직한 보고서 형태의 책을 발간하였다. 염불, 주력, 절, 간경, 사경, 사불, 계율 참회, 대승불교의 지관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티베트 불교수행법 등을 분야별로 총망라한 것이었다. 교육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 작업으로 절, 염불, 간경, 주력 지침서를 단행본으로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포교원에서도 〈간화선 – 조계종 수행의 길〉에 맞추어 2005년 11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해를 달리하면서 대학생,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과 어린이 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어린이 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나머지 간화선 계층별 프로그램은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대중화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달랐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나를 찾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각 계층별로 프로그램이 보급됐다.

아울러 포교원에서는 '간화선 대중화팀'을 만들어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지도할 지도자를 '선 포교사'라는 이름으로 배출하고자 노력했지만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해 중단된 상태로 머물고 있다. 현재 포교원에서는 이를 다시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찰 자체 수행프로그램 전개

이 시절 종단 집행부뿐만 아니라 몇몇 개별 사찰에서도 간화선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법과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포교에 진력하고 있었다.

안국선원의 경우, 1989년 문을 열고 부산과 서울에서 체계적인 간화선 지도로 간화선 대중화에 성공하여 많은 신도를 확보했으며 지금도 그 영향력이 크다. 제주 원명선원에서는 1976년부터 간화선 수련회 열어 간화선을 체계적으로 지도한 이래 안성에 활인선원을 개원하여 계층별로 다양한 간화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88년에 개원한 개포동 금강선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기초참선을 진행한 이후 단계별로 수행조직이 만들어 금강선원 시민선방에서 참선에 들고 있으며, 해남 미황사에서는 2005년부터 '참사람의 향기'라는 7박8일간의 간화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다. 이 밖에 여러 사찰이나 단체에서 간화선을 정점으로 한 여러 수행법과 상담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간화선 포교의 지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절 수행법은 법왕정사를 중심으로 힘차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밖에 개인이며, 사찰, 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절 수행이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절 수행은 108 절 명상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줌은 물론 현재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포교원에서는 2014년 염불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했다. 주력이나 염불 수행 또한 각 사찰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얼마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앞으로 간화선을 비롯한 각 수행법 현황과 지도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불교명상 단체 현황이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2004년에 포교원에서 진행했던 내용처럼 국내 명상 및 수행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禪과 명상의 접점 모색해야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폭력, 따돌림, 소외와 절망의 소용돌이에 따른 현대적인 병리현상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상과 상담이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명상은 소통과 자기반조, 창조력, 리더십을 향상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 전통적인 선과 수행을 응용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과 명상단체가 마음산업의 영역으로 파고들어 활동 중이다. 수행은 이제 명상의 언어와 방법으로 더 깊이 사람의 일상 속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화선, 절, 주력 수행 등은 화두명상, 절 명상, 만트라 명상 등으로 불리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수행(practice)이라는 말보다는 명상(meditation)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명상이 선수행의 영역을 담보할 수 있을까? 현재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럴 수 없다는 두 가지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을 어떻게 명상으로 대치할 수 있겠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선과 수행의 영역은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포교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명상은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명상은 좀 상업적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명상은 깨달음의 영역까지 접근하기 어렵고 마음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행 프로그램 또한 회비를 내고 진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명상이 상업적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다만 과도하게 돈을 받거나 사업적 기반에서 명상을 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 불교 명상의 경우, 명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가의 경우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불교 명상의 경우, 그것이 부처님 법에 근거해 중도 · 연기 · 무아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사람들에게 해탈과 평화, 행복을 심어준다면, 불교 수행이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간화선의 영역도 명상과 어떻게 관련을 맺을 것인지 개념정립도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포교원의 노력으로 최근에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불교명상 단체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수행과 명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포럼의 개최,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지도자 양성, 명상 지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별 커리큘럼 마련과 자격 심사, 명상의 실천적 조명과 과학적 접근, 한국의 전통적인 수행을 접목한 현대적인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 진흥에 따른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의 과제를 본 협회나 종단이 추진해 나간다면, 한국불교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 수행 풍토 확산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수행 및 명상법이 들어와 있다. 그 중에서 초기불교를 바탕으로 한 위빠사나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순수한 위빠사나 영역도 있지만, 현대 의과학과 접맥된 위빠사나 응용 프로그램은 의료, 뇌과학, 심리 상담, 스포츠, 리더십 개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영역이 서양의 유수한 대학에서 과학적 실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우리나라에 다층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적 위빠사나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한국불교문화 및 불교정신과 접맥된 독창적인 한국적 위빠사나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은 한국불교를 살찌울 뿐만 아니라 위빠사나 종교문화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간화선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적인 수행법 또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이 개발되긴 했지만,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돼야 한다. 현대인이 수용하기 알맞도록 여러 가지 방편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간화선에 대한 의과학적 및 상담심리학적 접근과 실험도 요구된다. 그래서 합리성과 대중성에 바탕에 둔 진정한 한국적 간화선이 정립될 때, 이것이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수행이요 한국적 간화선을 세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미국 땅에 관음선종을 펼친 숭산스님의 가치는 높게 평가해야 되리라고 본다. 참고로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일본의 조동종 가풍에 입각한 선수행은 제법 알려져 있다. 애플의 스티브잡스도 일본 조동종 선사에게 많은 영향을 많았다.

수행 및 명상 문화 저변 확대와 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 불교가 생각해 볼 점은 수행과 명상이 불교의 고유한 영역인데, 그것이 불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2014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사회연구소의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행 프로그램(명상 · 참선)에 대한 관심은 불교신자 30.5%, 가톨릭 14.6%, 개신교 10.2%였는데 비하여, 명상 · 수행의 경험은 반대로 개신교가 27.6%, 가톨릭이 14.6%, 불교 신자는 8.7%로 드러났다. 그 이전의 통계자료에는 가톨릭 신자가 명상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불교신자는 최하위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불교신자가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하지만 사찰에서 수행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찰의 구조가 대웅전을 중심으로 주불전이나 스님들의 요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도들이 수행과 명상을 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행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님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행과 명상 지도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다음 사찰에 신도나 일반인을 위한 수행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찰이 지역민을 위한 명상 · 수행센터의 역할을 해준다면 한국불교의 수행풍토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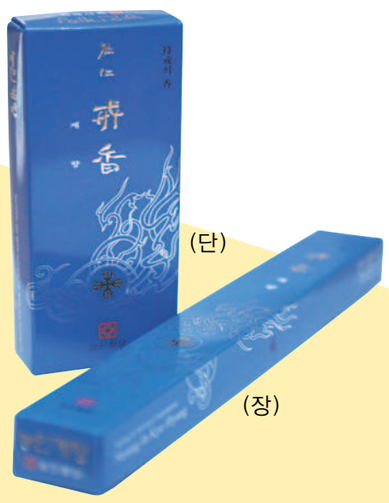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